

2023년 이슈페이퍼 모음집

2023 KICCE
육아지원정책 현안과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차례

[2023 이슈페이퍼 모음집]
육아지원정책 현안과 과제
KICCE(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ART 01

유치원·어린이집

- ◆ 초등학교 1학년 부모의 2019 개정 누리과정 및 학교 적응에 대한 인식 3
- ◆ 어린이집 연장·보조·대체교사 지원의 개선과제 25
- ◆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지원 내실화를 위한 개선과제 47

PART 02

가정 양육지원

- ◆ 영유아·임산부건강지원사업 발전방안 69
- ◆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및 가정양육지원 연계 전략 89
- ◆ 양육실태와 정책 수요를 고려한 영아 양육지원 전략 및 정책 과제 113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삶

- ◆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가구, 기관의 환경 변화와 영유아 발달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 141
- ◆ 코로나19로 인한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변화와 시사점 163
- ◆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영유아의 발달 현황 183

PART

01

유치원·어린이집

- 초등학교 1학년 부모의 2019 개정 누리과정 및 학교 적응에 대한 인식
김은영
- 어린이집 연장·보조·대체교사 지원의 개선과제
유해미
-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지원 내실화를 위한 개선과제
구자연

| 이슈페이퍼 2023-05 |

초등학교 1학년 부모의 2019 개정 누리과정 및 학교 적응에 대한 인식

김은영

1. 배경 및 문제 제기
2. 자녀에 대한 기대
3.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인식 및 기대
4. 초등학교 적응에 대한 인식
5. 개정 누리과정 운영에 대한 기대와 요구
6. 정책 제언

참고문헌

초등학교 1학년 부모의 2019 개정 누리과정 및 학교 적응에 대한 인식*

김은영 선임연구위원

◆◆ 요약 ◆◆

-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의 83.0%는 누리과정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95.5%는 유아교육에서의 놀이 중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의 95.1%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적응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경험이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96.1%임.
- 누리과정이 자녀의 초등학교 적응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지 조사한 결과, '즐거움 및 행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주도성', '타인배려 증가', '건강한 생활습관' 순이었음.
-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가 누리과정 운영에서 가장 기대했던 점은 기본생활습관 교육, 기초학습능력을 위한 교육, 충분한 놀이, 창의성, 디지털 리터러시 미래역량 제고 교육 순이었고, 가장 아쉬웠던 점은 현장체험, 창의성, 디지털 리터러시 미래역량 제고 교육, 기초학습능력을 위한 교육 순이었음.
-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는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 '교사 대 유아 비율 조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실내외 환경 개선, 누리과정 비용 지원 확대 순이었음.
- 이상의 맥락에서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지속 지원을 위해 현행 놀이 중심 교육과정 유지 및 발전, 배경 특성별 차별화된 지원, 교육과정 운영의 협력자로서 부모역량 제고 및 참여 확대를 위해 부모 대상 연수 지원, 지역 인프라를 통한 부모교육 시행, 부모의 교육과정 참여 확대를 제안하였으며, 질 높은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교사 대 유아 비율 조정, 최적화된 물리적 환경 기준 마련을 제시함.

* 본고의 내용은 2022년 육아정책연구소의 일반과제인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III)(김은영·구자연·김혜진·전홍주·최명희, 2022)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하였으며, 일부 내용은 추가함.

1

배경 및 문제 제기

가. 누리과정 개정의 배경 및 중점 사항

■ 누리과정 제정과 성과

- ◆ ‘국가책무성 강화’, ‘평등한 생애출발선 보장’이라는 비전을 기반으로 2012년 3월부터 시행된 5세 누리과정에 이어 2013년에 만 3~4세까지 누리과정을 조기 도입한다는 계획에 따라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2012년 7월에 고시함(김은영·임부연 외, 2018: 13~14).
- ◆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 증가, 누리과정 운영자와 이용 부모들의 만족도 향상,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 및 보육의 질 개선, 누리과정 담당 교원의 자격 향상 및 처우 개선,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의 역량 강화, 생애초기 출발선 평등 보장, 유아교육보육에서 인성과 창의성 강조 등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김은영·임부연 외, 2018: 19~21).

■ 누리과정 개정의 배경

- ◆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교육과정으로서 구성 체계 보완 필요, 교육 내용이 과다하여 현장에서 부담이 된다는 의견, 교사용지도서를 그대로 적용하여 교육과정 운영이 획일적이라는 비판을 받음.
- ◆ 국정과제 50번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의 세부과제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을 명시함.
- ◆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에 ‘놀이·유아중심의 교육과정 혁신’을 명시함: 누리과정 혁신 방향은 개별 유아의 다양한 특성 고려, 유아의 자유놀이 권장, 현장의 자율성 확대임.

■ 「2019 개정 누리과정」 개정의 중점

- ◆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서 구성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누리과정의 성격, 추구하는

인간상을 제시하고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구성 체계 및 내용을 연계함(교육부·보건복지부, 2019: 15-16).

- ◆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재정립하고자 함: 놀이시간 확보를 권장하고, 유아 놀이와 배움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촉구함(교육부·보건복지부, 2019: 16-17).
- ◆ 5개 영역의 이름은 그대로 유지하되 내용을 간략화 함(교육부·보건복지부, 2019: 18-19): 기존의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개 영역은 그대로 하고, 연령별로 세분화되어 있던 369개의 내용을 연령 구분 없이 59개 내용으로 대강화 함.
- ◆ 교사의 자율성을 강조함(교육부·보건복지부, 2019: 19-20): 경험 중심으로 내용을 간략화 함으로써 지역과 기관 및 학급 상황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과 자율성을 강조함.

나. 누리과정에 대한 부모의 인식

■ 누리과정에 대한 부모의 이해

- ◆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누리과정이 개정된 것을 인지하고 있고 놀이를 통한 배움에 대해 상당히 동의하지만, 누리과정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함(김대옥·신수진, 2021: 217).
- ◆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부모의 이해 부족으로 교사에 대한 신뢰감 부족,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놀이가 곧 배움이라는 놀이의 가치 및 교육철학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어려움이 존재함(임명희, 2020: 11).

■ 누리과정에 대한 부모의 우려

- ◆ 학습이 줄어 유·초연계와 학교적응에 대해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고, 교사의 역량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과 유아의 놀이를 관찰만 하는 교사에 대한 우려가 있음(신수진·박지희, 2021: 485).

-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 개정 누리과정 및 놀이에 대한 인식, 개정 누리과정의 효과 및 영향 등을 살펴보고,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함.

2 자녀에 대한 기대¹⁾

- 자녀에 대한 기대
 - ◆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가 어느 부분에서 뛰어나기를 바라는지를 조사한 결과, 1순위는 성격과 태도가 47.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사회성 23.0%, 학업능력 14.9%, 용모, 키 등 신체 8.2%, 예체능적 자질 6.9% 순으로 나타남.
 - ◆ 지역규모별로 읍·면지역의 학부모는 ‘성격과 태도’, ‘신체’를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학업능력’을 선택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중소도시 학부모의 경우 ‘사회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1〉 자녀가 뛰어나기를 바라는 점(1순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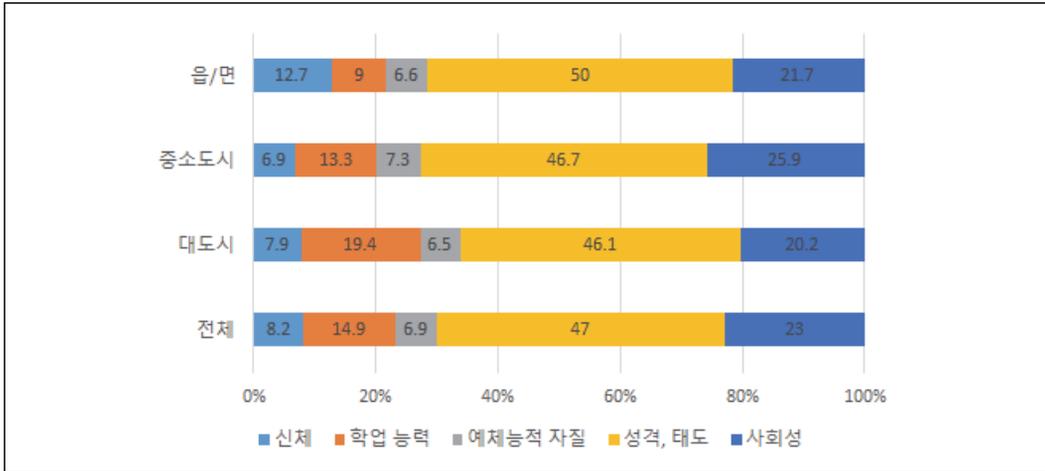
구분	신체	학업 능력	예체능적 자질	성격, 태도	사회성	기타	계(수)
전체	8.2	14.9	6.9	47.0	23.0	-	100.0(1,000)
지역 규모							
대도시	7.9	19.4	6.5	46.1	20.2	-	100.0(382)
중소도시	6.9	13.3	7.3	46.7	25.9	-	100.0(452)
읍/면	12.7	9.0	6.6	50.0	21.7	-	100.0(166)
$\chi^2(df)$			18.51(8)*				

출처: 김은영 외(2022).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Ⅲ). 육아정책연구소. pp. 119-120. 〈표 IV-1-1〉를 편집함.

* $p < .05$.

1) 2, 3, 4장은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그림 1] 자녀가 뛰어나기를 바라는 점(1순위)



출처: 김은영 외(2022),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Ⅲ). 육아정책연구소. pp. 119-120. <표 IV-1-1>의 일부를 그래프화 함.

3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인식 및 기대

■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부모의 이해

- ◆ 자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닐 때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개정 누리과정을 적용받았다는 것을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가 인지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의 83.0%가 인지하고 있었음.
- ◆ 이러한 결과는 학부모의 맞벌이 여부와 학력, 자녀의 직전 경험기관 등 부모와 자녀의 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

〈표 2〉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인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계(수)
전체	83.0	17.0	100.0 (1,000)
초등 직전 경험기관			
유치원	82.3	17.7	100.0 (689)
어린이집	84.6	15.4	100.0 (311)
$\chi^2(df)$	0.78(1)		

출처: 김은영 외(2022).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Ⅲ). 육아정책연구소. p. 128. 〈표 IV-2-3〉을 편집함.

■ 자녀의 놀이에 대한 인식

- ◆ 자녀의 놀이에 대한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의 인식을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놀이는 우리 아이에게 무척 재미있는 활동이다’에 대한 점수가 4.28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우리 아이와 함께 놀이하는 것은 우리 아이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4.24점, ‘놀이는 우리 아이의 언어와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킨다’와 ‘놀이는 우리 아이의 사고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각 4.18점순이었음.
- ◆ ‘성인이 우리 아이와 함께 놀이하면 아이는 놀이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운다’는 3.95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함.

〈표 3〉 자녀의 놀이에 대한 인식

단위: 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놀이는 우리 아이가 친구를 사귀고 협동하는 사회적 기술들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4.11	0.75
놀이는 우리 아이의 언어와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킨다	4.18	0.78
가정에서의 놀이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	4.06	0.74
성인이 우리 아이와 함께 놀이하면 아이는 놀이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운다	3.95	0.75
놀이는 우리 아이의 사고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4.18	0.71
놀이는 우리 아이가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배울 수 있게 도와준다	4.12	0.74
놀이는 우리 아이에게 무척 재미있는 활동이다	4.28	0.73
우리 아이와 함께 놀이하는 것은 우리 아이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4.24	0.74
놀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는 새로운 기술과 능력들을 발달시킨다	4.12	0.73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의 놀이는 우리 아이가 입학 후 학교 적응에 도움이 된다	4.08	0.73

출처: 김은영 외(2022).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Ⅲ). 육아정책연구소. pp. 121. 〈표 IV-1-3〉을 편집함.

■ 놀이 중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아교육에서의 놀이 중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은 34.1%, 필요한 편이라는 의견은 61.4%로 전체의 95.5%가 놀이 중심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4점 척도 기준 평균점수는 3.29점으로 나타남.

〈표 4〉 유아교육에서의 놀이 중심 교육의 필요성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은 편임	필요한 편임	매우 필요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0.4	4.1	61.4	34.1	100.0 (1,000)	3.29	0.56
초등 직전 경험기관							
유치원	0.3	3.6	61.2	34.8	100.00 (689)	3.31	0.55
어린이집	0.6	5.1	61.7	32.5	100.00 (311)	3.26	0.58
$\chi^2(df)/t$		2.23(3)				1.20	

출처: 김은영 외(2022).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Ⅲ). 육아정책연구소. p. 138. 〈표 IV-2-8〉에서 2021년 조사결과 일부 발췌함.

4 초등학교 적응에 대한 인식

■ 개정 누리과정 경험 아동의 초등학교 적응

-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개정 누리과정을 경험한 유아가 초등학교에 어떻게 적응하였는지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잘 적응하였다는 응답 33.5%, 잘 적응하는 편이라는 응답 61.6%로 95.1%의 학부모들이 자신의 자녀가 초등학교에 잘 적응하였다고 인식하였으며, 4점 척도에서 3.28점으로 나타남.
- ◆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가 느끼는 자녀의 적응 정도는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직전에 경험한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유치원을 이용했던 부모가 어린이집을 이용했던 부모에 비해 자녀가 초등학교에 잘 적응했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5〉 개정 누리과정 경험 아동의 초등학교 적응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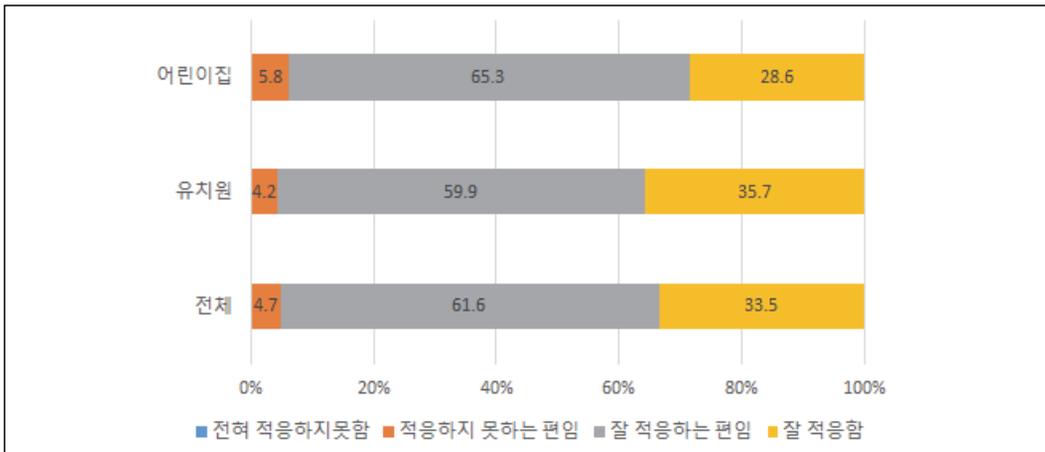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적응하지 못함	적응하지 못하는 편임	잘 적응하는 편임	잘 적응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0.2	4.7	61.6	33.5	100.00 (1,000)	3.28	0.56
초등 직전 경험기관							
유치원	0.1	4.2	59.9	35.7	100.00 (689)	3.31	0.55
어린이집	0.3	5.8	65.3	28.6	100.00 (311)	3.22	0.56
$X^2(df)/t$	5.67(3)					2.38*	

출처: 김은영 외(2022).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Ⅲ). 육아정책연구소. p. 131. 〈표 IV-2-6〉

* $p < .05$

〈그림 2〉 개정 누리과정 경험 아동의 초등학교 적응 정도



출처: 김은영 외(2022).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Ⅲ). 육아정책연구소. p. 131. 〈표 IV-2-6〉을 그래프화 함.

■ 개정 누리과정 경험의 영향

- ◆ 자녀가 초등학교에 잘 적응하였다고 응답한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951명을 대상으로 자녀의 적응에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의 경험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 조사한 결과, 영향을 많이 주었다는 응답은 30.1%, 영향을 준 편이라는 응답은 66.0%로, 96.1%가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함.
- ◆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 자녀의 특성과 관계없이 유사하게 나타남.

〈표 6〉 초등학교 적응에 유치원/어린이집의 경험이 미친 영향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음	영향을 주지 않은 편임	영향을 준 편임	많이 영향을 줌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0.1	3.8	66.0	30.1	100.00 (951)	3.26	0.52
초등 직전 경험기관							
유치원	0.2	3.6	64.2	32.0	100.00 (659)	3.28	0.53
어린이집	0.0	4.1	70.2	25.7	100.00 (292)	3.22	0.50
$X^2(df)/t$		4.37(3)				1.81	

출처: 김은영 외(2022).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Ⅲ). 육아정책연구소. p. 131. 〈표 IV-2-7〉

■ 개정 누리과정 경험의 긍정적 영향

- ◆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에게 유치원/어린이집의 교육과정이 자녀의 초등학교 적응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지 조사한 결과, ‘즐거움 및 행복’이 2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는 ‘주도성’ 21.6%, ‘타인배려 증가’ 19.5%, ‘건강한 생활습관’ 18.6%, ‘창의성’ 13.5% 순으로 나타남.
- ◆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직전 경험기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창의성’은 어린이집의 응답비율이 더 높았고, ‘타인배려 증가’는 유치원의 응답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표 7〉 초등학교 적응에 유치원/어린이집 교육과정이 미친 긍정적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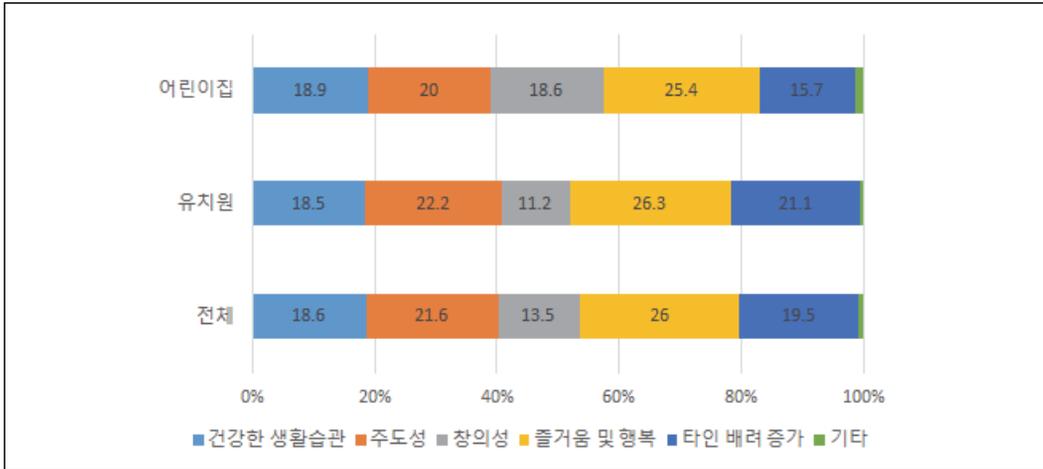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건강한 생활습관	주도성	창의성	즐거움 및 행복	타인 배려 증가	기타	계(수)
전체	18.6	21.6	13.5	26.0	19.5	0.9	100.0 (914)
초등 직전 경험기관							
유치원	18.5	22.2	11.2	26.3	21.1	0.6	100.0 (634)
어린이집	18.9	20.0	18.6	25.4	15.7	1.4	100.0 (280)
$X^2(df)/t$		12.74(5)*					

출처: 김은영 외(2022).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Ⅲ). 육아정책연구소. p. 132. 〈표 IV-2-8〉

* $p < .05$.

[그림 3] 초등학교 적응에 유치원/어린이집 교육과정이 미친 긍정적 영향



출처: 김은영 외(2022).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Ⅲ). 육아정책연구소, p. 132. <표 IV-2-8>을 그래프화 함.

5

개정 누리과정 운영에 대한 기대와 요구

■ 개정 누리과정 운영에 대한 기대

- ◆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가 자녀를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교육과정 운영에서 가장 기대했던 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기본생활습관 교육’이 38.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기초학습능력을 위한 교육’ 20.1%, ‘충분한 놀이’ 15.9%, ‘창의성’, ‘디지털 리터러시 미래역량 제고 교육’ 10.2%, ‘예체능 교육’ 7.2%, ‘현장체험’ 7.0%의 순이었음.
- ◆ 이러한 결과는 학부모의 학력과 자녀의 직전 경험기관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고졸 이하 부모의 경우 기본생활습관 교육과 기초학습능력을 위한 교육을 기대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또한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냈던 학부모는 유치원에 보낸 학부모에 비해 기본생활습관 교육에 대한 기대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8〉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교육과정 운영에서 가장 기대했던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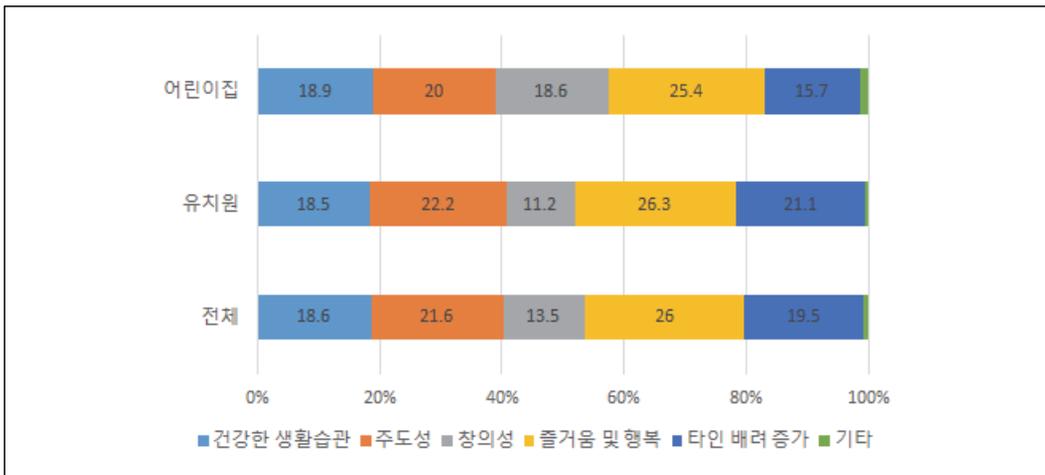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충분한 놀이	기초학습 능력을 위한 교육	예체능 교육	기본 생활 습관 교육	현장 체험	창의성, 디지털 리터러시 미래역량 제고교육	기타	계(수)
전체	15.9	20.1	7.2	38.9	7.0	10.2	0.7	100.0 (1,000)
최종학력								
고졸 이하	9.1	28.6	2.6	50.6	2.6	6.5	0.0	100.0 (77)
전문대졸	19.5	17.6	5.7	35.2	11.9	10.1	0.0	100.0 (159)
4년제대학졸	15.7	19.8	8.4	39.8	5.7	9.7	0.8	100.0 (616)
대학원졸 이상	16.2	19.6	6.1	33.1	9.5	14.2	1.4	100.0 (148)
$\chi^2(df)$			32.53(18)*					
초등 직전 경험기관								
유치원	16.5	21.5	6.1	36.7	7.3	10.9	1.0	100.0 (689)
어린이집	14.5	17.0	9.6	43.7	6.4	8.7	0.0	100.0 (311)
$\chi^2(df)$			13.53(6)*					

출처: 김은영 외(2022).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Ⅲ). 육아정책연구소. p. 177. 〈표 IV-6-3〉

* $p < .05$.

〔그림 4〕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교육과정 운영에서 가장 기대했던 점



출처: 김은영 외(2022).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Ⅲ). 육아정책연구소. p. 177. 〈표 IV-6-3〉을 그래프화 함.

■ 개정 누리과정에서 아쉬웠던 점

- ◆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교육과정 운영에서 가장 아쉬웠던 것은 ‘현장 체험’ 29.3%, ‘창의성’, ‘디지털 리터러시 미래역량 제고 교육’ 23.3%, ‘기초학습능력을 위한 교육’ 18.3% 순이었으며, ‘충분한 놀이’는 6.1%로 가장 비율이 낮았음.
- ◆ 이러한 결과는 유치원에 보낸 학부모 중에서만 유치원 설립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공립단설유치원에 보낸 학부모는 ‘기초학습능력을 위한 교육’이 아쉬웠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사립사인유치원에 보낸 학부모는 ‘현장체험’이 아쉬웠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9〉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교육과정 운영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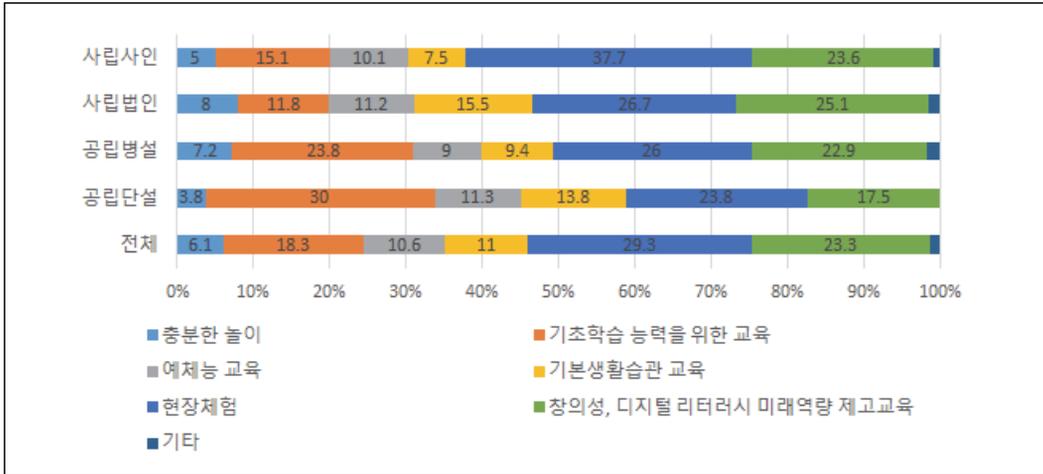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충분한 놀이	기초학습 능력을 위한 교육	예체능 교육	기본생활 습관교육	현장 체험	창의성, 디지털 리터러시 미래역량 제고교육	기타	계(수)
전체	6.1	18.3	10.6	11.0	29.3	23.3	1.4	100.0 (1,000)
유치원 유형								
공립단설	3.8	30.0	11.3	13.8	23.8	17.5	0.0	100.0 (80)
공립병설	7.2	23.8	9.0	9.4	26.0	22.9	1.8	100.0 (223)
사립법인	8.0	11.8	11.2	15.5	26.7	25.1	1.6	100.0 (187)
사립사인	5.0	15.1	10.1	7.5	37.7	23.6	1.0	100.0 (199)
$\chi^2(df)$				34.47(18)*				

출처: 김은영 외(2022).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Ⅲ). 육아정책연구소. p. 178. 〈표 IV-6-4〉

* $p < .05$.

[그림 5]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교육과정 운영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



출처: 김은영 외(2022).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Ⅲ). 육아정책연구소. p. 178. <표 IV-6-4>를 그래프화 함.

■ 정부 지원 정책

- ◆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 ‘교사 대 유아 비율 조정’이 40.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실내외 환경 개선’ 26.3%, ‘누리과정 비용 지원 확대’ 12.7%, ‘개정 누리과정 홍보 확대’ 10.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이러한 결과는 학부모나 자녀의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음.

<표 10>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

단위: %(명)

구분	교사 교육 강화	실내외 환경개선 지원	교사 대 유아 비율조정	「2019 개정 누리과정」 홍보 확대	누리과정 비용 지원확대	기타	계(수)
전체	9.5	26.3	40.6	10.2	12.7	0.7	100.0(1,0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10.8	25.0	40.1	11.1	12.4	0.5	100.0(619)
홀벌이	7.3	28.3	41.5	8.7	13.1	1.0	100.0(381)
$X^2(df)$				6.68(5)			
최종학력							
고졸 이하	9.1	18.2	44.2	13.0	14.3	1.3	100.0(77)

구분	교사 교육 강화	실내외 환경개선 지원	교사 대 유아 비율조정	「2019 개정 누리과정」 홍보 확대	누리과정 비용 지원확대	기타	계(수)
전문대졸	6.3	23.9	47.2	8.8	13.2	0.6	100.0(159)
4년제대학졸	9.4	29.5	38.5	9.4	12.5	0.6	100.0(616)
대학원졸 이상	13.5	19.6	40.5	13.5	12.2	0.7	100.0(148)
$\chi^2(df)$			17.67(15)				
소득							
400만원 이하	4.8	28.6	43.7	10.0	12.6	0.4	100.0(231)
401~550만원 이하	7.2	27.0	41.3	9.6	14.0	1.0	100.0(293)
551~700만원 이하	14.5	23.2	38.6	9.5	13.3	0.8	100.0(241)
700만원 초과	11.9	26.4	38.7	11.9	10.6	0.4	100.0(235)
$\chi^2(df)$			20.51(15)				
초등 직전 경험기관							
유치원	10.9	27.1	38.6	9.3	13.5	0.6	100.0(689)
어린이집	6.4	24.4	45.0	12.2	10.9	1.0	100.0(311)
$\chi^2(df)$			10.60(5)				
유치원 유형							
공립단설	10.0	28.8	40.0	5.0	16.3	0.0	100.0(80)
공립병설	15.2	31.4	30.9	9.9	11.2	1.3	100.0(223)
사립법인	7.5	26.7	42.2	11.2	11.8	0.5	100.0(187)
사립개인	9.5	22.1	43.2	8.5	16.6	0.0	100.0(199)
$\chi^2(df)$			24.41(15)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7.6	19.5	42.4	16.9	12.7	0.8	100.0(118)
사회복지법인, 단체 등	8.1	29.7	35.1	10.8	16.2	0.0	100.0(37)
민간	4.2	27.3	51.0	7.7	9.1	0.7	100.0(143)
직장	15.4	23.1	30.8	23.1	0.0	7.7	100.0(13)
$\chi^2(df)$			23.57(15)				
지역 규모							
대도시	11.8	27.0	39.3	9.7	11.8	0.5	100.0(382)
중소도시	8.4	24.1	42.9	10.0	13.9	0.7	100.0(452)
읍/면	7.2	30.7	37.3	12.0	11.4	1.2	100.0(166)
$\chi^2(df)$			9.35(10)				

출처: 김은영 외(2022).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Ⅲ). 육아정책연구소. pp. 178-179. <표 IV-6-5>를 편집함.

6

정책 제언

가.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지속 지원

■ 현행 놀이 중심 교육과정 유지 및 발전

- ◆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는 성격과 태도, 사회성에 있으며, 이러한 기대는 현 교육과정 내에서 충분히 길러질 수 있음.
- ◆ 부모의 대부분이 유아교육에서 놀이 중심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험이 초등학교 적응에 영향을 주었다고 인식함.
- ◆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경험한 유아 대부분이 초등학교에 잘 적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아기 교육과정이 ‘유아의 즐거움과 행복’, ‘주도성’, ‘타인 배려’, ‘건강한 생활 습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인식하고 있음.
- ◆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 유아들의 행복에 기여하고, ‘주도성’과 ‘타인 배려’ 등 미래역량을 증진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 유아기 교육과정에서 부모들이 기대했던 ‘기본생활습관교육’과 ‘기초학습능력’, 가장 아쉽게 생각했던 ‘현장 체험’, ‘미래역량 제고’, ‘기초학습능력’ 등을 고려하여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배경 특성별 차별화된 지원

- ◆ 누리과정을 경험한 유아들의 대부분이 초등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으나 유치원 재원 유아가 상대적으로 더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는 요소가 무엇인지 분석하여 어린이집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 유아기 교육과정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공립단설유치원은 ‘기초학습능력’, ‘사립 사인유치원’은 ‘현장체험’으로 나타나, 설립유형에 따라 이러한 부분을 보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나. 교육과정 운영의 협력자로서 부모역량 제고 및 참여 확대

■ 부모 대상 연수 지원

- ◆ 많은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가 유아 중심, 놀이 중심 누리과정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나머지 17%는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유아교육과정 이해를 위한 부모 대상 연수가 필요함.
- ◆ 「2019 개정 누리과정」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으로 부모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부모들에게 유아에 대한 이해, 유아 권리에 대한 이해,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 교육과정 운영의 협력자로서 가정에서의 연계 지원 등에 대한 연수를 통해 부모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 부모 대상 연수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기관과 소통하며 가정에서도 유아의 놀이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해야 함.

■ 지역 인프라를 통한 부모교육 시행

- ◆ 부모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는 정부 차원에서, 시도 전달체계 차원에서, 개별 기관 차원에서, 혹은 개별 학급 차원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협력자로서 부모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이나 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 2022년에 교육부는 누리과정 포털 사업의 일환으로 부모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온라인 연수를 실시하였는데, 이러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시도 전달체계 차원에서도 시도교육청이나 유아교육진흥원,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지역 인프라를 통해 부모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부모의 교육과정 참여 확대

- ◆ 부모와의 소통과 연계 및 교육과정에서의 참여는 부모로 하여금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자녀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질을 제고하고 가정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유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 각 기관에서는 오프라인에서의 만남 뿐 아니라 가정통신문을 비롯하여 홈페이지,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부모와 긴밀히 소통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다. 질 높은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 여건 조성

■ 교사 대 유아 비율 조정

- ◆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 ‘교사 대 유아 비율 조정’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배경 변인에 상관없이 일관적임.
- ◆ 현재 시도교육청이나 시도청 차원에서 교사 대 유아 비율을 조정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음. 서울시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말까지 어린이집 보육교사 1인당 담당하는 만3세 유아수를 15명에서 10명으로 줄여서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발표를 하였고(내손안의 서울, 2021. 4. 20),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공립유치원 학급당 유아수를 만3세는 16명에서 14명, 만4세는 22명에서 18명, 24명에서 20명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세웠음(연합뉴스, 2022. 10. 22).
- ◆ 우리나라 전국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교사 대 유아 비율 평균을 보면 각각 유치원 14.3, 어린이집 5.0으로(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2, 보건복지부, 2022) OECD 평균 10(OECD, 2022)과 비교하면 크게 벗어나 있지 않음.²⁾
- ◆ 이러한 교사 대 유아 비율의 평균은 대도시의 과밀학급과 읍·면지역의 극소수학급의 현황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지역 특성에 따른 조정된 비율 기준이 필요함. 예를 들어 대도시 과밀학급에는 교사 2인을 배치하거나 보조교사를 지원함으로써 교사 대 유아 비율을 조정할 수 있고, 읍·면지역의 극소수학급은 통합하거나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 ◆ 저출산으로 인해 줄어드는 유아수와 기존 교사와 새로 유입되는 교사 등 교사 수급을 고려하여 향후 10년간의 교사 대 유아 비율과 학급당 유아 수 조정에 대한 계획을

2) 유치원은 2022년 통계 기준, 어린이집은 2021년 통계 기준, OECD는 2020년 자료 기준이며, 교직원인 아닌 교사 대 유아 비율로 산출한 수치임.

미리 세워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최적화된 물리적 환경 기준 마련

- ◆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 ‘실내외 환경 개선’을 두 번째로 높게 응답하였음.
- ◆ 물리적 환경은 우리가 느끼고 행동하는 데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여부를 결정지을 뿐 아니라 교육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김은영 외, 2009: 1).
- ◆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대상이나 규모는 기관이나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에 따른 차이, 기관에 따른 지원 차이가 발생함.
- ◆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정부 지원 및 지역 기관 협약을 통한 컨설팅, 유아·놀이 중심을 위한 교실 환경 구성 등에 대해 자문해 줄 수 있는 전문가 양성, 물리적 환경 개선 사례공유 등이 필요함.
- ◆ 시도 전달체계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는 유아들의 일상생활과 놀이를 위한 최적화된 물리적 환경 기준을 새로 마련하여 법을 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현장을 지원함으로써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지원할 뿐 아니라 미래교육을 대비할 수 있을 것임.

I 참고 문헌 I

- 교육부·보건복지부(2019).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2). 교육통계연보 2022.
- 김대욱·신수진(2021).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인식 및 요구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25(1), 197-223.
- 김은영·구자연·김혜진·전홍주·최명희(2021).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II).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영·구자연·김혜진·전홍주·최명희(2022).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III).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영·김진경·최경숙·조운주·조혜주·안진(2009). 유치원과 보육시설 시설·설비 기준 개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영·임부연·강은진·고영미·김진숙·문무경·이경화·이미화·이완정·이정옥·정선아(2019). 누리과정 개정 정책 연구. 교육부·충청남도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
- 보건복지부(2022). 2021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20).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 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8). 표준보육과정의 이해와 실제.
- 신수진·박지희(2021).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우려와 기대. 어린이문학교육연구, 22(3), 479-504.
- 임명희(2020). 2019 개정 누리과정 실행과정에서 어린이집 교사의 경험 탐색. 한국보육학회지, 20(3), 1-23.
- 최은영(2022).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육과정 문서, 실행 수준을 중심으로. 통합교육과정연구, 16(2), pp. 212-242.
- OECD(2022). Education at a Glance 2022.

[인터넷 자료]

- 내손안의 서울(2021. 4. 20). 보육교사 1명당 아동 수 줄인다...만3세반 15명→10명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1363?tr_code=snews (인출일: 2022. 11. 17.)
- 연합뉴스(2022. 10. 22). 서울공립유치원 학급당 유아수 줄인다...만5세반 24→20명
<https://www.yna.co.kr/view/AKR20221021139600530?input=1195m> (인출일: 2022. 11. 17.)

| 이슈페이퍼 2023-06 |

어린이집 연장·보조·대체교사 지원의 개선과제

유해미

1. 문제 제기
 2. 연장·보조·대체교사 공급 실태 및 수요
 3. 연장·보조·대체교사의 근로만족도와 개선요구
 4. 정책 제언
 5. 기대효과
- 참고문헌

어린이집 연장·보조·대체교사 지원의 개선과제*

유해미 선임연구위원

◆◆ 요약 ◆◆

-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교사, 보조교사, 대체교사의 배치 및 공급이 어린이집 특성 및 지역에 상관없이 고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행 지원방식 및 지원기준의 개편이 필요함.
- 연장, 보조, 대체교사가 지원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수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보육교사 수급 전략으로는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역할을 수행하는 비담임교사 지위 신설과 이들을 직장어린이집, 160명 이상 대규모 기관, 읍면지역 소재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제안함.
- 세부과제로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 관련 규정의 개선, 재교육 강화, 보육교사 유형별 근로여건 개선 방안을 제안함.

1

문제 제기

-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보육서비스 질 개선, 종일제보육의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보조교사, 대체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지원하고 있음.
 - ◆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2020년 3월부터 16시부터 19시 30분까지 운영되는 연장보육을 담당하고, 부모에게 하원 지도 및 영유아를 인계하는 업무를 수행함(보건복지부, 2023: 469).
 - ◆ 보조교사는 2015년부터 보육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해 지원하며, 2020년 이후로는 기존의 보육 등 보조 업무와 휴게시간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보수교육, 연가 시

* 본고의 내용은 육아정책연구소의 2022년 기본과제인 「어린이집 연장·보조·대체교사운영 실태와 개선과제(유해미·구자연·김문정)」를 기반으로 작성됨.

- 에도 담임교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음(김아름·김은설·조혜주·양성은, 2020: 47-48).
- 장애아 현원 3명 이상 보육하는 전문/통합어린이집과 영아반을 2개 이상 운영하고 영아반 전체 정원충족률 50% 이상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4시간(월~금, 주당 20시간)을 지원함(보건복지부, 2023: 465).
 - ◆ 대체교사는 2015년부터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를 대비하여 지원하며,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시·군·구), 어린이집에서 채용함(보건복지부, 2023: 459).
 - 보수교육(주중 1~5일, 최대 10일) 참석, 본인 결혼(주중 1~5일, 최대 5일), 연가(주중 1~15일, 최대 15일), 건강검진, 예비군 훈련, 긴급사유 발생 시에 지원함.
- 어린이집 특성(유형/규모)과 소재지에 상관없이 균등한 서비스의 질이 보장되고, 모든 보육교사의 기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연장·보조·대체교사의 공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위체계의 정비와 배치기준의 개선이 요구됨.
- ◆ 관련하여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는 어린이집에 상시적으로 보조·연장·대체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사 직위를 신설하는 방안이 제시됨(보건복지부, 2022: 37).
- 또한 어린이집의 연장·보조·대체교사가 좋은 일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지원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여건의 개선이 요구됨.
- 본고에서는 어린이집 연장·보조·대체교사의 공급 실태 및 수요를 분석하여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한 지원방식의 개선과 보육교사 유형별로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 ◆ 근로만족도와 보육교사 유형별 선호도 등을 비교하여 함의를 도출하고, 어린이집 원장의 수요를 종합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함.

2 연장·보조·대체교사 공급 실태 및 수요¹⁾

어린이집 유형, 규모, 소재지별로 연장, 보조, 대체교사의 공급 수준 및 그 특성을 파악하고, 보육교사의 유형별로 교사의 선호도와 어린이집의 수요를 종합한 바는 다음과 같음.

가. 연장·보조·대체교사 공급 실태

■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교사 공급 현황 및 특성

- ◆ 2022년 기준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공급 비율은 38.7%이고, 직장어린이집의 해당 비율이 25.4%로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임.
- ◆ 2022년 기준 담임교사가 연장보육 담당교사를 겸임하는 비율은 직장어린이집에서 57.4%, 읍면지역에서 33.1%, 160명 이상 규모에서 40%선을 초과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1〉 어린이집 유형별 연장보육 담당교사 현황(2022)

단위: 학급, 명, %

구분	연장반 (A)	연장반 전담교사		담임교사+ 연장반 겸임		보조교사+ 연장반 겸임		기타+ 연장반 겸임	
		수 (B)	비율 (B/A)	수 (C)	비율 (C/A)	수 (D)	비율 (D/A)	수 (E)	비율 (E/A)
전체	44,590	17,277	38.7	13,630	30.6	7,726	17.3	7,281	16.3
국공립	9,915	3,490	35.2	3,746	37.8	1,484	15.0	1,525	15.4
사회복지법인	1,510	513	34.0	503	33.3	296	19.6	218	14.4
법인단체 등	740	246	33.2	288	38.9	120	16.2	106	14.3
민간	13,810	5,753	41.7	4,481	32.4	2,363	17.1	1,494	10.8
가정	14,536	6,211	42.7	2,315	15.9	3,020	20.8	3,540	24.4
협동	153	68	44.4	44	28.8	31	20.3	17	11.1
직장	3,926	996	25.4	2,253	57.4	412	10.5	381	9.7

주: 기타는 담임교사, 보조교사 외의 교사가 연장반을 겸임하는 경우임.

자료: 유해미·구자연·김문정(2022). 어린이집 연장·보조·대체교사 운영 실태와 개선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 87; 사회보장정보원(2022). 내부자료. (2022년 7월말 기준)

1) 이하 내용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22년에 수행한 「어린이집 연장·보조·대체교사운영 실태와 개선과제」(유해미·구자연·김문정)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임.

〈표 2〉 어린이집 소재지별 연장보육 담당교사 현황(2022)

단위: 학급, 명, %

구분	연장반 (A)	연장반 전담교사		담임교사+ 연장반 겸임		보조교사+ 연장반 겸임		기타+ 연장반 겸임	
		수 (B)	비율 (B/A)	수 (C)	비율 (C/A)	수 (D)	비율 (D/A)	수 (E)	비율 (E/A)
전체	44,590	17,277	38.7	13,630	30.6	7,726	17.3	7,281	16.3
대도시	15,417	7,606	49.3	4,232	27.5	2,777	18.0	2,160	14.0
중소도시	20,123	3,005	14.9	6,399	31.8	3,224	16.0	3,528	17.5
읍면지역	9,050	6,666	73.7	2,999	33.1	1,725	19.1	1,593	17.6

주: 기타는 담임교사, 보조교사 외의 교사가 연장반을 겸임하는 경우임.

자료: 유해미·구자연·김문정(2022). 어린이집 연장·보조·대체교사 운영 실태와 개선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 86; 사회보장정보원(2022). 내부자료. (2022년 7월말 기준)

〈표 3〉 어린이집 규모(현원 기준)별 연장보육 담당교사 현황(2022)

단위: 학급, 명, %

구분	연장반 (A)	연장반 전담교사		담임교사+ 연장반 겸임		보조교사+ 연장반 겸임		기타+ 연장반 겸임	
		수 (B)	비율 (B/A)	수 (C)	비율 (C/A)	수 (D)	비율 (D/A)	수 (E)	비율 (E/A)
전체	44,590	17,277	38.7	13,630	30.6	7,726	17.3	7,281	16.3
20명 이하	17,482	7,432	42.5	3,292	18.8	3,583	20.5	3,839	22.0
21~39명	7,932	3,124	39.4	3,080	38.8	1,388	17.5	567	7.1
40~49명	3,826	1,385	36.2	1,512	39.5	655	17.1	347	9.1
50~80명	8,444	3,039	36.0	3,077	36.4	1,244	14.7	1,298	15.4
81~99명	2,927	1,014	34.6	1,036	35.4	406	13.9	541	18.5
100~160명	2,882	970	33.7	1,063	36.9	361	12.5	547	19.0
161~200명	511	168	32.9	221	43.2	56	11.0	79	15.5
201~240명	250	77	30.8	112	44.8	24	9.6	39	15.6
241~300명	329	62	18.8	237	72.0	9	2.7	23	7.0
300명 초과	7	6	85.7	-	-	-	-	1	14.3

주: 기타는 담임교사, 보조교사 외의 교사가 연장반을 겸임하는 경우임.

자료: 유해미·구자연·김문정(2022). 어린이집 연장·보조·대체교사 운영 실태와 개선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p. 87-88; 사회보장정보원(2022). 내부자료. (2022년 7월말 기준)

■ 어린이집 보조교사 공급 현황 및 특성

- ◆ 담임교사 수 대비 전체 보조교사 공급률은 2015년 9.6%에서 2021년 23.1%로 약 2.4배 증가함(보건복지부, 2015; 보건복지부, 2021).
- ◆ 2022년 기준 어린이집 정원규모별로 담임교사 수 대비 보조교사의 공급률은 20명 이하와 50~240명 이하 기관에서 24.5~27.7%로 높은 편이고, 21~49명 이하 기관에서 18.9~19.7%로 상대적으로 낮음(사회보장정보원, 2022, 내부자료).

〈표 4〉 어린이집 규모별 보조교사 현황(2022)

단위: 명, %

구분	담임교사 (A)	누리과정 보조교사 (30시간이상+30시간 미만) (B)	기타 보조교사 (C)	공급률 (B+C/A)
전체	168,821	8,299	30,932	23.2
20명 이하	54,848	32	13,388	24.5
21~39명	33,675	381	5,976	18.9
40~49명	16,539	548	2,702	19.7
50~80명	34,385	3,157	5,219	24.4
81~99명	12,298	1,501	1,728	26.3
100~160명	12,300	1,887	1,514	27.7
161~200명	2,255	389	221	27.1
201~240명	1,390	231	121	25.3
241~300명	1,089	165	62	20.8
300명 초과	42	8	1	21.4

자료: 유해미·구자연·김문정(2022). 어린이집 연장·보조·대체교사 운영 실태와 개선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 97; 사회보장정보원(2022). 내부자료. (2022년 7월말 기준)

- ◆ 2021년 기준 전국 시·도별로 담임교사 수 대비 전체 보조교사 공급률은 19.0~30.7%이며, 대전시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세종시가 28.5%로 높은 수준을 보임(보건복지부, 2021).

〈표 5〉 전국 시·도별 어린이집 보조교사 현황(2021)

단위: 명, %

구분	담임교사 (A)	(영어반) 보조교사 (B)	누리과정 보조교사 (30시간 이상) (C)	누리과정 보조교사 (30시간 미만) (D)	공급률 (B+C+D/A)
서울	27,676	5,038	355	1,236	24.0
부산	9,000	1,526	98	318	21.6
대구	7,231	1,128	52	214	19.3
인천	9,624	1,867	82	410	24.5
광주	5,410	996	46	151	22.1
대전	4,880	1,284	54	161	30.7
울산	3,997	708	47	171	23.2
세종	2,109	473	23	105	28.5

구분	담임교사 (A)	(영어반) 보조교사 (B)	누리과정 보조교사 (30시간 이상) (C)	누리과정 보조교사 (30시간 미만) (D)	공급률 (B+C+D/A)
경기	49,089	8,696	639	2,219	23.5
강원	4,820	941	50	217	25.1
충북	5,680	743	58	289	19.2
충남	7,419	1,402	102	328	24.7
전북	5,713	935	60	203	21.0
전남	6,006	817	80	246	19.0
경북	8,310	1,516	92	237	22.2
경남	11,133	1,790	100	437	20.9
제주	3,005	598	36	134	25.6

주: 2021년 12월 31일 기준 현황임.

자료: 유해미·구자연·김문정(2022). 어린이집 연장·보조·대체교사 운영 실태와 개선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 96; 보건복지부 (2021). 보육통계. p. 174.

■ 어린이집 대체교사 공급 현황 및 특성

- ◆ 어린이집 수 대비 대체교사 지원율은 2015년 55.6%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21년 445.2%이고, 담임교사 수 대비 지원율은 2015년 11.8%에 불과하였으나, 2021년 86.5%로 크게 상승함(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5;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21; 보건복지부, 2015; 보건복지부, 2021).
- 2022년 기준 전체 어린이집 수 대비 지원받은 비율은 55.1%, 전체 담임교사 수 대비 대체교사 지원율은 20명 이하 기관에서 9.2%로 낮고, 241명 이상 기관에서 5% 미만으로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임. 비율은 10.2%임(사회보장정보원, 2022, 내부자료).
- ◆ 2021년 기준 전국 시·도별 담임교사 기준 대체교사 지원율은 어린이집 수 대비 213.7~1,150.1%로 약 5.4배에 달하는 격차를 보임(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21).

〈표 6〉 어린이집 규모별(현원 기준) 대체교사 현황(2022)

단위: 개원, 명, %

구분	어린이집 (A)	담임교사 (B)	대체교사 채용 방식			어린이집수 대비 지원율 (C/A)	담임교사수 대비 지원율 (C/B)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소계 (C)		
전체	31,189	168,821	1,659	15,526	17,185	55.1	10.2
20명 이하	6,077	54,848	629	4,401	5,030	31.3	9.2
21~39명	6,138	33,675	320	3,605	3,925	63.9	11.7
40~49명	2,350	16,539	158	1,748	1,906	81.1	11.5
50~80명	4,214	34,385	333	3,359	3,692	87.6	10.7
81~99명	1,212	12,298	117	1,092	1,209	99.8	9.8
100~160명	962	12,300	79	1,074	1,153	119.9	9.4
161~200명	132	2,255	14	137	151	114.4	6.7
201~240명	62	1,390	0	80	80	129.0	5.8
241~300명	40	1,089	9	29	38	95.0	3.5
300명 초과	2	42	0	1	1	50.0	2.4

주: 7월 한 달간 누적 고용된 대체교사 현황임.

자료: 유해미·구자연·김문정(2022). 어린이집 연장·보조·대체교사 운영 실태와 개선과제. p. 113; 사회보장정보원(2022). 내부자료 (2022년 7월말 기준)

〈표 7〉 전국 시·도별 어린이집 대체교사 현황(2021)

단위: 개원, 명, %

구분	어린이집 (A)	담임교사 (B)	지원받은 교사 (C)	어린이집수 대비 달성률 (C/A)	담임교사수 대비 달성률 (C/B)
서울	5,049	27,676	25,202	499.1	91.1
부산	1,668	9,000	10,301	617.6	114.5
대구	1,187	7,231	8,255	695.5	114.2
인천	1,803	9,624	6,633	367.9	68.9
광주	1,002	5,410	4,878	486.8	90.2
대전	1,101	4,880	4,010	364.2	82.2
울산	720	3,997	8,281	1,150.1	207.2
세종	343	2,109	2,841	828.3	134.7
경기	10,136	49,089	37,408	369.1	76.2
강원	954	4,820	2,446	256.4	50.7
충북	1,042	5,680	5,241	503.0	92.3
충남	1,625	7,419	3,473	213.7	46.8
전북	1,115	5,713	7,399	663.6	129.5
전남	1,051	6,006	7,595	722.6	126.5
경북	1,617	8,310	4,603	284.7	55.4

구분	어린이집 (A)	담임교사 (B)	지원받은 교사 (C)	어린이집수 대비 달성률 (C/A)	담임교사수 대비 달성률 (C/B)
경남	2,357	11,133	7,789	330.5	70.0
제주	476	3,005	1,672	351.3	55.6

주: 2021년 12월 31일 기준 현황임.

자료: 유해미·구자연·김문정(2022). 어린이집 연장·보조·대체교사 운영 실태와 개선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p. 111-112;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21). 2021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pp. 142-143.

나. 근로 의향과 선호도: 보육교사²⁾

■ 근로 의향 및 사유

- ◆ 현재의 보육교사 유형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연장반 교사 94.5%, 보조교사 96.1%, 대체교사 98.4%), 계속해서 이들 직책으로 근무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0%대로 높게 나타남(연장반 전담교사 81.9%, 보조교사 87.3%, 대체교사 84.2%).
 - '연장반 전담교사와 보조교사로 계속해서 근무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유로는 시간 활용이 용이하고, 담당학급에 대한 부담이 덜하며, 행정서류 등 보육 이외 업무에 대한 부담이 덜한 점 등이 지목됨.

〈표 8〉 현 직책으로 계속 근무하려는 이유: 연장보육 담당교사/보조교사

구분	연장반교사	보조교사
시간 활용이 용이해서	54.8	69.9
담당학급에 대한 책임 부담이 덜해서	16.7	10.0
행정서류 등 보육 이외 업무 부담이 덜해서	12.4	7.9
업무가 적성에 맞아서	10.5	4.7
다양한 어린이집을 경험하고 싶어서	3.4	2.8
앞으로 승급 또는 원장 자격 취득을 계획하여	1.1	0.5
기타	1.1	4.2
계(수)	100.0(345)	100.0(428)

단위: %(명)

자료: 유해미·구자연·김문정(2022). 어린이집 연장·보조·대체교사 운영 실태와 개선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p. 267-268.

2) 이하 내용은 전국 지역의 어린이집 연장보육 담당교사 432명, 보조교사 490명, 대체교사 304명(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이며,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22년에 수행한 「어린이집 연장·보조·대체교사 운영 실태와 개선과제」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임.

■ 보육교사 유형별 선호도

- ◆ 연장반교사와 보조교사는 4~6시간 근무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진 반면, 대체교사는 대체교사, 4시간 보조교사(오전출근), 기본반 담임교사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남.
- ◆ ‘대체교사와 보조교사를 겸임하는 비담임교사를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대체교사를 제외하면 13~17%선이고, 비담임 정교사에 대한 선호는 보조교사가 14.5%로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를 보임.

〈표 9〉 보육교사 유형별 선호도: 연장보육 담당교사/보조교사/대체교사

구분	연장반교사	보조교사	대체교사
4시간 보조교사(오전 출근)	44.2	85.9	11.8
6시간 보조교사(오전 출근)	32.4	70.0	7.2
4시간 보조교사(오후 출근)	44.2	36.1	0.3
4시간 연장반 전담교사(16:00~19:30분 연장반 담당)	53.9	10.7	3.0
6시간 연장반 전담교사(연장반 전후 근무시간 연장)	33.6	6.3	0.0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겸직(전일제: 1일 8시간)	17.6	13.1	5.3
오후 보조교사와 연장반 전담교사 겸직	13.7	6.3	0.0
연장반 전담교사와 야간연장반 교사 겸직	10.6	1.4	0.0
4시간 대체교사	15.5	31.8	3.9
8시간 대체교사	8.3	5.9	48.7
기본반 담임교사	17.6	18.2	18.1
비담임 정교사	8.3	14.5	1.6
(수)	(432)	(490)	(304)

자료: 유해미·구자연·김문정(2022). 어린이집 연장·보조·대체교사 운영 실태와 개선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 268.

다. 교사 채용의 어려움과 필요 인력: 어린이집 원장³⁾

- 어린이집 원장은 야간시간대에 근무하는 4시간 연장반 전담교사, 6시간 전담교사, 8시간 야간연장교사 순으로 채용이 어렵다고 인식하였으며(3.97점, 3.88점, 3.76점, 5점 만점), 4시간 보조교사와 4~6시간 보육도우미에 대해서는 3.27~3.45점으로 채용의 어려움이 덜하다고 인식함.
- ◆ 읍면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과 80명 이상 규모 어린이집에서 평일 기준으로 추가인력이 필요한 시간대가 2~3회 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이들 기관의 보육 공백이 우려됨.

3) 이하 내용은 전국 지역의 어린이집 원장 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이며,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22년에 수행한 「어린이집 연장·보조·대체교사 운영 실태와 개선과제」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임.

[그림 1] 보육교사 유형별 채용의 어려움: 어린이집 원장

단위: 점



주: 5점 평균은 '매우 쉬움' 1점 ~ '매우 어려움'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유해미·구자연·김문정(2022). 어린이집 연장·보조·대체교사 운영 실태와 개선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 278.

<표 10> 일과 중 추가인력이 필요한 시간대 횟수: 어린이집 원장

단위: %, (명)

구분	무응답 (없음)	1회	2회	3회	(수)
전체	4.9	42.3	28.5	24.4	(513)
어린이집 소재지					
대도시	5.4	41.4	29.0	24.2	(186)
중소도시	4.5	45.9	25.5	24.1	(220)
읍면지역	4.7	36.4	33.6	25.2	(107)
어린이집 규모					
20명 이하	5.4	44.6	29.3	20.7	(222)
21~39명	5.3	44.7	31.6	18.4	(76)
40~79명	3.7	43.0	28.1	25.2	(135)
80명 이상	5.0	32.5	23.8	38.8	(80)

주: 평일 기준 보육 일과 중에서 추가인력이 필요한 시간대를 3개 까지 작성토록 함.

자료: 유해미·구자연·김문정(2022). 어린이집 연장·보조·대체교사 운영 실태와 개선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 271.

- ◆ 어린이집에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인력은 1, 2, 3순위 응답률을 합하여 6시간 영아반 보조교사, 4시간 영아반 보조교사, 전일제 비담임교사(보조교사+대체교사 겸임), 4시간 연장보육 전담교사 순으로 높은 수요를 보임.
- 가정어린이집에서는 영아반 보조교사, 직장어린이집에서는 영아반 보조교사 이외

에도 연장반 전담교사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고, 읍면지역에서는 비담임교사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임(유해미·구자연·김문정, 2022: 269-270).

〈표 11〉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인력(1순위/1+2순위/1+2+3순위): 어린이집 원장

단위: %(명)

구분	1순위	1+2순위	1+2+3순위
4시간 영아반(0~2세) 보조교사	25.0	34.7	40.0
6시간 영아반(0~2세) 보조교사	20.7	35.5	43.3
4시간 누리반(3~5세) 보조교사	2.5	6.8	8.8
6시간 누리반(3~5세) 보조교사	2.3	8.6	13.1
4시간 연장보육 전담교사	11.5	24.2	32.2
6시간 연장보육 전담교사	7.2	16.4	24.2
8시간 야간연장교사(월급여형)	2.1	4.3	7.0
비담임교사(전일제)	9.4	17.7	25.7
비담임교사(보조교사+대체교사 겸직, 전일제)	13.1	28.1	37.8
4시간 보육도우미	1.9	5.7	14.8
6시간 보육도우미	3.7	8.6	20.1
모름/무응답	0.6	0.6	0.6
계(수)	100.0(513)	(513)	(513)

자료: 유해미·구자연·김문정(2022). 어린이집 연장·보조·대체교사 운영 실태와 개선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 270.

3 연장·보조·대체교사의 근로만족도와 개선요구⁴⁾

연장반 담당교사, 보조교사, 대체교사는 급여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특히 대체교사가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임.

가. 이직 사유

- 연장보육 전담교사와 보조교사가 이직한 주된 사유는 1, 2순위를 합한 응답률을 기준으로 ‘급여수준이 낮아서’이며(39.0%, 40.5%)이고, 1순위 응답률을 기준으로 연장

4) 이하 설문조사 결과는 전국 지역의 어린이집 연장보육 담당교사 432명, 보조교사 490명, 대체교사 304명(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을 대상으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22년에 수행한 「어린이집 연장·보조·대체교사 운영 실태와 개선과제」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임.

보육 전담교사의 경우는 ‘늦은 시간에 일하는 것이 힘들어서’ 29.3%, 보조교사의 경우는 낮은 급여수준 다음으로 ‘업무가 명확하지 않아서’가 29.2%로 조사됨.

〈표 12〉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이직 사유(1순위/1+2순위)

구분	단위: %(명)	
	1순위	1+2순위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것이 힘들어서	29.3	29.3
급여수준이 낮아서	19.5	39.0
연장보육 이외 업무를 담당해야 해서	7.3	26.8
어린이집 원장 또는 담임교사 등 동료 교사와의 관계가 불편해서	12.2	17.1
연장반 전담교사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 때문에	-	14.6
담임교사로 일하려고	22.0	31.7
계약기간이 끝나서 자동적으로	-	9.8
원아수가 줄어서 안정된 고용이 보장되지 않을 거 같아서	4.9	14.6
개인 사정으로(이사, 건강 문제 등)	4.9	12.2
기타	-	4.9
계(수)	100.0(41)	(41)

자료: 유해미·구자연·김문정(2022). 어린이집 연장·보조·대체교사 운영 실태와 개선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 150.

〈표 13〉 어린이집 보조교사의 이직 사유(1순위/1+2순위)

구분	단위: %(명)	
	1순위	1+2순위
다양한 연령의 학급을 담당하는 것이 힘들어서	6.3	7.6
급여수준이 낮아서	29.1	40.5
보조교사 업무가 명확하지 않아서(급작스런 업무 지시 등)	21.5	39.2
어린이집 원장 또는 담임교사 등 동료 교사와의 관계가 불편해서	3.8	6.3
보조교사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 때문에	2.5	13.9
담임교사로 일하려고	6.3	22.8
계약기간이 끝나서 자동적으로	7.6	13.9
원아수가 줄어서 안정된 고용이 보장되지 않을 거 같아서	2.5	7.6
개인적 사정으로(이사, 건강문제 등)	17.7	34.2
기타	2.5	13.9
계(수)	100.0(79)	(79)

자료: 유해미·구자연·김문정(2022). 어린이집 연장·보조·대체교사 운영 실태와 개선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 192.

나. 근무만족도

- 연장보육 담당교사, 보조교사, 대체교사 급여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며, 반면에 출근시각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 ◆ 근무만족도가 가장 낮은 대체교사의 경우 급여수준은 평균 2.47점(5점 만점)에 그치고, 고용안정과 소득안정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부당한 지시 등에 따른 업무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수준을 보임.

〈표 14〉 어린이집 연장보육 담당교사/보조교사/대체교사의 근무만족도

단위: 점, (명)

구분	연장반교사		보조교사		대체교사	
	5점 평균	(수)	5점 평균	(수)	5점 평균	(수)
1. 주당(1주일 기준) 근로시간	3.85	(432)	4.07	(490)	3.34	(304)
2. 출근시각	3.96	(432)	4.12	(490)	3.74	(304)
3. 퇴근시각	3.72	(432)	4.04	(490)	2.99	(304)
4. 급여수준(수당 포함)	3.19	(432)	3.11	(490)	2.47	(304)
5. 업무 난이도/업무강도 (수업준비 등)	3.58	(432)	3.47	(490)	3.08	(304)
6. 담당학급에 대한 책임 부담	3.62	(432)	3.68	(490)	-	-
7. 업무내용(부당한 업무지시 포함)	3.64	(432)	3.63	(490)	2.70	(304)
8. 기본반 담임교사와의 업무분장	3.65	(432)	3.72	(490)	-	-
9. 고용안정	3.56	(432)	3.69	(490)	2.71	(304)
10. 소득안정	3.36	(432)	3.23	(490)	2.64	(304)
11. 재교육 기회	3.55	(432)	3.61	(490)	3.34	(304)
12. 일·생활 균형(휴가 사용 등)	3.61	(432)	3.62	(490)	3.58	(304)
13. 일에 대한 보람	3.78	(432)	3.80	(490)	3.49	(304)
14. 교사 역량 및 전문성 향상	3.56	(432)	3.58	(490)	3.53	(304)
15. 재직 중 어린이집의 휴게시간 보장	-	-	-	-	2.79	(304)
16.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원 (소통과 복지 등)	-	-	-	-	3.30	(304)
17. 업무만족도 전반	3.72	(432)	3.77	(490)	3.58	(304)

주: 5점 평균은 '매우 불만족' 1점 ~ '매우 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유해미·구자연·김문정(2022). 어린이집 연장·보조·대체교사 운영 실태와 개선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 266 재구성.

다. 애로사항 및 개선요구

■ 연장보육의 개선요구

- ◆ 어린이집 원장은 연장보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1순위와

2순위를 합하여 ‘연장반별 인건비 지원’ 33.7%,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시간 확대’ (현행 4시간 → 6시간) 32.8%, ‘연장보육 전담교사 채용지원’ 29.7% 순으로 응답함 (유해미·구자연·김문정, 2022: 165).

- ◆ 연장보육 담당교사는 연장보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필요사항으로 ‘연장반 편성기준 개선’이 평균 3.9점(5점 만점), 그 다음으로 ‘연장보육 수요에 부합하는 연장반교사의 채용’ 3.83점, 연장반 보육 수요에 부합하는 연장반의 구성 3.77점, 16~17시 ‘업무분장의 명료화’ 3.75점, ‘기본반 아동의 하원시각 준수’ 3.72점 순으로 응답함.

〈표 15〉 어린이집 연장보육 담당교사의 연장보육 질 제고를 위한 필요도

단위: %(명), 점

구분	어린이집 연장보육 담당교사의 연장보육 질 제고를 위한 필요도					계(수)	5점 평균
	①	②	③	④	⑤		
	낮음	←	→	높음			
기본반 아동의 하원시각 준수(16시)	2.3	9.7	23.4	42.8	21.8	100.0 (432)	3.72
16~17시 업무분장 명료화	1.2	6.7	26.2	47.7	18.3	100.0 (432)	3.75
연장반 담당교사의 재교육 강화	1.9	10.2	42.6	38.4	6.9	100.0 (432)	3.38
연장보육 수업준비 시간 보장	1.6	5.8	39.8	39.4	13.4	100.0 (432)	3.57
연장보육 수요에 부합하는 연장반의 구성	1.2	3.7	30.6	46.3	18.3	100.0 (432)	3.77
연장보육 수요에 부합하는 연장반교사 채용	1.4	4.2	28.5	42.1	23.8	100.0 (432)	3.83
연장반 편성기준 개선	0.7	4.2	25.9	42.8	26.4	100.0 (432)	3.90
연장보육반 보조인력 배치	2.1	8.6	32.6	42.6	14.1	100.0 (432)	3.58
안정적 보육실 확보	1.6	7.2	29.9	44.9	16.4	100.0 (432)	3.67
기본반 담임교사와의 원활한 수업 연계	1.4	6.5	36.8	43.5	11.8	100.0 (432)	3.58
부모와의 원활한 상담 및 소통	1.2	6.0	36.6	45.4	10.9	100.0 (432)	3.59
교사 회의 참여시간 보장	2.1	10.2	45.8	34.0	7.9	100.0 (432)	3.35

주: 5점 평균은 ‘전혀 필요하지 않음’ 1점~‘매우 필요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유해미·구자연·김문정(2022). 어린이집 연장·보조·대체교사 운영 실태와 개선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 152.

■ 보조교사 운영 및 협업의 어려움

- ◆ 어린이집 원장은 보조교사 운영의 어려움으로는 보조교사 채용의 어려움, 보조교사 전문성 및 자질, 보조교사의 짧은 근무시간 등을 지목함(유해미·구자연·김문정, 2022: 217).

- ◆ 보조교사는 담임교사와 협업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16.9%(N=83)이고, 해당 사유로는 1순위와 2순위를 합하여 ‘업무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전달되지 않아서’ 50.6%, ‘여러 학급을 동시에 보조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44.6%, ‘담임교사와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되지 않아서’ 39.8%, ‘담임교사의 보조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태도와 언행 때문에’ 26.5% 순임(유해미·구자연·김문정, 2022: 200).

■ 대체교사의 업무 수행 시 어려움

- ◆ 대체교사는 업무 수행 시 어려움에 대해 5점 척도 기준으로 낮은 급여수준 3.61점, 고용 불안 3.50점, 업무 및 수업 연계 미흡 3.48점, 부당한 업무 지시 3.37점 순으로 응답함(유해미·구자연·김문정, 2022: 242).

4 정책 제언

연장, 보조, 대체교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지원방식 개편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원사업별로 세부과제를 제안함.

가. 지원방식 및 지원기준 개편 방향

■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우선지원 기준

- ◆ 담임교사가 연장보육을 겸임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직장어린이집, 161명 이상 규모의 어린이집, 읍면지역 소재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준을 모색함.

■ 지원시간의 확대: 4시간 → 6시간

- ◆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시간이 약 2시간에 달하므로 연장보육 전담교사와 보조교사의 지원시간을 현행 4시간에서 2시간 늘려서 6시간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함.
- ◆ 보조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2시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은 가장 저조한 만족도를 보이는 급여수준의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전일제(8시간 근로) 비담임교사 지위 신설 및 지원기준 마련

- ◆ 대체교사는 특히 긴급한 상황에 즉각적인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평상시는 보조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다가 대체교사 수요가 발생한 경우 담임교사의 역할로 전환하는 원내 인력이 필요함.
 - 우선 지원 기준으로는 영아반수가 많아서 낮은 대체교사와의 상호작용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담임교사 수가 많아서 대체교사 공급 수준이 저조한 대규모 어린이집, 읍면지역에 소재하여 대체교사의 채용이 어려운 어린이집을 들 수 있음.
- ◆ 비담임교사는 다양한 역할 수행으로 인한 고충이 우려되므로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특히 업무 전환 시의 운영관리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해야 할 것임.
- ◆ 비담임교사의 최소자격은 긴급 시에 담임교사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육교사 총 경력이 아니라 담임교사 총 경력을 반영하여 규정해야 할 것임.

■ 보육도우미(가칭) 지위 신설 및 지원기준 마련

- ◆ 지원목적에 부합하는 보육 업무에 주력할 수 있도록 조리 지원, 보육실 이외 청소 등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별도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할만함.
- ◆ 보육도우미(가칭)는 조리원이 지원되지 않은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도입 초기에는 4시간 지원을 검토할만함.
 - 현재 조리원은 49인 이상에 지원되므로 그 이하 규모에서는 급식 조리 등을 담당하는 별도 인력이 부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 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함.

나. 세부과제

■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사업의 개선과제

- ◆ 연장반 수요에 맞게 연장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연장반 전담교사의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함.
 - 현재 연장반 전담교사는 현원이 정원의 50%를 충족하고 연장반 영유아의 총 이용 시간 기준(월 기준 0세반 20시간, 영아반 30시간, 유아반 80시간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되나(보건복지부, 2023: 470), 연장보육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원 대비 현원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연장반교사가 연장보육의 시작 시각에 맞추어 연장보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는 연장보육료 지원기준인 현행 17시를 16시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 연장반교사가 단독으로 근무하는 시간에는 안전관리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장반이 1개반 운영되는 경우, 안전관리 기준을 별도로 마련함.
 - 연장반교사가 '혼자 근무하는 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1.2%이고, 특히 직 장어린이집과 읍면지역에서 80.8%와 71.1%로 높게 나타나며, 해당 시간은 평균 1시간 43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 현행 '통합반 운영 관련 안내'에 16~17시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연장반 전담교사의 업무를 보다 명료화함.
- ◆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재교육은 현행 보수교육의 연장선에서 모색하되, 특히 휴식과 놀이 위주로 아동과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기본반 담임교사와의 원활 한 협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과목을 별도로 편성함.

■ 보조교사 지원사업의 개선과제

- ◆ 현행 지침에 의하면, 보조교사의 업무내용은 담임교사와는 달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보건복지부, 2023: 468),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무를 이하<표 17>에서와 같이 보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표 16> 어린이집 보조교사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안)

현행	개정(안)
교사겸직 원장반의 담임교사 업무 수행 등 보육업무 전담	(좌동)
담임교사의 보육·놀이·급식 등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업무 보조가 아닌 어린이집 원장의 행정적인 업무 및 운전·취사 등 기타 업무를 보조하거나 전담	(좌동)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인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 원장이 보조교사로 근무	(좌동)
	(추가) 보육실 및 담당 학급의 보육업무 이외 화장실 및 공유 공간 등의 청소

자료: 보건복지부(2023). 2023년 보육사업안내. p. 469. 재구성

- ◆ 현행 4시간 지원되는 보조교사는 그 지원방식을 다양화하여 6시간 지원이 가능한 요건을 신설하는 방안을 모색함.
 - 영아보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영아반을 운영하는 모든 기관에 4시간 보조교사를 지원하거나 영아반 수를 반영하여 보조교사를 현재의 4시간에서 2시간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만함.
- ◆ 보조교사의 재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나 보조교사는 대체교사가 지원되지 않는 등으로 인해 외부교육을 이수하기 힘들 것으로 우려되므로 관련 규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대체교사 지원사업의 개선과제

- ◆ 대체교사 경력을 반영한 별도의 급여체계를 개발하여 적용하거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수당의 신설 또는 기존 수당의 상향 조정 등을 검토할만함.
 - 어린이집 대체교사는 담임교사의 경력이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나는 등 전문성을 견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만족도에서 '소득안정'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2.64점(5점 척도)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므로 이들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급여체계 개선이 시급히 요구됨.
 - 후자의 경우는 파견수당 등을 별도의 수당을 신설하거나 현행 농어촌 지역의 교통수당을 상향조정하는 방안, 그리고 대체교사 경력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 장기근속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 대체교사의 업무는 어린이집 원장이 개별적으로 부여하지 않고, 일원화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있도록 명문화가 요구됨.
 - 현행 「보육사업안내」에 의하면, 대체교사는 연가 사용이나 보수교육에 참여한 보육교사(교사겸직원장 포함) 등의 업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나(보건복지부, 2023: 461), 업무에서 제외되는 사항이나 부적합한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별 어린이집에서 탄력적으로 업무를 부여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됨.
 - 업무 제외 사항으로는 '조리 업무', 담임교사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어린이집 청소' 등을 고려하고, 대체교사가 홀로 보육하는 상황 등을 금지사항으로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할만함.

- ◆ 현재 대체교사는 8시간을 기준으로 지원되나, 보조교사와 조리원 등 단시간 근로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도 대체교사 지원이 요구되므로 이들을 위해 4시간 대체교사 지원을 새롭게 모색함.
- ◆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를 겸임하는 비담임교사의 지위를 신설하고, 우선지원기준으로 담임교사 수가 많거나, 영어반 수가 많은 경우, 교사 채용에 어려움을 안고 있는 읍면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을 고려함.
- ◆ 대체교사 운영방식을 권역별 체계로 전환하여 동일한 지역 내에서 동일한 대체교사가 보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한 권역별 업무 연계 담당자의 지정기준 마련과 해당 업무에 따른 운영비 지원이 요구됨.

5 기대효과

-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원활한 수급과 처우개선을 통해 연장보육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담임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며, 일자리 질을 개선함.
 - ◆ 연장보육의 지리적 접근성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부모의 일·생활 균형이 가능하도록 함.
 - ◆ 담임교사의 법정 근로시간을 보장하여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 보조교사에게 지원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원활한 수급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개선과 담임교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함.
- 대체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원활한 인력 양성이 이루어져서 담임교사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게 함.
- 연장, 보조, 대체교사의 일자리 질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원방식을 다양화하여 공급 격차를 완화함.

I 참고 문헌 I

- 김아름·김은설·조혜주·양성은(2020). 근로시간 보장을 위한 어린이집 인력배치 합리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사회보장정보원(2022). 내부자료.
- 보건복지부(2015).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21).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22). 제4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2023~2027).
- 보건복지부(2023).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 유해미·구자연·김문정,(2022). 어린이집 연장·보조·대체교사 운영 실태와 개선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5). 2015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21). 2021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 이슈페이퍼 2023-07 |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지원 내실화를 위한 개선과제

구자연

- 배경 및 문제 제기
 -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지원 관련 개선요구
 - 정책 제언: 내실 있는 급·간식 환경 구축을 위한 핵심 추진 과제
- 참고문헌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지원 내실화를 위한 개선과제*

구자연 부연구위원

◆◆ 요약 ◆◆

- 영유아기 식생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은 공공급식 정책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관심이 미흡한 실정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장의 개선요구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영유아 중심 급·간식 지원 내실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 시·도와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조리인력 운영 체계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조리인력 운영을 체계화하는 방안으로 시·군·구, 인력개발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이 MOU를 체결하여 인력관리 플랫폼을 운영하는 방식을 제안함.
- 조리인력 운영체계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특성을 고려하여 조리인력 배치기준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 공백 발생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차원에서의 기본적인 방향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 기관은 기본적인 지침을 바탕으로 기관의 특성에 맞는 대처 방안을 수립해야 함.
-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차별 없는 바른 먹거리 지원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보육료에서 급·간식비를 분리해야 하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식단가 지원이 필요함.
-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환경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급·간식 환경 개선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시청/교육청 지도점검과 합동점검, 평가제, 부모모니터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도 등의 일관성과 평가와 지도 기준의 일원화가 필요함.

* 본고의 내용은 육아정책연구소의 2022년 수시과제인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지원 개선 방안(구자연·도남희·김영민)」 연구를 기반으로 작성됨.

1 배경 및 문제 제기

- 영유아기 식생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은 공공급식 정책 대상으로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미흡한 실정임.
- 양질의 식사와 간식은 영유아의 건강과 발달에 중요한 요소로 연령별 영양과 식단을 고려한 급식과 간식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차별 없이 이루어져야 하나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소관 부처, 급·간식 관련 적용받는 주요 법령 등이 다름.
 - ◆ 소관 부처가 다르기에 급·간식비 재원과 지방자치단체별, 시·도교육청별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을 지원하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본고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장의 개선요구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급·간식 지원에 대한 개선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 ◆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의 내실화를 공고히 하여 급·간식을 제공받는 영유아가 차별 없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제대로 섭취하면서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함.

2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지원 관련 개선요구

-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지원 관련 개선과제를 알아보기 위해 심층(서면)면담과 설문조사를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급·간식을 운영하는 원장과 영양(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 ◆ 설문조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 369명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영양(교)사 206명, 총 575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음. 심층(서면)면담 결과에서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이나 급·간식을 운영하는 역할에 따라 개선요구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여 개선요구 우선순위 분석을 집단별로 시행하였음.

〈표 1〉 설문조사 조사 항목

구분	내용
운영 지원	법령/제도 1.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의 현장 적용 적절성 3. 급식시설과 설비 기준의 적절성 5. 급·간식 운영 경비 집행 가이드라인 제공 6. 식품비(급·간식 재료비) 사용 비율 정보 공개 13. 급식 관련 정보 공개(급식사진, 식재료 원산지, 영양량 등을 표시한 식단표 공개 등) 21. 필수 조리 배식기구 지원 25. 우수 급·간식 운영 사례 공유
	비용 10. 물가상승률 대비 급·간식 재료비 반영 11. 영유아 현원에 따른 단가 조정 기준 제공
인력	16. 조리인력 운용 안정성 17. 조리원(조리사)의 갑작스러운 부재나 공동급식의 경우 방학 중 급식 등 급식 공백 발생에 대한 대처 가이드라인 제공 18. 영양사/영양교사 배치 안정화 20. 영유아 급식을 위한 조리인력 대상 조리법 관련 교육 지원
	2.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의 적절성 7. 급식재료 안심(공동) 구매 참여 12. 급·간식 재료구매량 기준 제공 22. 식재료 구매 및 관리 등을 위한 급식 전문기관의 지원 24.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운영
위생·안전관리	4. 보존식 보관의무 준수 8. 시청/교육청 지도점검, 합동점검, 평가제, 부모모니터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도 등의 일관성
영양관리 및 식생활 교육	9. 영양사/영양교사 작성 식단 준수 14. 영유아에게 급식으로 자연식품/제철식품 제공 15. 영유아에게 간식으로 자연식품/제철식품 제공 19. 기관의 급식 관계자(교직원, 조리인력 등) 대상 실무중심 위생, 안전관리, 영양관리 교육 23. 가정 연계 교육을 통해 일상 속 건강한 식생활 실천 문화 조성

- ◆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은 조대연(2009: 172-173)이 제안한 요구분석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을 따름: t-검정을 활용하여 현재수준과 중요도의 평균 차이를 통계적으로 확인 → Borich 요구도 공식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 → The Locus For Focus (LFF) 모델을 통한 항목들의 위치 결정 → LFF 모델에서 HH분면에 포함된 항목과 개수 파악 → Borich 요구도 공식의 상위 우선순위와 LFF 모델의 HH분면 항목들 간 중복성을 확인하여 최우선순위 결정

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급·간식 지원 관련 개선요구 우선순위 분석

-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급·간식 지원 관련 항목별 중요도와 현재수준을 살펴본 결과, 7점 척도 기준 중요도는 평균 5.30~6.57점의 분포를 보였으며, 현재수준은 평균 3.57~6.70점의 분포가 나타났음.
-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급·간식 지원 관련 항목별 Borich 요구도 값을 산출하여 우선순위를 살펴본 결과, 개선요구 1순위는 조리원(조리사)의 갑작스러운 부재나 공동급식의 경우 방학 중 급식 등 급식 공백 발생에 대한 대처 가이드라인 제공(17번)이었음. 2순위는 조리인력 운용 안정성(16번)이었으며, 3순위는 필수 조리 배식기구 지원(21번)이었음.
-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급·간식 지원 관련 개선요구를 LFF 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영역인 HH분면에 속한 항목은 총 3개로 나타났음.
 - ◆ 3개 항목은 조리원(조리사)의 갑작스러운 부재나 공동급식의 경우 방학 중 급식 등 급식 공백 발생에 대한 대처 가이드라인 제공(17번), 조리인력 운용 안정성(16번), 영유아 급식을 위한 조리인력 대상 조리법 관련 교육 지원(20번)이었음.
- Borich 요구도 우선순위와 LFF 모델에서 도출한 우선순위의 중복성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최우선순위 개선요구와 차순위 개선요구를 파악하였음.
 - ◆ 최우선순위 개선요구는 ‘조리원(조리사)의 갑작스러운 부재나 공동급식의 경우 방학 중 급식 등 급식 공백 발생에 대한 대처 가이드라인 제공’과 ‘조리인력 운영 안정성’이었음.
 - ◆ 차순위 개선요구에는 ‘필수 조리 배식기구 지원’과 ‘영유아 급식을 위한 조리인력 대상 조리법 관련 교육 지원’이 포함되었음.

〈표 2〉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대상 요구분석 우선순위 결정

우선순위 도출방법	급식 공백 발생에 대한 대처 가이드라인 제공	조리인력 운용 안정성	필수 조리 배식기구 지원	영유아 급식을 위한 조리인력 대상 조리법 관련 교육 지원
Borich 요구도 우선순위	1	2	3	9
LFF 모델	HH	HH	LH	HH

나. 민간어린이집 원장의 급·간식 지원 관련 개선요구 우선순위 분석

- 민간어린이집 원장의 급·간식 지원 관련 항목별 중요도와 현재수준을 살펴본 결과, 7점 척도 기준 중요도는 평균 4.54~6.32점의 분포를 보였으며, 현재수준은 평균 3.49~6.34점의 분포가 나타났음.
- 민간어린이집 원장의 급·간식 지원 관련 항목별 Borich 요구도 값을 산출하여 우선순위를 살펴본 결과, 개선요구 1순위는 조리원(조리사)의 갑작스러운 부재나 공동급식의 경우 방학 중 급식 등 급식 공백 발생에 대한 대처 가이드라인 제공(17번)이었음. 2순위는 필수 조리 배식기구 지원(21번)이었으며, 3순위는 물가상승률 대비 급·간식 재료비 반영(10번)이었음.
- 민간어린이집 원장의 급·간식 지원 관련 개선요구를 LFF 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영역인 HH분면에 속한 항목은 총 6개로 나타났음.
 - ◆ 6개 항목은 조리원(조리사)의 갑작스러운 부재나 공동급식의 경우 방학 중 급식 등 급식 공백 발생에 대한 대처 가이드라인 제공(17번), 필수 조리 배식기구 지원(21번), 물가상승률 대비 급·간식 재료비 반영(10번), 조리인력 운용 안정성(16번), 식재료 구매 및 관리 등을 위한 급식 전문기관의 지원(22번)이었음.
- Borich 요구도 우선순위와 LFF 모델에서 도출한 우선순위의 중복성을 통해 민간어린이집 원장의 최우선순위 개선요구와 차순위 개선요구를 파악하였음.
 - ◆ 최우선순위 개선요구는 ‘조리원(조리사)의 갑작스러운 부재나 공동급식의 경우 방학 중 급식 등 급식 공백 발생에 대한 대처 가이드라인 제공’, ‘필수 조리 배식기구 지원’, ‘물가상승률 대비 급·간식 재료비 반영’, ‘조리인력 운용 안정성’이었음.
 - ◆ 차순위 개선요구에는 ‘영양사/영양교사 배치 안정화’, ‘식재료 구매 및 관리 등을 위한 급식 전문기관의 지원’, ‘영유아 현원에 따른 단가 조정 기준 제공’, ‘가정 연계 교육을 통해 일상 속 건강식 생활 실천 문화 조성’이 포함되었음.

〈표 3〉 민간어린이집 원장 대상 요구분석 우선순위 결정

우선순위 도출방법	17	21	10	16	18	22	11	23
Borich 요구도 우선순위	1	2	3	4	5	6	7	9
LFF 모델	HH	HH	HH	HH	LH	LH	HH	HH

주: (17) 조리원(조리사)의 갑작스러운 부재나 공동급식의 경우 방학 중 급식 등 급식 공백 발생에 대한 대처 가이드라인 제공, (21) 필수 조리 배식기구 지원, (10) 물가상승률 대비 급·간식 재료비 반영, (16) 조리인력 운용 안정성, (18) 영양사/영양교사 배치 안정화, (22) 식재료 구매 및 관리 등을 위한 급식 전문기관의 지원, (11) 영유아 현원에 따른 단가 조정 기준 제공, (23) 가정 연계 교육을 통해 일상 속 건강식 생활 실천 문화 조성

다. 국·공립유치원 원장의 급·간식 지원 관련 개선요구 우선순위 분석

- 국·공립유치원 원장의 급·간식 지원 관련 항목별 중요도와 현재수준을 살펴본 결과, 7점 척도 기준 중요도는 평균 5.95~6.76점의 분포를 보였으며, 현재수준은 평균 4.35~6.76점의 분포가 나타났음.
- 국·공립유치원 원장의 급·간식 지원 관련 항목별 Borich 요구도 값을 산출하여 우선순위를 살펴본 결과, 개선요구 1순위는 조리원(조리사)의 갑작스러운 부재나 공동급식의 경우 방학 중 급식 등 급식 공백 발생에 대한 대처 가이드라인 제공(17번)이었음. 2순위는 영양사/영양교사 배치 안정화(18번)이었으며, 3순위는 조리인력 운용 안정성(16번)이었음.
- 국·공립유치원 원장의 급·간식 지원 관련 개선요구를 LFF 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영역인 HH분면에 속한 항목은 총 3개로 나타났음.
 - ◆ 3개 항목은 조리인력 운용 안정성(16번), 영유아에게 간식으로 자연식품/제철식품 제공(15번), 물가상승률 대비 급·간식 재료비 반영(10번)이었음.
- Borich 요구도 우선순위와 LFF 모델에서 도출한 우선순위의 중복성을 통해 국·공립유치원 원장의 최우선순위 개선요구와 차순위 개선요구를 파악하였음.
 - 최우선순위 개선요구는 ‘조리인력 운용 안정성’이었음.
 - 차순위 개선요구에는 ‘조리원(조리사)의 갑작스러운 부재나 공동급식의 경우 방학 중 급식 등 급식 공백 발생에 대한 대처 가이드라인 제공’, ‘영양사/영양교사 배치 안정화’, ‘영유아에게 간식으로 자연식품/제철식품 제공’, ‘물가상승률 대비 급·간식 재료비 반영’이 포함되었음.

〈표 4〉 국·공립유치원 원장 대상 요구분석 우선순위 결정

우선순위 도출방법	17	18	16	15	10
Borich 요구도 우선순위	1	2	3	7	9
LFF 모델	LH	LH	HH	HH	HH

주: (17) 조리원(조리사)의 갑작스러운 부재나 공동급식의 경우 방학 중 급식 등 급식 공백 발생에 대한 대처 가이드라인 제공, (18) 영양사/영양교사 배치 안정화, (16) 조리인력 운용 안정성, (15) 영유아에게 간식으로 자연식품/제철식품 제공, (10) 물가상승률 대비 급·간식 재료비 반영

라. 사립유치원 원장의 급·간식 지원 관련 개선요구 우선순위 분석

- 사립유치원 원장의 급·간식 지원 관련 항목별 중요도와 현재수준을 살펴본 결과, 7점 척도 기준 중요도는 평균 4.58~6.42점의 분포를 보였으며, 현재수준은 평균 3.97~6.53점의 분포가 나타났음.
- 사립유치원 원장의 급·간식 지원 관련 항목별 Borich 요구도 값을 산출하여 우선순위를 살펴본 결과, 개선요구 1순위는 조리원(조리사)의 갑작스러운 부재나 공동급식의 경우 방학 중 급식 등 급식 공백 발생에 대한 대처 가이드라인 제공(17번)이었음. 2순위는 물가상승률 대비 급·간식 재료비 반영(10번)이었으며, 3순위는 필수 조리 배식기구 지원(21번)이었음.
- 사립유치원 원장의 급·간식 지원 관련 개선요구를 LFF 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영역인 HH분면에 속한 항목은 총 5개로 나타났음.
 - ◆ 5개 항목은 조리원(조리사)의 갑작스러운 부재나 공동급식의 경우 방학 중 급식 등 급식 공백 발생에 대한 대처 가이드라인 제공(17번), 물가상승률 대비 급·간식 재료비 반영(10번), 필수 조리 배식기구 지원(21번), 조리인력 운용 안정성(16번), 영유아 현원에 따른 단가 조정 기준 제공(11번)이었음.
- Borich 요구도 우선순위와 LFF 모델에서 도출한 우선순위의 중복성을 통해 사립유치원 원장의 최우선순위 개선요구와 차순위 개선요구를 파악하였음.
 - ◆ 사립유치원 원장 결과에서는 Borich 요구도 우선순위와 LFF 모델에서 도출한 우선순위 5개가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차순위 없이 최우선순위 개선요구만 선정되었음.

- ◆ 최우선순위 개선요구는 ‘조리원(조리사)의 갑작스러운 부재나 공동급식의 경우 방학 중 급식 등 급식 공백 발생에 대한 대처 가이드라인 제공’, ‘물가상승률 대비 급·간식 재료비 반영’, ‘필수 조리 배식기구 지원’, ‘조리인력 운영 안정성’, ‘영유아 현원에 따른 단가 조정 기준 제공’이었음.

〈표 5〉 사립유치원 원장 대상 요구분석 우선순위 결정

우선순위 도출방법	17	10	21	16	11
Borich 요구도 우선순위	1	2	3	4	5
LFF 모델	HH	HH	HH	HH	HH

주: (17) 조리원(조리사)의 갑작스러운 부재나 공동급식의 경우 방학 중 급식 등 급식 공백 발생에 대한 대처 가이드라인 제공, (10) 물가상승률 대비 급·간식 재료비 반영, (21) 필수 조리 배식기구 지원, (16) 조리인력 운영 안정성, (11) 영유아 현원에 따른 단가 조정 기준 제공

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집 영양사의 급·간식 지원 관련 개선요구 우선순위 분석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집 영양사의 급·간식 지원 관련 항목별 중요도와 현재수준을 살펴본 결과, 7점 척도 기준 중요도는 평균 4.96~6.31점의 분포를 보였으며, 현재수준은 평균 3.76~5.71점의 분포가 나타났음.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집 영양사의 급·간식 지원 관련 항목별 Borich 요구도 값을 산출하여 우선순위를 살펴본 결과, 개선요구 1순위는 영양사/영양교사 배치 안정화(18번)이었음. 2순위는 조리원(조리사)의 갑작스러운 부재나 공동급식의 경우 방학 중 급식 등 급식 공백 발생에 대한 대처 가이드라인 제공(17번)이었으며, 3순위는 시청/교육청 지도점검, 합동점검, 평가제, 부모모니터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도 등의 일관성(8번)이었음.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집 영양사의 급·간식 지원 관련 개선요구를 LFF 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영역인 HH분면에 속한 항목은 총 5개로 나타났음.
 - ◆ 5개 항목은 영양사/영양교사 배치 안정화(18번), 시청/교육청 지도점검, 합동점검, 평가제, 부모모니터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도 등의 일관성(8번), 조리인력 운영 안정성(16번), 물가상승률 대비 급·간식 재료비 반영(10번),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의 현장 적용 적절성(1번)이었음.

- Borich 요구도 우선순위와 LFF 모델에서 도출한 우선순위의 중복성을 통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집 영양사의 최우선순위 개선요구와 차순위 개선요구를 파악하였음.
- ◆ 최우선순위 개선요구는 ‘영양사/영양교사 배치 안정화’, ‘시청/교육청 지도점검, 합동 점검, 평가제, 부모모니터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도 등의 일관성’, ‘조리인력 운용 안정성’, ‘물가상승률 대비 급·간식 재료비 반영’이었음.
- ◆ 차순위 개선요구에는 ‘조리원(조리사)의 갑작스러운 부재나 공동급식의 경우 방학 중 급식 등 급식 공백 발생에 대한 대처 가이드라인 제공’과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의 현장 적용 적절성’이 포함되었음.

〈표 6〉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집 영양사 대상 요구분석 우선순위 결정

우선순위 도출방법	18	17	8	16	10	1
Borich 요구도 우선순위	1	2	3	4	5	6
LFF 모델	HH	LH	HH	HH	HH	HH

주: (18) 영양사/영양교사 배치 안정화, (17) 조리원(조리사)의 갑작스러운 부재나 공동급식의 경우 방학 중 급식 등 급식 공백 발생에 대한 대처 가이드라인 제공, (8) 시청/교육청 지도점검, 합동점검, 평가제, 부모모니터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도 등의 일관성, (16) 조리인력 운용 안정성, (10) 물가상승률 대비 급·간식 재료비 반영, (1)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의 현장 적용 적절성

바. 유치원 영양(교)사의 급·간식 지원 관련 개선요구 우선순위 분석

- 유치원 영양(교)사의 급·간식 지원 관련 항목별 중요도와 현재수준을 살펴본 결과, 7점 척도 기준 중요도는 평균 5.16~6.73점의 분포를 보였으며, 현재수준은 평균 3.18~6.44점의 분포가 나타났음.
- 유치원 영양(교)사의 급·간식 지원 관련 항목별 Borich 요구도 값을 산출하여 우선순위를 살펴본 결과, 개선요구 1순위는 조리원(조리사)의 갑작스러운 부재나 공동급식의 경우 방학 중 급식 등 급식 공백 발생에 대한 대처 가이드라인 제공(17번)이었음. 2순위는 영양사/영양교사 배치 안정화(18번)였으며, 3순위는 물가상승률 대비 급·간식 재료비 반영(10번)이었음.
- 유치원 영양(교)사의 급·간식 지원 관련 개선요구를 LFF 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영역인 HH분면에 속한 항목은 총 5개로 나타났음.

- ◆ 5개 항목은 영양사/영양교사 배치 안정화(18번), 물가상승률 대비 급·간식 재료비 반영(10번), 급식시설과 설비 기준의 적절성(3번), 조리인력 운용 안정성(16번), 영유아 현원에 따른 단가 조정 기준 제공(11번)으로 조사되었음.
- Borich 요구도 우선순위와 LFF 모델에서 도출한 우선순위의 중복성을 통해 유치원 영양(교)사의 최우선순위 개선요구와 차순위 개선요구를 파악하였음.
 - ◆ 최우선순위 개선요구는 ‘영양사/영양교사 배치 안정화’, ‘물가상승률 대비 급·간식 재료비 반영’, ‘급식시설과 설비 기준의 적절성’이었음.
 - ◆ 차순위 개선요구에는 ‘조리원(조리사)의 갑작스러운 부재나 공동급식의 경우 방학 중 급식 등 급식 공백 발생에 대한 대처 가이드라인 제공’, ‘영유아 급식을 위한 조리인력 대상 조리법 관련 교육 지원’, ‘조리인력 운용 안정성’, ‘영유아 현원에 따른 단가 조정 기준 제공’이 포함되었음.

〈표 7〉 유치원 영양(교)사 대상 요구분석 우선순위 결정

우선순위 도출방법	17	18	10	20	3	16	11
Borich 요구도 우선순위	1	2	3	4	5	6	8
LFF 모델	LH	HH	HH	LH	HH	HH	HH

주: (17) 조리원(조리사)의 갑작스러운 부재나 공동급식의 경우 방학 중 급식 등 급식 공백 발생에 대한 대처 가이드라인 제공, (18) 영양사/영양교사 배치 안정화, (10) 물가상승률 대비 급·간식 재료비 반영, (20) 영유아 급식을 위한 조리인력 대상 조리법 관련 교육 지원, (3) 급식시설과 설비 기준의 적절성, (16) 조리인력 운용 안정성, (11) 영유아 현원에 따른 단가 조정 기준 제공

- 집단별 최우선순위 개선과제와 차순위 개선과제
 - ◆ ‘조리인력 운영 안정화’는 모든 집단에서 최우선순위 개선과제 또는 차순위 개선과제로 선택된 항목으로 현장의 개선요구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음.
 - ◆ ‘물가상승률 대비 급·간식 재료비 반영’은 민간어린이집 원장과 사립유치원 원장 및 영양(교)사 집단에서 최우선순위 개선과제로 선정되었음.
 - ◆ ‘급식 공백 발생에 대한 대처 가이드라인 제공’은 코로나19 관련 대응 어려움이 반영된 항목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민간어린이집 원장, 사립유치원 원장의 개선요구가 큰 항목이었음.
 - ◆ ‘영양(교)사 배치 안정화’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집 영양사, 유치원 영양(교)사 집단에서 최우선순위 개선과제로 선정되었음.

- ◆ ‘필수 조리 배식기구 지원’은 민간어린이집 원장과 사립유치원 원장 집단에 선정된 최우선순위 개선과제였으며, ‘지도점검, 평가제, 부모모니터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도 등의 일관성’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집 영양사 집단의 최우선순위 개선과제에 포함되었고, ‘급식시설과 설비 기준의 적절성’은 유치원 영양(교)사 집단의 최우선순위 개선과제에 포함되었음.

〈그림 1〉 집단별 최우선순위 개선과제와 차순위 개선과제

우선순위 과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민간 어린이집 원장	국·공립 유치원 원장	사립 유치원 원장	센터, 어린이집 영양사	유치원 영양(교)사
	최우선 차순위	최우선 차순위	최우선 차순위	최우선 차순위	최우선 차순위	최우선 차순위
조리인력 운영 안정화	■	■	■	■	■	■
물가상승률 대비 급·간식 재료비 반영			■	■	■	■
급식 공백 발생에 대한 대처 가이드라인 제공	■	■	■	■	■	■
영양(교)사 배치 안정화		■	■		■	■
필수 조리 배식기구 지원	■	■		■		
영유아 현원에 따른 단가 조정 기준 제공		■		■		■
지도점검, 평가제, 부모모니터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도 등의 일관성					■	
급식시설과 설비 기준의 적절성						■
영유아 급식을 위한 조리인력 대상 조리법 관련 교육 지원	■					■
식재료 구매 및 관리 등을 위한 급식 전문기관의 지원		■				
가정 연계 교육을 통해 일상 속 건강식 생활 실천 문화 조성		■				
영유아에게 간식으로 자연식품/제철식품 제공			■			
급·간식 관련 법령의 현장 적용 적절성					■	

3

정책 제언: 내실 있는 급·간식 환경을 위한 핵심 추진 과제

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을 위한 전문인력 운영 안정화

1) 조리인력 운영 체계화 및 배치기준 재설정

- 영유아기는 전문인력에 의한 급·간식 제공이 더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음. 「식품위생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조리사를 두어야 함. 하지만 2021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로 어린이집 실정을 살펴보면 조리사 자격이 없는 조리원이 34.4%였으며, 원장이 조리하는 경우가 13.2%인 것으로 조사되어 급식이 전문인력에 의해 운영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시·도와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조리인력 운영 체계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집과 유치원 조리인력 운영을 체계화하는 방안으로 시·군·구, 인력개발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이 MOU를 체결하여 인력관리 플랫폼을 운영하는 방식을 제안함. 이러한 운영체계는 조리인력을 교육하고, 지원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함. 해당 기관들이 협력하여 인력관리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인력풀을 관리하고, 조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및 위생·안전과 영유아 대상 단체급식에 대한 교육 등이 병행된다면 믿고 맡길 수 있는 조리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 대체인력 관련 플랫폼을 구축한 사례: 경기도의 일당형(하루 단위) 대체인력 플랫폼, 경기도는 플랫폼을 통해 인력풀을 구성하고, 반복서류 제출을 간소화하여 어린이집 인력 수급을 개선하고자 하였음.
- 조리인력 운영체계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특성을 고려하여 조리인력 배치기준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 ◆ 조리인력 배치기준은 주로 원아수만을 고려하여 수립되었는데 급식 상시 인원에는 교직원도 포함되므로 급식인원수에 원아와 교직원을 함께 포함해야 함. 「식품위생법」에서도 급식 상시 인원을 기준으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는 자격증이 있는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2 학년도 유치원 급식 기본방향 내용을 수정하면서 급식인원수 구간을 원아수에 급식 교직원 수까지 포함하도록 변경하였음(서울특별시교육청, 2022. 7. 1: 1).

- 조리인력 배치기준을 수립할 때는 급식인원수 외에 기관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함. 어린이집의 경우, 0세반을 위한 이유식부터 야간연장반을 위한 석식까지 식사의 형태와 시간이 다양할 수 있기에 이를 고려한 조리인력 배치가 필요함.
- ◆ 조리인력 배치기준에는 어린이집 특성에 따른 조리사의 역할과 근무 시간 등도 명시되어야 함. 조리사와 함께 조리원, 급식보조인력 등 급식인원수에 따른 조리인력 배치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영유아 급·간식 환경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이고 일률적인 지원이 아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특성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안들까지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2) 급식 공백 발생에 대한 대처 가이드라인 제공

- 조리사(조리원)의 부재 등으로 급식 공백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응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현장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조리인력의 부재를 경험했고, 대체조리사 채용의 어려움으로 급식 운영을 위해 원장이 급식 조리를 한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 공백 발생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차원에서의 기본적인 방향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 기관은 기본적인 지침을 바탕으로 기관의 특성에 맞는 대처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임.
- 급식 공백 동안 위탁급식을 이용하거나 대형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로부터의 대체 조리사 지원 등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면서 운영위원회 또는 급식소 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급식 공백에 대응할 다양한 대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기관별 대처 방안 수립을 위해 업무연속성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 작성을 제안함.

3) 영양(교)사 배치 안정화

-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유치원은 영양교사를 채용해야 함. 하지만 원아 수 1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영양교사 배치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유치원의 경우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 배치로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영양사와 영양교사 배치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시·도청과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 서울시교육청 사례1): 서울권 5개 대학과 유치원 영양교사 인력풀 MOU를 체결하였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영양교사 인력창고도 신설하여 유치원이 영양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의 행정업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 대구광역시에서는 식품위생 베테랑 퇴직공무원을 활용하여 신규 영업신고 음식점과 기존 음식점 및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식품안전 레벨-업 어드바이저 사업’을 수행하였음. 사업을 시행한 결과, 식중독 발생 건수가 2020년 대비 2021년 식중독 발생 건수가 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퇴직 영양교사를 활용하여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급식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2).

나. 급·간식 지원단가 현실화

1) 보육료에서 급·간식비 분리

-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차별 없는 바른 먹거리 지원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보육료에서 급·간식비를 분리해야 함.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누리과정을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보육료에만 급·간식비가 포함되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양질의 급·간식 제공이 어려운 상황임. 어린이집도 적정 급·간식비를 보육료와 별도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성공적인 유보통합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교육부, 2023: 6)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집행지침 및 적극행정을 통해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재원 유아를 대상으로 급·간식비를 추가 지원하도록 개선한다고 밝힌 만큼 관련 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함.

1) 서울특별시교육청(2021. 4. 26). 서울시교육청, 사립유치원 영양교사 인력풀 지원에 발 벗고 나선다. p. 2.

2) 대구광역시 시정소식(2022. 4. 21). 식품위생 베테랑 퇴직공무원, 대구 식품안전 컨설팅에 앞장서다.

<http://info.daegu.go.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aid=254222> (2022. 10. 14. 인출).

2)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식단가 지원

-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식단가 지원이 필요함.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공립단설유치원 원아 100~150명 기준 2022년 2학기 유치원 식품비 단가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³⁾.
 - ◆ 식품비 단가가 가장 높은 지역(3,381원)과 가장 낮은 지역(2,310원)의 식품비 격차는 1,071원이었음. 급식 지원단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되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역별 예산 확보와 지원이 필요함.
- 어린이집은 보육사업안내에 급식·간식 재료비로 영아 1,900원 이상, 유아 2,500원 이상을 집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음(보건복지부, 2022: 58). 유아 2,500원은 급식 1회, 간식 2회를 포함한 금액이며, 2022년 2학기 유치원 식품비 전체 평균 단가인 2,810원(중식 1회)보다 낮은 금액임. 급·간식 식수에 따라 단가의 차이가 크게 나기에 급식 지원단가는 영유아 현원(급·간식 식수)에 따른 조정 기준도 함께 마련되어야 함.
 - ◆ 2019년 표준보육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에서는 아동 1인당 월 급·간식비로 일반 마트 단가를 기준으로 0세 33,200원, 1~2세 45,100원, 3~5세 64,000원을 제안했으며, 유기농 식재료 구매(30% 수준) 단가를 기준으로 0세 44,700원, 1~2세 61,900원, 3~5세 88,000원을 제안하였음(박진아 외, 2019: 118).
-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급식단가를 지원하되 급식단가에서 식품비의 비중을 확보 하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경기도교육청 사례: 2022학년도부터 공립유치원의 경우 안정적인 식품비 확보 및 급식의 질을 제고하고자 지원단가 내 식품비, 운영비와 인건비를 분리하여 지원하고 있음. 식품비와 운영비는 학교급식 경비로 편성하며, 조리실무사 인건비는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로 분리하여 편성함.

다. 영유아 급·간식 환경 개선 기준 마련

-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환경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급·간식 환경 개선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영유아 급·간식 환경 개선 기준에는 영유아 대상 급식시설과 설비 기준 및 필수 조리 배식기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3) 교육부(2022). 시도교육청 2학기 식품비 단가 인상 현황-내부자료. p. 1.

- ◆ 학교급식 시설·설비개선 매뉴얼과 같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시설과 설비개선 매뉴얼이 제작될 필요가 있음. 매뉴얼 제작에 앞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시설과 설비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필요함.
- ◆ 조리실은 위생과 안전을 위한 동선 확보 및 조리기구 배치가 필요한 장소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에 맞는 조리실 환경이 구축되어야 하며, 기존 시설에 대한 개보수 작업도 진행되어야 할 것임.
- ◆ 초등학교 급식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유치원의 경우, 유아의 체격에 맞지 않는 식탁과 의자 사용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초등학교 유희교실 등을 활용하여 유아의 신체발달을 고려한 급식 공간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라. 점검 및 평가 기준 일원화

-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환경의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서는 시청/교육청 지도점검과 합동점검, 평가제, 부모모니터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도 등의 일관성과 평가와 지도 기준의 일원화가 필요함.
 - ◆ 스마트 행정을 통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완화하면서 급·간식 환경의 위생과 안전은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지자체, 교육(지원)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모니터링 전문가, 부모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지자체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구성한 후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상 위생·안전, 영양 및 급·간식 관리 실태를 상호점검하면서 집중적인 관리가 요구되거나 개선이 어려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지원해 주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마. 기타 주요과제

- 영유아 급식을 위한 조리인력 대상 조리법 관련 교육 지원이 필요함. 급식의 질은 급식 관련 비용 지원뿐 아니라 조리법과 식단 등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음. 지자체에서는 지역 내 조리학교, 조리학과, 조리 동아리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조리인력을 대상으로 조리법과 관련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식재료 구매 및 관리 등을 위한 급식 전문기관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은 식재료 정보와 안심 구매업체 자료 등을 현장에 제공하여 식재료 구매와 관리를 지원해야 함.
 - ◆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의 홍보와 상용화를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안전성이 확보된 식재료가 안정적으로 조달되는 방안이 정착될 필요가 있음.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이 이용자 친화적으로 진화되어 어린이집과 유치원 영유아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지역 농산물을 제공받을 수 있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영양 및 식생활 교육은 가정 연계 교육을 통해 일상 속 건강식생활 실천 문화를 조성해야 함.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위해서는 영유아기부터 바른 먹거리를 접하면서 영양교육과 식생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함.
 - ◆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지원 차원에서도 영유아 맞춤형 놀이 중심 콘텐츠 및 교육 자료 개발이 필요하며 가정 연계를 위한 사례집도 제작하여 배포할 필요가 있음. 제5차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⁴⁾의 식생활 교육지원과도 연계하여 식생활 프로그램과 가족 연계 교육을 활성화해야 함.

4)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2021. 11. 4). 제5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22~'24년) 발표. p. 8. 붙임 1.

I 참고 문헌 I

- 구자연·도남희·김영민(2022).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지원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교육부(2022). 시도교육청 2학기 식품비 단가 인상 현황-내부자료.
- 교육부(2023). 성공적인 유보통합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
- 대구광역시 시정소식(2022. 4. 21). 식품위생 베테랑 퇴직공무원, 대구 식품안전 컨설팅에 앞장 서다. <http://info.daegu.go.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aid=254222> (2022. 10. 14. 인출).
- 박진아·유해미·최효미·김동훈·김태우·위세아·김송이·유영준(2019). 표준보육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보건복지부(2022).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부록.
- 서울특별시교육청 보도자료(2021. 4. 26). 서울시교육청, 사립유치원 영양교사 인력풀 지원에 발 벗고 나선다.
- 서울특별시교육청(2022. 7. 1). 2022 유치원급식 기본방향 신·구 대비표. <http://buseo.sen.go.kr/web/services/bbs/bbsView.action?bbsBean.bbsCd=94&bbsBean.bbsSeq=9094&ctgCd=211> (2022. 9. 7. 인출).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2021. 11. 4). 제5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22~'24년) 발표.
- 조대연(2009). 설문조사를 통한 요구분석에서 우선순위결정 방안 탐색. 교육문제연구, 35, 165-187.

PART

02

가정 양육지원

- 영유아·임산부건강지원사업 발전방안
권미경
-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및 가정양육지원 연계 전략
최윤경
- 양육실태와 정책 수요를 고려한 영아 양육지원 전략 및
정책 과제
이정원

| 이슈페이퍼 2023-02 |

영유아·임산부건강지원사업 발전방안

권미경

- 배경 및 지원사업 개요
 -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사업평가 및 개선요구
 - 정책제언
- 참고문헌

영유아·임산부건강지원사업 발전방안

권미경 연구위원

◆◆ 요약 ◆◆

- 현재 추진 중인 영유아와 임산부 건강지원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수요자와 사업담당자, 관련 전문가의 입장에서 체감되는 성과와 평가, 개선요구를 수렴하여 영유아와 임산부 건강지원사업 발전방안을 제시함.
-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추진에의 의견은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 서비스와 지원 사업 확대’라는 보편지원 방식에 동의가 높음.
-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은 1세 미만 영아와 임산부 지원에 편중된 경향을 보여 생애 전반을 고려한 연속성 있고 포괄적인 확대가 요구됨.
- 향후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의 추진 방향성을 생애주기 포괄적 관점, 가족중심 지원,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 지원체계 간 협업, 사업 접근성 향상, 취약계층과 취약지역 서비스 개선 등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방안들을 구체화함.

1 배경 및 지원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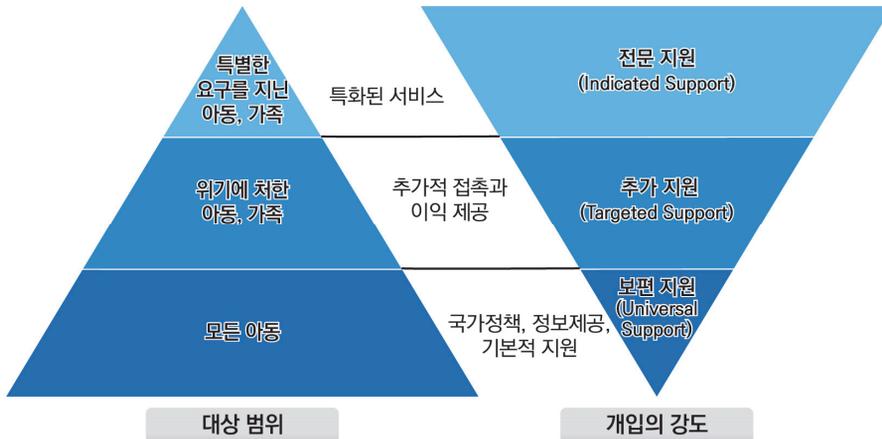
- 모자보건사업은 다음 세대의 국민 생존과 건강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각국 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높은 분야임.
- 특히,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변화를 체감하면서 국민건강, 영유아 건강은 더욱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되었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영유아·임산부를 포함하여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국민 건강관련 정책을 강조하고 있음.
- 현재 추진 중인 영유아와 임산부 건강지원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수요자와 사업

* 본 고의 내용은 육아정책연구소의 2022년 기본과제 (2022). 「영유아 임산부 건강지원사업 사업평가 및 발전방안(권미경·이정원·이재희·엄지원·윤소정·이소영·황선영)」의 일부를 토대로 작성함.

담당자, 관련 전문가의 입장에서 체감되는 성과와 평가, 개선요구를 수렴하여 영유아와 임산부 건강지원사업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구분한 틀을 사용하여 영유아와 임산부 건강지원 사업을 지원 대상 범위에 초점을 두어 정리함.
 - ◆ 이 틀은 모든 영유아와 양육자에서부터 특별한 지원이 요구되는 경우까지 3개 집단으로 구분하고 그에 맞는 개입의 강도를 설명함.
 - ◆ 모든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이나 정보제공 등의 기본적인 지원을 포함하는 보편지원(Universal support), 위험성을 지닌 경우에는 추가적인 접촉과 이익을 제공하는 추가지원(Targeted support)¹⁾, 이미 상당한 위험상황에 처해 특별한 요구를 지닌 경우에는 전문화된 서비스를 포함하는 전문지원(Indicated support)으로 구분하여 정책 개입의 강도를 제시함.

[그림 1] 가족과 아동의 요구에 맞춘 개입의 강도²⁾



출처: 권미경·이정원·이재희·엄지원·윤소정·이소영·황선영(2022). 영유아 임산부 건강지원사업 사업평가 및 발전방안. p. 44, <그림 11-2-2>임.

1) 추가지원은 표적지원으로, 전문지원은 필요지원으로도 표현됨.
 2) 출처: WHO(2018). Nurturing Care for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 Framework for Helping Children Survive and Thrive to Transform Health and Human Potential. p.22 [그림] MEETING FAMILIES' AND CHILDREN'S NEEDS. <https://apps.who.int/iris/handle/10665/272603> 에서 2022. 3. 14. 인출. 한글로 재구성함.

- 2022년 현재 추진 중인 영유아와 임신부 건강지원사업을 지원대상별로 구분하면 다음 <표 1>과 같음.

<표 1> 영유아·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사업 내용: 지원대상과 범위 적용 구분

	임신(태아)	출산, 1세 미만	영아	유아
보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분제 지원 - 엽산제 지원 - 표준모자보건수첩 - 국민행복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국가예방접종지원 - 의료기관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 국민행복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국가예방접종지원 - 영유아 건강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국가예방접종지원 - 영유아 건강검진
추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플러스 - 의료급여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플러스 - 의료급여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 해산급여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 긴급복지해산비 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플러스 -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플러스 -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전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지원 - 취학 전 아동실명 예방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지원 - 취학 전 아동실명 예방 사업

출처: 권미경 외(2022). 영유아 임신부 건강지원사업 사업평가 및 발전방안. p. 378, <부록 표2>임.

2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사업평가 및 개선요구

- 정책수요자인 영유아 부모와 정책의 전달체계인 보건소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와 보건과 아동 등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요구를 수렴함.

가. 정책수요자

■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에의 평가

- ◆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결과 평균 7.8점(10점 기준)으로 나타났으며, 5점 척도 평가 결과는 73.4%가 긍정적으로 평가함.
- ◆ 부정적 평가 이유는 ‘지원 대상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서’ 36.4%, ‘지원 비용이 적어서’ 21.2%, ‘실제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떨어져서’ 18.2%, ‘지원 사업들에 대한 정보 제공이 부족해서’ 12.1%, ‘지원 내용이 건강지원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서’ 9.1% 순으로 나타남.
- ◆ 긍정적 평가 이유는 ‘지원 비용으로 경제적 도움이 되어서’ 56.6%,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서’ 28.3%, ‘지원의 내용이 좋아서’ 9.7%, ‘이용하기 쉬워서(접근성)’ 3.2%, ‘전문성을 신뢰할 수 있어서’ 2.2% 순임.

■ 건강지원사업 구상 시 중점 고려 내용

- ◆ 영유아 대상 건강지원사업 계획 시 가장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으로 ‘영유아 자녀 발달 진단 기회 제공’이 32.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녀를 위한 건강 관련 교육’은 7.8%로 가장 낮았음.
- ◆ 임산부 대상 건강지원사업 계획 시 가장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으로 ‘임산부 산후조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기회 확대’가 37.7%로 가장 높았으며, ‘임산부 또래모임 활성화’는 5%로 가장 낮았음.

■ 영유아 건강지원사업에서의 연령별 요구

- ◆ 영영아(1세 미만)의 경우 ‘기저귀 교체분유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40.7%, ‘균형 잡힌 영양 제공’ 17.8%, ‘발달 진단 검사 기회 제공’ 17.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영아(1~3세 미만)의 경우 ‘균형 잡힌 영양 제공’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34.5%, ‘발달 진단 검사 기회 제공’ 32.2%, ‘국가필수사업 외 예방접종 지원’ 11.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유아(3~5세 미만)의 경우 ‘균형 잡힌 영양 제공’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28.4%, ‘발달 진단 검사 기회 제공’ 23.1%로 높게 나타나 영아 대상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됨.

■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 관련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

- ◆ 국정과제에서 제시된 지원사업의 필요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백신 국가예방접종 항목확대 4.5점, 임신·출산 진료비 보장확대 4.4점, 난임부부 시술비 및 정신건강 지원확대 4.2점, 생애주기 통합적 건강관리 체계구축 4.2점임.

■ 향후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추진에의 의견

- ◆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 서비스와 지원 사업 확대’라는 보편지원 방식에 70.8%가 동의함.
- ◆ 중점 개선 부분으로는 ‘사업 추진의 지속성 및 일관성’이 27%로 가장 높았고, ‘수요자 요구에의 적합성’ 24.8%,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 18.8%, ‘지자체 특성에 맞는 사업 개발 독려 및 예산지원’ 14.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선호하는 지원유형으로는 현금지원 방식의 지원 확대(비용지원) 44.3%, 바우처 지원 확대 40.4%로 두 가지 유형 선호도가 높게 나타남.

나. 사업담당자

■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평가 및 개선요구

- ◆ 현행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의 정책기여도
 -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에 기여한다는 점이 3.7점, ‘출산 의료비 경감’, ‘영유아 의료비 경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임신·출산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사회보장 강화’ 등의 목표는 3.6점으로 평가됨.
 -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의 출산 독려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한 결과 ‘보통이다’ 응답이 51.2%로 가장 많았고, 평균 3.1점(5점 기준)으로 나타남.
- ◆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에의 평가
 -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결과, 평균 8.1점(10점 기준)으로 나타났으며, 5점 척도로 평가해본 결과 70.2%가 사업 추진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함.
- ◆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의 사업별 필요성 및 적절성 평가
 - 5점 척도로 사업 필요성을 평가한 결과, 대다수의 사업이 대체로 필요하다고 평가

되어 4점에 수렴되는 양상을 보였고 이 중 어린이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의 경우 4.4점으로 가장 높았음.

- 사업 운영 적절성에 대한 평가가 높은 항목은 엽산 철분제 지원 4.1점, 어린이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4.1점, 영양플러스 사업 4.0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4.0점 등으로 나타남.
- 어린이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이 필요성과 적절성이 모두 높은 사업으로 평가 되었으나 취학 전 아동실명 예방 사업,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등의 사업은 필요성과 적절성이 다소 낮게 평가됨.
- ◆ 영유아 및 임산부 대상 건강지원사업 구상 시 중점 고려 내용
 - 영유아 대상의 경우 ‘영유아 자녀 발달 진단 기회 제공’이 3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영유아 자녀 주치의 제도 마련’은 5.4%로 가장 적게 응답함.
 - 임산부 대상의 경우 ‘임산부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 기회 확대’가 33.7%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가정방문 건강지원 서비스 확대’는 4.3%로 가장 적은 응답을 보임.
- ◆ 영유아 건강지원사업에서의 연령별 요구
 - 영영아(1세 미만)의 경우 ‘발달 진단 검사 기회 제공’이 27.5%,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26.7%, ‘국가필수사업 외 예방접종 지원’ 24.4% 등의 순서임.
 - 영아(1~3세 미만)의 경우 ‘발달 진단 검사 기회 제공’이 37.2%,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26%, ‘국가필수사업 외 예방접종 지원’ 12.8% 등의 순서임.
 - 유아(3~5세 미만)의 경우 ‘균형 잡힌 영양 제공’이 27.1%, ‘발달 진단 검사 기회 제공’ 22.5%, ‘건강 관련 프로그램 제공’ 18.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 관련 정책 추진에의 의견

- ◆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 관련 국정과제 필요성 진단
 - 5점 척도 평가 결과, 백신 국가예방접종 항목 확대가 4.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임신·출산 진료비 보장 확대 3.9점, 난임부부 시술비 및 정신건강 지원 확대 3.8점, 임신·출산 모바일 앱 개선 3.6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향후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추진에의 의견

- '보편 서비스와 지원 사업 확대'라는 보편지원 방식에 70.5%가 동의함.
- 중점 개선 부분으로는 수요자 요구에의 적합성이 32.2%로 가장 높았고, 사업 추진의 지속성 및 일관성 21.3%, 인력 전문성 확보 18.6% 등의 순서임.
- 선호하는 지원유형으로는 바우처 지원 확대 44.2%, 현금지원 방식의 지원 확대(비용지원) 30.2%, 서비스 제공 형식의 지원 확대(건강이나 의료서비스) 22.1%, 물품 지원 확대(현물지원) 3.5% 순으로 나타남.

다. 전문가

■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사업평가

◆ 정책기여도 평가

- '출산 의료비 경감'이라는 정책 목표에 기여한다는 점이 4점으로 가장 높았고,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임신·출산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사회보장 강화'의 목표에는 3점으로 기여정도가 낮게 평가됨.
-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 평가결과 평균 3.6점(5점 기준)으로 나타남.

◆ 영유아·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사업 필요성과 적절성

- 보편지원사업 필요성 평가 결과 '어린이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과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이 5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밖에 '모자보건수첩 제작 배부' 4.1점,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3.9점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사업 필요성이 낮았음.
- 보편지원사업 적절성 평가 결과 '어린이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4.5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4.4점 등으로 대다수 사업이 4점 이상의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3.5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배부' 3.7점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사업 적절성이 낮게 평가됨.
- 추가지원사업 필요성 평가 결과 4.5점~4.9점의 범위(5점 기준)로 나타나 대체로 매우 필요하다는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남.
- 추가지원사업 적절성 평가 결과 3.7점~4.2점의 범위(5점 기준)로 대체로 적절하다는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문지원사업 필요성 평가 결과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4.4점을 제외하고 대부분 4.9점~5점으로 나타나 매우 필요하다는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문지원사업 적절성 평가 결과 4.1점~4.8점의 범위(5점 기준)로 나타나 대체로 적절하다는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영유아·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사업별 평가 및 개선요구

보편지원	추가지원	전문지원
표준모자보건수첩: 모바일앱 형태 개발 필요 등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신청서류 간소화, 교통비 지원 필요 등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비용 확대 등
엽산제 철분제 지원: 지속적인 지원 및 지원대상 확대 등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지원대상 및 범위, 홍보강화 등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홍보 강화 및 분만환경 조성 등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원금 상향 조정 필요 등	해산급여: 현금지원보다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및 범위 확대 등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소득기준 완화 등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대부분 의료기관 출산으로 출산비지급에 대한 고민 필요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지원금액 조정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접근성 및 홍보 강화 등
어린이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접종 내용 및 대상 확대 등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 검진비 지원: 예방강화 사업연계 도모 등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소득수준 향상, 비용지원 확대 등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후속조치 및 추적관리, 검진내용 확대 등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금액 및 대상 범위확대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기간 확대 및 산후도우미 전문성 제고 방안 등 영양플러스 사업: 보편지원으로 확대 필요 등	취학전 아동실명 예방 사업: 소득기준 관계없이 확대 등

출처: 권미경 외(2022). 영유아 임신부 건강지원사업 사업평가 및 발전방안. p. 9 수록표임.

■ 영유아·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사업 구상 시 중점 고려 내용

◆ 영유아 및 임산부 대상 건강지원사업 구상 시 중점 고려 내용

- 영유아 대상의 경우 ‘가정방문 건강지원 서비스 확대’를 강조하였으며, 정기적 방문을 통한 교육과 상담 등이 수시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봄.
- 임산부 대상의 경우 ‘임산부 산후 조리 위한 서비스 제공 기회 확대’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산후 회복 및 산후우울증 예방, 신생아 돌봄 등을 위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봄.

- ◆ 영유아 건강지원사업에서의 연령별 요구
 - 영영아(1세 미만) 건강지원사업의 경우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부모의 양육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았음.
 - 영아(1~3세 미만) 건강지원사업의 경우 연령에 맞는 예방접종 및 발달진단, 안전 사고 예방, 정보제공과 교육을 포함하는 부모지원, 사회성 발달 지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특화 지원 등이 제시됨.
 - 유아(3~5세 미만)의 경우 연령에 맞는 건강 및 발달진단,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지원, 사회성 발달지원, 유아가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지원 등이 제시됨.
- ◆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 관련 정책 현안예의 의견
 - 향후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추진 방향
 - 소득기준이 없는 보편지원 확대의견에 66.7%가 응답함.
 - 선호하는 지원유형의 경우 ‘서비스 제공 형식의 지원확대’가 81.0%의 비율로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책수요자의 44.3%가 현금지원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결과와 대조됨.

■ 현 정부의 관련 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표 3>과 같음.

<표 3>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 관련 국정과제 추진 방안

국정과제 내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 내용	추진방안
임산·출산 모바일앱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적 관점 연계성 고려 - 통합제공을 위한 연계 - 이용자 편리성 및 접근성 제고 - 정보 내용 및 기능 차별화
난임부부 시술시 및 정신건강 지원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 정서적 지원강화 - 정보제공 및 사회적 홍보
임신출산 진료비 보장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지원 확대 - 비용지원 확대에 반대 - 서비스 및 인프라 강화 - 진료비 지원 내용 검토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체계화 및 강화 - 전담인력의 양성 - 이용자의 불편감 해소 방안 마련 - 실효성 제고
생애주기 통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체계화 및 내용 - 협업과 연계 -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
아동주치의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마련 시 반영 요구 - 협력체계 구축 -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 착수 시 고려점
백신 국가예방접종 항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항목 확대 필요 - 접종 방법 관련

출처: 권미경 외(2022). 영유아 임신부 건강지원사업 사업평가 및 발전방안. p. 10 수록표임.

3 정책제언

- 향후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의 추진 방향성을 생애주기 포괄적 관점, 가족중심 지원,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 지원체계 간 협업, 사업 접근성 향상, 취약계층과 취약 지역 서비스 개선 등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방안들을 구체화하여 제안함.

〈그림 2〉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추진 방향 및 개선방안

정책화 방향	개선 방안
생애주기 건강지원 포괄적 접근 (whole life cycle approach)	- 생애주기 통합적 건강 관리체계 구축 - 아동주치의 제도 도입 - 출생신도제도 개선 - 전 연령대별 발달 특성 고려한 지원 강화 - 영유아 자녀 발달진단 기회 확대
가족중심 지원 (family centered care)	- 부모교육 기회 확대 - 가족중심 접근을 정책명으로 반영 - 아버지의 역량 강화
심리 정서적 지원 강화 (strengthening psycho-emotional support)	- 영유아를 위한 심리검사 및 진단 지원 - 임산부 정서 지원 및 상담 기회 확대 - 영유아 임산부 심리정서적 지원강화를 위한 상담인력 양성
지원체계 간 협업 (whole government action)	- 서비스 안내 공유/통합 이용 앱 구축 - 전달체계 간 연계와 협력 위한 법 개정 - 원스탑 서비스 창구 마련
지원 사업 접근성 향상 (service accessibility improvement)	- 가정 방문 서비스 제공 - 비대면 온라인 진료와 상담지원 - 응급 이송체계 확립 - 영유아 임산부건강 특화된 의료 인력 확충 - 지원 서비스 홍보 및 안내 강화
취약계층과 취약지역 서비스 개선 (no one behind left)	❖ 취약지역서비스 개선 - 지역 격차 해소 및 공공인프라 구축 - 분만 취약지역을 위한 지원 ❖ 취약계층 서비스 개선 - 건강지원 코디네이터 제도 마련 - 장애 영유아를 위한 재활치료 지원 강화 - 장애인 부모지원 - 신생아 선별검사 희귀질환 품목 확대

출처: 권미경 외(2022). 영유아 임산부 건강지원사업 사업평가 및 발전방안. p. 335, 〈그림 Ⅶ-1-1〉임.

가.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정책방향

- 생애주기 건강지원 포괄적 접근(whole life course approach)
 - ◆ 발달의 누적적 특성에 따라 태아 시기, 출산, 신생아기, 영아와 유아 시기 등 생애 초기 건강은 조기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함.

- ◆ 영유아와 임신부 건강지원사업의 추진은 출생 전부터 노년에 이르는 생애 전 과정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하며 각 발달 단계별 특징을 고려한 건강 증진, 예방, 치료적 차원의 지원을 포함하여 기획되어야 함.
- 가족중심 지원(family centered care)
 - ◆ 가족은 영유아와 임신부의 가장 중요하고 친밀한 인적 환경이며, 임신과 출산은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과정으로 가족중심지원은 영유아와 임신부 건강지원 시 임신부, 어머니에 대한 개입에서 확장되어 아버지를 포함하는 전체 가족이 고려되어야 함.
 - ◆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의 기획은 아동과 가족의 요구에 기반해야 하며, 부모 또는 아동에 개별적인 강조점을 두기보다 가족의 건강이라는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
- 심리 정서적 지원 강화(strengthening psycho-emotional support)
 - ◆ 영유아의 균형적인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정신건강을 포함하는 아동의 건강권 보장이 강조되며, 세계보건기구(WHO)의 건강의 범주 또는 개념도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을 포괄하는 개념임.
 - ◆ 이는 신체적인 건강지원뿐 아니라 심리 정서적 측면에의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추진을 의미함.
- 지원체계 간 협업(whole government action)
 - ◆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주체 간의 협업과 더불어 보건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주민자치센터, 지역의 의료기관 등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간의 연계와 협력도 필요함.
- 사업 접근성 향상(service accessibility improvement)
 - ◆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접근성의 향상은 수요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이용 가능한 물리적인 접근성 뿐 만 아니라 서비스의 내용이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구성되어 최적의 지원을 제공하는 이용 편의성을 포함하는 것임.
- 취약계층과 취약지역 서비스 개선(no one behind left)
 - ◆ 형평성은 인권실현의 핵심요소로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대한 소외 또는 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함.

- ◆ 영유아와 임산부를 위한 건강지원을 도모하면서도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장애를 지녔다는 이유로, 거주지역이 취약하다는 등의 이유로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지원사업 기획 시 정책적 관심을 두어야함.

나.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개선방안

■ 생애주기 건강지원 포괄적 접근(whole life cycle approach)

- ◆ 생애주기 통합적 건강 관리체계 구축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빠짐없는 촘촘한 건강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건강지원 모니터링이 가능한 앱을 개발하고 제공함. 태아,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검진기록을 연계하여 통합적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나, 제도실행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을 해결해야함.
- ◆ 전 연령대별 발달 특성 고려한 지원 강화
 신생아, 영유아 시기부터 노년기에 이르는 발달 단계별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 증진과 예방, 치료적 차원을 포함하는 건강지원이 구성되어야하나 현재의 건강지원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 특히 신생아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을 위한 예방적 차원의 지원이 강화되어야함.
- ◆ 영유아 자녀 발달진단 기회 확대
 성장발달 스크리닝 후 선별된 아동에 대한 발달 진단검사 실시 및 지원체계와의 연계의 제도화를 통해 장애위험에 처한 영유아를 조기발견하고 연계 지원함. 최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발달이 느리거나 장애 위험 영유아, 경계성 장애영유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는 상황으로 영유아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수준의 도구 개발이 요구됨.
- ◆ 아동주치의 제도 도입
 독일 등에서 시행 중인 아동주치의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출생과 함께 각 영유아를 위한 주치의를 정하여 지속적인 건강과 의료 지원을 하는 방안으로, 이를 통해 영유아의 성장발달에 따른 변화를 추적 지원할 수 있고, 영유아 발달과 의료정보의 축적으로 질병예방과 장애 조기발견이 가능하며, 주기적인 성장검사, 아동학대 징후 발견도 기대 가능함.

- ◆ 출생신고제도 개선³⁾

출생신고가 누락되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생신고 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나 자택출산 등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한 영아의 출생신고 절차 개선을 포함하는 체계 개선이 필요함. 정부는 의료기관을 통한 출생통보제의 도입을 위해 법적 근거의 마련과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는 등 그 도입을 계획 중임.

- 가족중심 지원(family centered care)

- ◆ 산후조리원을 통한 부모교육 기회 확대

최근 산후조리원의 이용이 81.2%에 달하는 상황⁴⁾이므로 산후조리원에서의 부모교육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안함. 향후 부모수당이 지급될 때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의 부모교육을 받고 이수증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한부모 가족, 조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 가구 특성 등에 따른 대상 및 교육이 세분화되어야함.

- ◆ 아버지의 역량 강화

건강한 영유아 돌봄과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됨이 무엇인지, 산모 돌보기, 산후 우울증 예방, 아기돌보기, 모유 수유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아버지 교육을 지원하며, 교육지원 방법으로 보건소를 중심으로 아버지의 참여가 가능한 주말과 휴일 프로그램의 기획 제공, 비대면 영상을 활용한 교육과 자조모임 구성도 지원함.

- ◆ 가족중심 접근을 정책명으로 반영

모자보건, 표준모자보건수첩 등과 같이 정책이나 프로그램 이름에도 지원 대상을 중심으로 어머니, 아이를 강조하는 표현들이 있으므로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이나 향후 신규 사업 등에 가족중심 경향성을 담아야함.

- 심리 정서적 지원 강화(Strengthening psycho-emotional support)

- ◆ 영유아를 위한 심리검사 및 진단 지원

영유아 대상 정서 발달 평가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정밀 발달검사, 정서 발달 자가평가 등 서비스 지원 연계가 필요하며, 특히 아동학대, 각종 사고로 인한 심리 정서적 후유증 회복을 위한 위기 개입과 영유아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부모·교사 대상 심리 지원 및 교육도 병행되어야함.

3)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중 일부(대한민국정부, 2020: 80)임.

4) 이소영·최인선,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 ◆ 임신부 정서 지원 및 상담 기회 확대

출생 후 1년 이내 산후우울증 발생이 10-20% 전후임을 고려할 때 임신 후기 산전검사나 영아 예방접종을 위한 보건소/병원 방문 시 모성에 대한 심리정서적 측면에 대한 검사 및 필요한 경우 지원을 하는 방안임.

- ◆ 영유아·임산부 심리정서적 지원강화를 위한 상담인력 양성

영유아와 임신부 등 심리정서적 지원 대상을 상담수준의 지원, 의료적 또는 치료적 지원으로 구분하고 그에 대응하는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영유아를 대상으로, 임신부를 대상으로 특화된 상담이 가능한 전담인력을 양성하고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함. 이와 더불어 기존 인력(산후도우미, 방문간호사 등)이 이러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h 고려할 수 있음.

- 지원체계 간 협업(whole government action)

- ◆ 서비스 안내 공유/ 통합 이용 앱 구축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기관 간 서비스 제공 내용을 공유하는 것으로,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의 전달통로인 보건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주민자치센터, 지역의 의료기관 등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 안내를 공유하고 통합이용 앱을 제공하자는 것임.

- ◆ 원스탑 서비스 창구 마련

임신 시 또는 출산 후 출생신고 시 동의를 얻어 영유아와 임신부 건강지원 관련 정보를 push 서비스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상시접근 가능한 긴급전화, 온라인 상담 등을 병행하여 제공함. 영유아와 임신부 건강지원사업 정보제공의 주체는 전국 지자체마다 설치된 지역보건소를 중심으로 추진함이 적절함.

- ◆ 전달체계 간 연계와 협력 위한 법 개정

의료, 사회복지, 돌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사회 내 전달체계 간 연계와 협력은 매우 필요하지만 상위법과 정부차원의 연계협력이 제도화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구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전달체계 간 연계와 협력을 위한 법령과 지침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검토를 요함.

■ 지원 사업 접근성 향상(Service accessibility improvement)

◆ 가정 방문 서비스 제공

현재 정부도 생애초기 건강관리에 초점을 두고 상대적으로 외부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임신부·영아 가구에 전문 인력(간호사 등) 방문하여 건강 상담, 영아 발달상담, 교육 등 맞춤형 건강관리 제공하는 방문서비스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응답자의 주된 이유가 사적 공간에 외부인 방문이 불편하다는 것임을 감안하여 서비스 설계 시 섬세한 접근이 요구됨.

◆ 영유아·임산부 건강 특화된 의료 인력 확충

임산부와 신생아, 특히 고위험 임신부와 고위험 신생아를 돌보는 의료 인력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가장 의료분쟁의 위험이 높은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감소하여 출산 관련 의료체계를 갖추 수 있는 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국가 수준에서 소아청소년과, 영유아·임산부 건강에 특화된 의료 인력의 확충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시급함.

◆ 비대면 온라인 진료와 상담지원

물리적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의 경우에는 온라인 전문의 제도를 통해 화상진료나 상담을 지원하며, 긴급한 의료적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스마트폰의 단축번호 기능을 통해 응급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임.

◆ 지원 서비스 홍보 및 안내 강화

정책 수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기 쉽게 안내하고 설명해주는 시스템으로, 수요자가 이용할 수 있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업을 모두 담은, 임신·출산·양육 지원의 종류와 지원별 이용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제공하는 안내서를 제작 및 공유함.

◆ 응급 이송체계 확립

산모와 신생아를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송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연락체계와 연계하고, 산모 전용 구급차와 닥터 헬기를 조속히 도입하며, 이송전담 의료팀을 운용하는 방안임. 산모전용 구급차와 닥터 헬기마련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가 매우 막대하므로, 병원전 응급분만의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대략적인 규모 파악을 통한 근거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취약계층과 취약지역 서비스 개선(no one behind left)

◆ 지역 격차 해소 및 공공인프라 구축

서비스 대상이 적고 방문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보건·의료서비스 취약지역의 공공 인프라 구축 방안으로 '찾아가는 보건소'를 제안하며, 시 단위사업으로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임신·출산·육아기 예방과 검진, 상담과 교육기능을 갖춘 이동식 보건소, 버스를 정례적으로 운영함.

◆ 분만 취약지역을 위한 지원

분만 취약지역에는 독일의 둘라(Doulas), 네덜란드 조산사 제도처럼 조산사가 찾아가서 출산 전후 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를 고려할 수 있음. 대체로 농어촌 지역은 분만 취약지역으로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우선되어야하나, 산후조리원의 설치 비용이 높고 농어촌 지역을 위해서는 본인의 집에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인력 파견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재 전국적으로 조산사 면허자는 약 9,500명 정도임.

◆ 건강지원 코디네이터 제도 마련

장애 아동이 있는 가정,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가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생애주기별 지원 및 복지서비스 연계가 가능하도록 건강지원 코디네이터 제도를 마련함.

◆ 장애 영유아를 위한 재활치료 지원 강화

재활치료 지원강화⁵⁾는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영유아기 장애아동 및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공공 재활의료기관 건립이 필요함. 이와 더불어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대상에서 제외된 권역의 기존 병원을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영유아기 장애아동 및 중증 장애아동에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 장애인 부모지원

장애를 지닌 임신부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지원을 위해 장애인의 일상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 제도를 활용하여 임신부 지원 및 영유아자녀 양육지원에 특화된 인력을 선정하고 교육하여 장애인 부모와 영유아자녀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

5) 국립중앙의료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함.

[https://www.ppm.or.kr/contents/contentsView.do?MENUID=A01020403\(2022. 10. 14. 인출\)](https://www.ppm.or.kr/contents/contentsView.do?MENUID=A01020403(2022. 10. 14. 인출))

려할 수 있음.

◆ 신생아 선별검사 희귀질환 품목 확대⁶⁾

전문가들은 ‘신생아 선별검사’ 50여종의 다양한 유전병이 포함됐지만 희귀질환 조기 발견을 위해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며, 치료제가 있는 희귀질환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6) 최근 보도자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함.

매경헬스(2022. 10. 28.). “치료할 기회라도” 4년째 제자리 ‘신생아 선별검사’
<http://www.mkhealth.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700>(2022. 10. 28. 인출).

I 참고 문헌 I

국립중앙의료원 홈페이지(2022. 10. 14. 인출).

<https://www.ppm.or.kr/contents/contentsView.do?MENUID=A01020403>

권미경·이정원·이재희·엄지원·윤소정·이소영·황선영(2022). 영유아 임신부 건강지원사업 사업 평가 및 발전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22-13.

대한민국정부(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매경헬스(2022. 10. 28.). “치료할 기회라도” 4년째 제자리 ‘신생아 선별검사’

<http://www.mkhealth.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700>

이소영·최인선(2021).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WHO(2018). Nurturing Care for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 Framework for Helping Children Survive and Thrive to Transform Health and Human Potential.

| 이슈페이퍼 2023-08 |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및 가정양육지원 연계 전략

최윤경

- 서론
 - 통합적 관점의 아동돌봄서비스 10대 사업 분석
 - 정책제언: 포괄적 돌봄 및 양육지원서비스 법적 토대 마련
- 참고문헌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및 가정양육지원 연계 전략*

최윤경 선임연구위원

◆◆ 요약 ◆◆

- 초 저출산 기조로 자녀양육가구와 아동 수의 감소로 육아 인프라 소멸 위기가 커지면서, 아동 돌봄의 운영 전략은 부모 대상 양육지원 및 아동의 발달지원 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한 재구조화 전략을 필요로 함.
-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은 이제 기관/학교 중심의 교육과 돌봄, 교육과정과 방과후돌봄의 통합적 운영에서 나아가, 아동돌봄에 관한 다부문 연계협력의 실천과 체계적 확장을 필요로 함.
 - 첫째, 아동의 생애주기 발달과 일상의 하루일과를 중심으로 돌봄의 공백과 격차, 과부족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이고 촘촘한 설계를 필요로 함. 특히 지역별 인프라 관리 하에 다부처 사업으로서의 통합적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구체적 이행이 요구됨.
 - 둘째, 현재와 같이 개별 가구에 대한 현금 및 시간 지원의 확대가 가시화 되는 상황에서 부모의 돌봄을 지원하는 '가정양육지원'의 전반(시간제보육, 아이돌봄서비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공동육아나눔터/돌봄공동체 등)을 어떻게 구성하고 자리매김 할 것인가의 과제가 대두되며, 이에 대한 연계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지역을 중심으로 자녀 출생 후 교육과 돌봄뿐 아니라 아동 보호 및 건강·의료 영역에 걸쳐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학습 및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함. 관련 인프라의 유지·관리와 제반 서비스 이용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학제·다부문의 촘촘한 연계협력을 아동권 보장의 관점에서 포괄적 돌봄서비스로 제시함.
-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과 '확대되는 양육지원체계'(서비스-현금-시간 지원)는 '가정양육지원 전반'의 운영과 관계 설정을 고려하여 광의의 연계 전략을 마련하도록 함.

* 본고의 내용은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기반 구축 연구」(최윤경·조숙인·이혜민·김정현·윤재석, 2022)와 「양육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양육지원법 제정 기초 연구」(최윤경·박은정·차선자·권혜진·박유경, 2022)에 기초하여 주요 내용을 구성함.

1 서론

- ‘통합적 아동돌봄’이란 아동의 생애주기에 따라 제공되는 개별적·분절적 돌봄서비스를 공급 관점의 제공자는 물론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면서 연속성 있게 연계되도록 그 효율성과 효과성을 개선한 아동돌봄 서비스 운영이라 할 수 있음.
 - ◆ 초기에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에 대한 논의가 돌봄서비스 제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공급 관점의 접근이었다면, 이제 수요자 부모와 아동의 관점에서 개별화된 다부문 서비스의 실질적인 연계와 맞춤형의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점을 고려하는 체계적 확장을 필요로 함.
 - ◆ 저출산으로 인해 아동수가 줄고, 유치원·어린이집과 학교 및 소아과/산부인과의 인프라 위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등을 경험하면서 늘어나는 아동의 경계선 행동과 장애위험에 대한 조기발견과 발달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커짐.
 - ◆ 이로 인해 관련 인프라의 소멸과 개별 기관/학교의 운영 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돌봄환경의 구축이 요구됨.
- 돌봄서비스의 통합적 운영 외에 수요자 아동의 관점에서 광의의 돌봄인 건강·의료 서비스와 아동보호 체계의 연계가 중요하게 요구됨.
 - 영아유기¹⁾와 아동학대의 증가를 통해 나타난 아동보호의 일상적·주기적 관리 체계의 수립은 아동권의 관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으로, 광의의 돌봄서비스 운영과 함께 그 연계방안을 고안하여 구축될 필요가 있음.
 - 과거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 후속조치로 초등 미취학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의 실시 등 학대 가능성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지속적인 아동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논의된 바 있음.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으로 미취학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 및 보편적 가정방문체계 확립의 필요성이 제안됨(최윤경 외, 2021: 241-242).
 - 임신·출산 단계에서부터 아동에 대한 보호와 돌봄의 운영 및 양육지원체계의 수립과 가정양육지원의 설계 등 유관부문 연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1) 2023년 6월 감사원 조사 결과,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출산 이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가 약 2천명이 넘고 이 중 일부 유기 및 학대/살해 사례들이 확인되었음.

가. 취학 전-후 아동돌봄의 통합적 접근에 대한 논의와 배경

-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의하면, 촘촘한 아동돌봄체계의 마련을 위해 비용 지원에서부터 보육서비스 및 출산 전-후 산모와 아동에 대한 건강관리와 아동보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내용 범위를 포괄하고, 교육·돌봄의 과제가 종합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 ◆ ‘(46)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부모급여의 신설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촘촘한 아동돌봄체계의 마련과 산모·아동의 건강관리 체계화,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책임 강화(가정형 보호 확대 및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구축)가 주요 과제로 제시되어 있음.
 - ◆ 현금 등의 지원체계에서부터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과 부모교육/시간제보육 등의 서비스 확대를 통한 가정양육지원의 강화, 0-5세 유보통합의 단계적 방안, 마을돌봄-학교돌봄의 사각지대 보충,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등을 세부 국정과제로 마련함(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22. 5: 87).
 - ◆ 돌봄정책의 효율성과 수요자 관점의 서비스 이용의 연속성과 다양한 수요의 충족, 그리고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교육·돌봄의 제 영역과 서비스 전달방식 및 운영상의 협력과 연계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음.
 - 이제 학교 안-팍, 가정 안-팍 및 기관과 지역 중심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의 제공은 어느 한 쪽의 책임 소재와 역할의 구분이라는 제도적 설계를 넘어설 필요가 있음. 돌봄의 사각지대와 양육의 어려움, 지역의 아동 규모와 인프라 특성, 이 과정에서 누적되는 돌봄과 교육 수혜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고려하여, 단절과 공백 없이 연속성 있게 제공되도록 하는 서비스 운영 설계를 필요로 함.
- 그러나 광의의 돌봄서비스의 제공과 운영, 부모돌봄을 지원하는 제반 서비스와 가정양육지원은 다부처 사업으로서 개별 법적근거를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른 한편 자녀양육가구가 체감하는 변화된 육아환경의 요구와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음.
 - ◆ 늘어나는 양육지원 전반과 서비스 공급의 확대가 개별 수요자 자녀양육가구에 충실히 전달 및 체감되지 않는 제한점이 지속됨.
 - ◆ 교육·보육·돌봄 및 가정양육지원의 제반 서비스 운영이 상호 분절되어 있음으로써

수요자 관점에서 관련 정보의 분리와 돌봄공백의 발생, 서비스 이용 및 지원 수혜 상의 중복과 과부족이 발생하고, 늘어나는 육아물가의 부담과 소비지출의 증가가 육아 지원 확대의 체감을 더디게 함.

- ◆ 이러한 분절성을 해소하기 위한 이행 전략은 더딘 가운데, 지자체별로 인구수 감소와 인프라 소멸의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내 유관서비스 간 구체적 협업 노력은 다수 진행되고 있음.

나. 통합의 개념

■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에서 ‘통합’은, 물리적 통합(integration)에서부터 연계협력(collaboration, cooperation)과 전이 및 연속성(transition, continuity), 적절한 배치(alignment)의 다양한 개념과 층위를 가짐.

- ◆ 통합 외에, 다부문 서비스 운영 방식과 지원 전달체계 간 연계·협력, 아동 연령별로 다른 서비스 이용과 지원 수혜에 대한 정보단절의 방지와 연속성의 보장, 원활한 전이 및 배치, 연계의 과정을 의미함. 즉 광의의 종적-횡적 연계와 통합의 접근을 포괄하는 것으로 봄.
- ◆ ‘아동’은 0~12세(출생후~초등학령기)의 연령을 범위로 하고, ‘돌봄’은 아동의 교육·보육·돌봄 및 가정내돌봄을 지원하는 양육지원서비스, 그리고 유기/학대로부터의 아동 보호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필수적인 건강·의료서비스를 일부 포함하는 넓은 범위로 볼 필요가 있음.
 - 여기에서 (협의의) ‘돌봄서비스’는 공적기반을 중심으로 아동의 생애주기별로 신생아기 건강관리에서부터 영유아기 유치원과 어린이집(교육과정 및 방과후돌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 이용, 초등학령기 아동 대상의 아이돌봄서비스, 학교돌봄과 마을돌봄 및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를 포함함.
 - 개별 돌봄서비스와 사업에 대한 현황 등 공급자 관점의 논의보다, 아동돌봄의 보편적 이용 기반과 행·재정의 효율을 담보하는 정책 설계 및 수요자 부모와 아동의 관점에서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탐색’과 ‘이용’, ‘연계’가 가능한 지점을 중심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2 통합적 관점의 아동돌봄서비스 10대 사업 분석

가. 아동돌봄서비스 10대 사업 분석

- 우선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연계성 분석을 위해, 대표적인 아동돌봄 서비스 10개 사업을 법·제도적 운영 현황과 이용자 부모 및 아동의 측면에서 서비스의 통합적 이용 가능성과 연속성을 분석함.
 - ◆ 복지·교육사업은 일반적으로 생애주기를 걸쳐서 제공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동돌봄 서비스를 신생아·영아기, 영유아기, 아동기로 구분할 수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주요 아동돌봄서비스를 정리하면 <표 1>과 같음²⁾.
 - ◆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설계상, ①목적의 통합성, ②관점의 통합성, ③기능의 통합성, ④대상의 통합성을 살펴보고, 돌봄서비스 운영의 접근성과 상용성, 효과성, 연계성을 주요 지표로 하여 비교 분석을 실시함.
- 신생아·영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국가필수예방접종(NIP)’, ‘공동육아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있으며, 영유아기 아동에 대한 서비스는 ‘보육’, ‘유아교육’, ‘시간제보육’이 있음. 취학연령 아동기 서비스로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을 들 수 있음.
 - ◆ 위 돌봄서비스는 개별 법령에 따라 전달체계, 제공기관 그리고 대상연령이 정해지고 있음.
 - ◆ 대부분의 아동돌봄서비스는 보편복지의 차원에서 제공되고 있으나 서비스별로 일부 이용자 자부담 규정을 두고 선별적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있음. 즉 보편적 지원의 돌봄서비스 운영 토대 위에 선별 지원의 설계를 가짐.
- 10개 아동돌봄서비스 정책 사업에 대한 주요 지표별(수혜도, 접근성, 상용성, 만족도, 연계성) 분석 결과, 대상연령 대비 이용률이 가장 높은 사업은 ‘국가필수예방접종(NIP)’이라 할 수 있으며, (공식적인 이용자 통계가 발표되지 않지만) 거의 모든 아동이 1회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됨.

2) 아동기를 생애주기별로 신생아기(만 2개월 이하), 영유아기(0~만5세), 아동기(만6~12세)로 나눌 수 있음.

- ◆ 상대적으로 가장 이용률이 낮은 서비스는 ‘다함께돌봄’으로 나타남. 이는 사업시행 연혁이 짧고 아직 서비스 제공 시설수가 적기 때문으로 분석됨.
 - 그러나 최근 자료를 통해 초등 방과후돌봄에서 다함께돌봄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시설 확충과 인프라 확대의 추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사업비 규모는 일반적으로 영유아기 서비스 규모가 크고 신생아·영영아기와 아동기 서비스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음. 그러나 아동기의 경우 학교 의무교육이 병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 ◆ ‘공동육아 지원사업’의 경우 서비스 제공 연혁과 사업대상 연령 범위 등에 비해 시설 개소수, 사업비, 이용률 등이 적거나 낮음. 가정양육지원의 설계와 방향성 등 양육지원 서비스 운영의 관점에서 분석과 자리매김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함.

〈표 1〉 생애주기별 아동돌봄서비스 일반현황(2021년도 말 기준)

생애 주기	서비스명	전달체계	지원대상·인구수(명)	개소수(개소)	이용자(명/가구)	이용률(%)	사업비(백만원)
신생아·영아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제공기관	만 2월 이하 (253,946)	837	125,852	49.5	113,442
	국가필수예방접종(NIP)	보건소	만 13세 이하 (5,628,465)	6,770	--	94.2	234,042
	공동육아 지원사업	건가다가센터 등	18세 이하 (7,976,210)	350	1,463	7.2	8,548
영유아기	아이돌봄 지원사업	건가다가센터	만 12세 이하 (5,159,364)	227	71,789	1.4	251,493
	보육서비스	육아종합지원센터	만 6세 이하 (2,387,763)	33,246	1,184,726	49.6	7,987,446
	유아교육	유아교육진흥원	만 3-6세 (1,660,756)	8,660	582,572	35.1	2,551,400
	시간제보육 지원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	6-36개월 미만 (707,726)	857	10,434	1.5	21,570
아동기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	아동권리보장원	초·중교생 (4,012,706)	4,264	106,510	2.7	187,238
	다함께돌봄 지원사업	시·군·구	초교생 (2,664,278)	694	12,190	0.46	38,450
	초등돌봄교실 지원사업	지방교육청	초교생 (2,664,278)	6,120	256,213	9.6	231,894

주: 1. 공동육아지원사업(공동육아나눔터)과 아이돌봄지원사업(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자는 가구수임.
 2. 국가필수예방접종(NIP) 이용자 정부 통계는 3종이상 접종자를 이용자로 조사하고 이용률을 산출함.
 3. 개별 자료 출처의 상세정보는 최윤경 외(2022) 보고서 3장을 참조 바람.
 자료: 최윤경 외(2022).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기반 구축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59.

나. 주요 아동돌봄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고찰

- 아동돌봄의 주요 정책/사업을 아동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연속성과 접근성, 연계협력의 관점에서 정책 설계를 전체적으로 조감한 결과, 효율성 측면에서 분석대상 10대 사업 모두 연계성 또는 통합성의 절대적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돌봄 정책/사업의 통합성과 연계협력의 관점에서 제도적 설계와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NIP)’이 여타 아동돌봄서비스 보다 접근성, 상용성, 만족도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아교육’도 수혜도, 접근성, 연계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 반면,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돌봄, 공동육아나눔터 등 대표적인 가정양육지원 서비스는 대부분의 지표에서 낮게 나타남. 다만 아이돌봄서비스의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 서비스 간 이용 연계를 고려한 사업 설계가 중요하게 작동함을 알 수 있음.
 - ◆ 돌봄인프라 확충의 확장세 하에서도, 전반적으로 초등 취학 이후 아동기의 돌봄서비스(방과후돌봄)는 비교적 제도시행 연혁이 짧고 사업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접근성, 상용성이 현 시점 낮은 것으로 분석됨.
 - ◆ 다만, 아동기 돌봄서비스(초등돌봄,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는 제도 설계의 특성 면에서는 여타 서비스와의 연계성이 비교대상 서비스 중에서 높은 것으로 분석됨. 이로써 상기 비교분석 지표를 넘어서는 초등 방과후돌봄 서비스 간 연계협력의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동시에 그래야 하는 실행기반의 구축을 필요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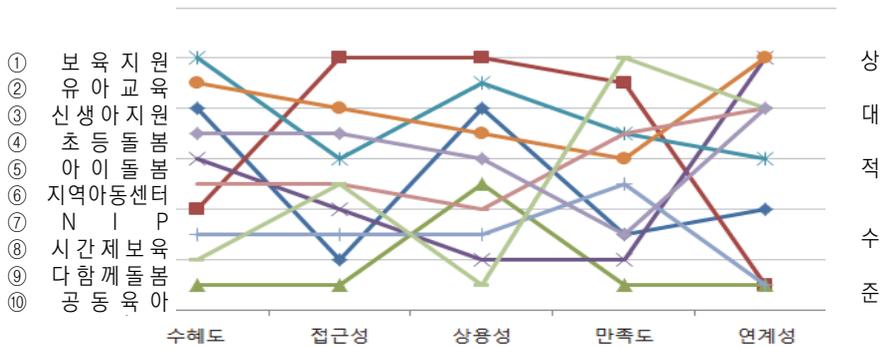
다. 통합적 아동돌봄 지원정책 비교분석

- 주요 아동돌봄 지원정책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기반, 행·재정의 투입과 이에 대한 만족도 및 효과성, 이용의 연계성과 형평성 등 제도운영 전반에 대해 비교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 이를 통해 어느 연령주기의 서비스 정책 설계에서 어떤 지점이 수요자 입장의 통합적 관점에서 가장 큰 격차와 공백 또는 어려움의 사각지대를 보이는지 살펴봄.

■ 분석지표를 그림으로 나타낸 캔버스(canvas)를 전체적으로 조망한 결과, 첫째, 전체 사업비를 지원연령 인구수로 나눈 사업비를 의미하는 ‘수혜도’는 보육, 유아교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상대적 수준이 높게 나타났음.

◆ 이는 전체사업비 규모가 큰 반면 대상연령 인구수 구간이 비교적 작아 1인당 소요사업비가 많이 산출되기 때문으로 분석됨. 그러나 시간제보육, 다함께돌봄, 공동육아는 전체 사업비 규모는 작은 반면 대상연령 구간은 커 아동 1인당 수혜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아동돌봄 지원정책 분석 캔버스(Canvas)



주 1. 그래프는 대상서비스의 지표별 상대적 수준을 나타내며, 세로축의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높은 수준을 나타냄.
 2. 세로축 지표별 상대적 수준은 차이를 반영할 뿐 크기를 반영하지 않음.
 3. 가로축 지표 간에는 배타적으로 설정되며 지표 간 수준은 반영하지 않음.

자료: 최윤경 외(2022).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기반 구축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91.

■ 둘째, 대상서비스를 누구나 시간적, 공간적, 제도적 거리에 관계없이 원하는 때에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분석한 ‘접근성’의 경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NIP), 유아교육, 초 등돌봄, 보육 등이 높게 나타남. 이는 서비스에 대한 부모들의 인지도가 높고, 시설수, 보편적 지원정책 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 반면, 신생아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공동육아, 시간제보육 등은 인지도도 낮을 뿐만 아니라 시설수가 작고 서비스 이용 시 본인 부담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기인하여 본 지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공동육아와 시간제보육 등 ‘가정양육지원’으로 분류되는 서비스 운영의 지표 상 접근성의 취약을 보여줌.

- 셋째, 대상서비스가 연중 평일 또는 휴일에 제공되는지 여부와 대상연령 아동의 이용률 등을 분석한 ‘상용성’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NIP), 보육, 신생아 지원, 유아교육 순으로 나타남.
 - ◆ 이 서비스들은 제도설계 단계부터 운영시간 또는 이용시간을 부모 근무시간 등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의 편의성이 높고 상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됨. 그러나 다함께돌봄,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보육 등은 이용시간 및 소득수준 등 대상자 선별과 서비스 이용료 자부담 등으로 이용률이 낮아 상용성이 여타 서비스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넷째, 서비스 이용에 따른 ‘만족도’를 비교해 보면, 다함께돌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NIP), 보육, 지역아동센터, 유아교육의 순으로 나타남.
 - ◆ 이들 서비스는 국가가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할 아동돌봄서비스라는 점, 그리고 여타 서비스에 비해 부모의 의존도가 큰 서비스로 오랫동안 서비스의 양과 질에 대한 개선 사업이 병행되고 투자비를 늘려 왔던 점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
 - ◆ 특히, 다함께돌봄의 경우 앞서 분석한대로 그동안 영유아기 종일 돌봄서비스 제공 위주의 정책에서 초등 학령기 방과후 돌봄 공백 해소 정책이 신설되면서 이에 대한 부모들의 기대감이 높은 이용 만족도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됨.
 - ◆ 반면,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은 사업이 시행된 이래로 이렇다 할 제도적 개선이 없었고(2021년 분석자료 기준), 소득수준에 따라 부모 자부담분이 존재하며 서비스제공 인력에 대한 전문성 제고 등이 약하다는 인식에서 만족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 생애초기 신생아기와 영영아기 서비스 지원과 가정양육지원의 범주 하의 서비스 운영 및 수급에 대한 분석과 이를 반영한 체계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음.
 - ◆ 한편 초등돌봄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부모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이는 조사방식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겠음. 여타 서비스와 비교한 부모만족도는 신청제한 조건 등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고려됨에 따라 다소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 다섯째, 각 서비스 간 연계 또는 통합추진 여부를 알아 본 ‘연계성’은 아이돌봄, 유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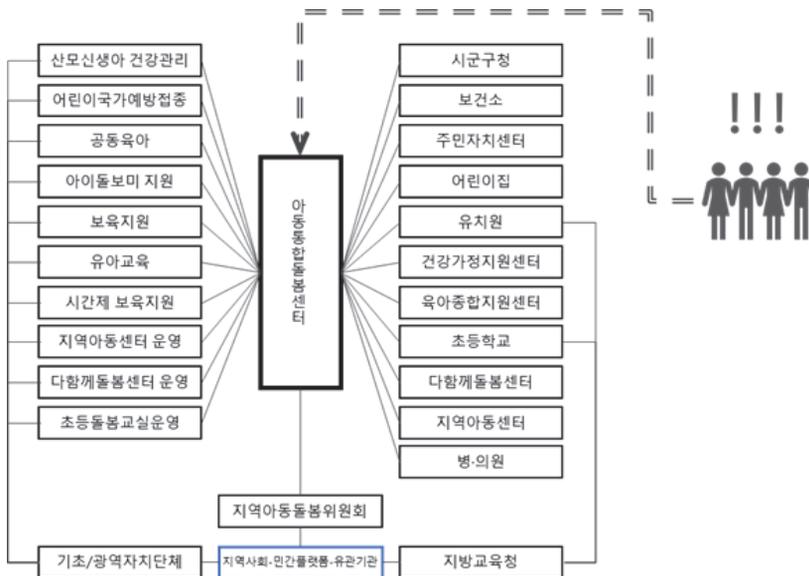
교육, 방과후돌봄(초등돌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순으로 조사되었음.

- ◆ 아이돌봄서비스는 여타 서비스와의 연계성이 비교적 높고, 유아교육의 경우 방과후 과정,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등 연계와 전이가 설계되어 있음. 초등 방과후돌봄서비스는 학교와 마을, 학교 밖 서비스 간 연계가 추진되고 있어 여타 서비스보다는 연계성이 높다고 분석됨.
 - ◆ 그러나 어린이국가예방접종(NIP)은 높은 접근성과 상용성, 만족도에 견주어 건강·보건 정책의 특성 상 돌봄서비스 간 연계추진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 또한 시간제보육, 공동육아나눔터 등은 이용 부모로부터 요구도가 높고, 연계 추진 대상 서비스도 많은 것으로 분석되나 아직까지 사업규모가 작고 서비스의 내용(contents)이 비교적 단순할 뿐만 아니라 제도적 뒷받침 또한 부족해 서비스 간 연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 이상의 비교분석을 토대로 신생아기·영아기, 영유아기의 돌봄서비스는 비교적 연혁이 길고 사업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공동육아를 제외하면 제도적 접근성과 상용성 및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 특히, ‘어린이국가예방접종’ 소요 사업비는 여타 서비스에 비해 작은 반면 접근성, 상용성, 만족도의 상대적 수준은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체불가 서비스로써 입지를 확고히 굳힌 것으로 판단됨.
 - ◆ 이에 비해 아동기 돌봄서비스는 비교적 제도시행 연혁이 짧고 사업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접근성, 상용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 다만, 아동기 돌봄서비스(초등돌봄,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는 제도 설계의 특성 상 여타 서비스와의 연계성이 비교대상 서비스 중에서는 높은 것으로 분석됨. 이 서비스는 제도설계 단계에서 의도적으로 서비스 간 또는 기타 지역자원 간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성 측면에서 분석대상 10대 사업 모두 연계성 또는 통합성의 절대적 수준은 낮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와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해 보임. 그래야 수요자 관점의 접근성 확대와 수혜의 체감, 돌봄공백의 방지와 이용의 연속성 제고가 실행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아동돌봄 지원정책의 추진 연혁은 영유아기 서비스가 먼저 발달하였고 이후 영아기(신생아기), 아동기 순으로 발달해 왔음. 이에 따라 제도시행·도입 시기가 다른 점이 기본적으로 아동돌봄서비스 간 통합적 연계를 고려하지 못하고 분절적으로 사업이 시행된 원인의 하나로 분석됨. 또한 돌봄 서비스와 건강·의료 서비스 간 연계가 체계화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제고도 주요 과제로 요구됨.
- 앞서 살펴본 통합돌봄의 요건 중 첫째 ‘목적(기능)의 통합성’ 측면에서 아동돌봄 지원 정책은 ‘아동지원’과 ‘부모지원’이라는 두 개의 큰 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 ‘아동지원 서비스’의 통합성은 아동을 중심으로 시간적·공간적 이동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정신적 발달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별 돌봄서비스 간 목적과 기능적 측면에서 통합적 연계가 분절 없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분석적 접근임.
 - ◆ ‘부모중심 서비스’의 통합성은 부모를 중심으로 부모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돌봄서비스가 부모의 심리지원 또는 사회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개별 서비스간 목적과 기능이 통합적으로 이행 또는 연계가 분절 없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접근임.
 -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주요 돌봄서비스는 목적의 통합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개별 서비스별 사업목적에 맞추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두 번째로 ‘관점의 통합성’은 아이를 중심으로 돌봄환경체계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적 접근임.
 - ◆ 현행 제도하에서 학교와 학교 밖의 돌봄시설 간 연대 또는 육아지원기관 간 연대 등은 매우 미진한 수준으로 분석됨. 마을단위 육아자원의 통합 및 육아네트워크의 조성 등 돌봄지원 사업의 법률적 제도화가 필요해 보임.
- 세 번째로 ‘대상의 통합성’은 돌봄대상 아동이 시설단위 또는 서비스 단위가 아닌 기능적 연대 또는 보완적 연대 등을 통해 원스톱(one stop) 전달체계가 운영되는지에 대한 접근임.
- 현행 각 돌봄정책은 시설 간 연계 또는 정보공유에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실행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실행의 어려움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인식 또한 매우 민감함. 법률적 제도의 마련과 아동돌봄 플랫폼(platform)의 구축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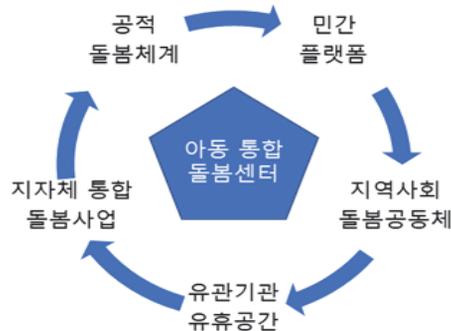
- ◆ [그림 2]는 다부처 사업으로 분절된 다양한 서비스 운영에 대한 정보와 이용 가능성 및 실제 서비스 매칭에 이르는 전 과정이 수요자 부모와 아동의 관점에서 지역내 아동 통합돌봄센터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제안하였음.
- 관련 제반 정보를 한자리에서 파악하고 돌봄 정보와 인프라를 살펴볼 수 있는 지역 아동돌봄위원회의 운영을 필요로 함.

[그림 2] 지역단위 통합돌봄 환경 거버넌스



자료: 최윤경 외(2022).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기반 구축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296.

[그림 3] 지역 통합돌봄 환경 선순환 생태계



자료: 최윤경 외(2022).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기반 구축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295.

- ◆ [그림 3]에서는 공-사 영역의 다양한 돌봄 운영과 교육-돌봄의 서비스 내용 영역 간 연계가 유기적으로 선순환하는 지역단위 돌봄생태계의 연계·협력을 제한함.

라. 수요자 부모의 돌봄서비스 이용 평가

- 한편 아동의 연령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돌봄서비스 이용의 접근성과 연계를 파악하기 위해, 수요자 부모를 대상으로 주요 돌봄서비스 정책/사업 13개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 및 만족도와 향후 이용의향, 필요 시 이용가능성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 정보의 충분성(6개 항목)에 대해 질문함³⁾.

- 이를 통해 돌봄정책 제도에 대한 분석 결과와의 정합성을 살펴봄.

〈표 2〉 주요 돌봄서비스에 대한 평가

단위: %, 점

구분	인지도	이용률	만족도	이용의향	접근성	정보 충분성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79.7	42.2	65.4	3.8	27.3	46.3	44.3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91.3	90.4	86.3	4.2	84.7	88.7	77.5
어린이집 이용	94.8	83.7	78.5	4.0	57.4	73.0	65.5
유치원 이용	90.0	53.3	73.8	3.9	58.0	65.0	58.9
시간제 보육	72.1	16.9	65.4	3.8	38.6	33.0	31.6
민간 육아도우미	55.4	17.6	54.0	3.6	26.2	26.4	23.1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56.5	13.9	54.3	3.6	32.5	21.7	21.3
육아/마을 공동체 돌봄	39.3	13.0	57.6	3.6	28.9	22.9	22.8
초등돌봄교실	76.5	25.4	71.0	3.9	55.0	43.8	43.5
초등방과후과정	83.3	37.8	71.7	3.9	71.0	55.8	49.0
지역아동센터	64.0	12.4	59.5	3.6	30.8	27.0	22.7
다함께돌봄센터	38.0	15.8	49.6	3.5	32.7	26.5	23.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43.3	13.5	58.6	3.7	44.1	31.6	24.0

주: '접근성'의 경우, 필요시 쉽게 이용가능-이용 어려움-잘모름 중, '쉽게 이용가능'에 대한 응답률임.

'정보 충분성'의 경우, 충분-불충분-잘모름 중, '충분함'에 대한 응답률임.

자료: 최윤경 외(2022).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기반 구축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217.

3) 앞서 정책분석에서는 가용한 현황 자료에 기초하여 10개 주요 돌봄사업을 분석하였음. 여기에서는 부모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13개의 유관사업에 대한 주요 지표를 살펴봄.

■ 아동의 생애주기별 돌봄서비스 이용의 연계 및 통합성

- ◆ 앞서 돌봄 정책사업(10개)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보편적 이용기반으로서의 전국 인프라를 시설/기관을 중심으로 갖춘 ‘국가 예방접종’과 ‘어린이집·유치원’의 경우, 높은 인지도와 이용률, 이용 만족도와 향후 이용의향(이용 수요)이 높은 수준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그러나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과정’의 경우(모든 응답자 대상으로 분석 시) 높은 인지도와 이용의향, 만족도에 비해 이용가능성(접근성)과 관련 정보의 충분성이 다소 떨어지고, 실제 이용률은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⁴⁾.
- ◆ ‘민간 육아도우미’는 이용의향과 이용가능성(접근성), 정보의 충분함이 20%대로 유사하게 나타난 반면,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수요자의 이용의향에 비해 실제 이용률과 이용가능성(접근성), 관련 정보의 충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 한편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의 경우 접근성과 관련 정보, 이용 만족도가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즉 이용의향(이용수요) 대비 접근성과 정보의 충분함, 실제 이용만족도가 양호하게 나타남에 따라 산후돌봄서비스의 자리매김이 수요자 부모의 평가를 통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앞서 사업현황 자료에 기초한 분석과는 다르게 해석됨.
- ◆ ‘시간제보육’의 경우는 이용의향(이용수요) 대비 접근성과 정보 충분성이 비교적 양호하지만, 실제 이용률이 이용의향 대비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 ‘육아/마을 공동체’의 경우 전반적으로 인지도가 40% 미만으로 낮지만, 이용의향 대비 접근성과 정보 충분성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 이용의향 대비 접근성과 관련 정보, 실제 이용률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각기 다른 인프라 기반과 이용률 및 이용수요를 갖는 돌봄서비스들 간에 개별 돌봄서비스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노력 외에 지역 내 유관 돌봄서비스 이용 간 매칭과 연계, 정보 제공의 온-오프라인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음.

- 특히 접근성과 상용성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 가정양육지원 서비스(시간제보육,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돌봄공동체 등)의 운영과 제공이 틈새돌봄과 돌봄

4) 분석대상이 모든 응답자로, 서비스 이용 대상이 되는 연령별 분석 시 다소 달라질 수 있음.

공백의 어려움과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지원체계로서, 연계협력의 전략 하에 운영 될 필요가 있음.

3

정책제언: 포괄적 돌봄 및 양육지원서비스 법적 토대 마련

가. 아동생애주기의 연속성을 고려한 광의의 포괄적 돌봄 연계 전략

- 저출생으로 인한 아동수의 감소로 지역의 인프라 위기와 인구축소가 가져오는 변화 전반에 대한 대응과 적응을 위한 뉴노멀의 전략이 필요함(최윤경 외, 2021).
 - ◆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에 대한 접근은 아동권 보장의 관점 하에서 돌봄과 보호, 건강·의료 서비스 전반이 단절과 공백없이 이어지도록 하며, 또한 아동 발달지원 서비스와 부모 돌봄을 지원하는 가정양육지원과의 원활한 연계 및 자리매김도 고려해야 함.
 - ◆ 일하는+일하지 않는 부모 대상의 양육지원을 포괄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역량을 지원하는 교육·보육·돌봄의 과정과 (아동 유기와 학대로부터) 아동보호 및 건강·의료 체계를 긴밀히 연계하는 포괄적 지원 체계로의 통합적 운영 전략이 요구됨.
 -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거점-분소 인프라의 구축과 돌봄인력의 양성과 공급의 매칭, 서비스 질관리와 비용지원의 체계가 필요하며, 통합적 운영 기반의 마련을 위해 법적 토대와 전달체계의 수립, 온라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 ◆ 취학 전-후 교육·돌봄의 과정이 더 이상 기관-학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머물지 않으므로, 교육·돌봄 서비스의 온-오프라인 운영과 변화된 교육·돌봄 환경(학교안팎, 기관안팎, 가정안팎)에서의 지원을 연계하는 실천방안을 구체화 함.
- 교육·보육·돌봄 및 보호, 건강·의료의 연속성 및 통합적 접근과 가정양육지원체계와의 연계를 반영한 광의의 통합적 운영을 마련함.
 - ◆ 현재 아동학대 의무신고 및 예방 체계와 실제 아동학대 발굴과 모니터링/신고에 관한 체계는 실행단계에서 주요 주체 간에 간극이 있으므로 이를 육아환경 내에서 상시 가동되고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보육·돌봄 및 보호 체계의 연동이 반영된

양육지원체계로 전환이 필요함.

- ◆ 경계선행동 및 장애위험 아동의 증가에 따른 생애초기 조기중재와 상담/치료 지원의 연계 지점을 지역별로 체계화 함.

나. 양육지원서비스의 통합적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

- 가정내돌봄을 지원하는 양육지원서비스의 내용은 유사하나 그 근거법과 전달체계, 신청 및 이용경로가 각기 다름. 양육지원서비스는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상황을 고려하여 접근성, 이용가능성, 신뢰성, 충족성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음.
 - ◆ 부모교육, 양육상담, 정보제공, 돌봄지원 등이 분절되지 않고 통합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함. 양육지원서비스를 ① 보편형, ② 거점형, ③ 방문형, ④ 선택형의 4가지로 유형화 하는 다양한 접근을 이행함(최윤경·박은정 외, 2022).
- 자녀양육 부모에 대한 현금 및 시간 지원의 확대와 함께(가칭 「양육지원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지원 확대에 따른 양육지원서비스 확대 및 고도화 방안을 마련함(최윤경·박은정 외, 2022).
 - ◆ 현금지원이 확대되는 시점에 국가에서 제공하는 양육지원서비스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부모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적인 법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양육지원기본법의 목적성을 명확히 하고, 양육지원서비스의 대상 연령을 영아뿐만 아니라 유아, 초등 저학년까지 확장함. 양육주체로서 국가-지자체-부모의 책무성을 명시함. 아동의 돌봄서비스 이용에 대한 법적 기반(legal entitlement) 마련에 대비한 대응이 필요함.
 - 부모의 자녀양육의 권리(부모권, 돌봄권)를 지원하고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양육역량을 강화하는 지원 체계를 강화함. 구체적으로 가정양육지원 서비스의 체계화는 다음의 의제를 담도록 함.
 - 전달체계의 지역적 격차와 서비스 수혜의 지역 격차, 접근성 차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서비스 질 관리에 대한 책임주체를 명시함.
 - 양육지원서비스가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아동권의 관점을 법·제도적 기반의 마련과 운영에 반영함.

- 서비스 이용 및 접근 경로에서 통합적 접근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양육지원서비스가 제도화에 그치지 않고 육아현장에서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양육지원서비스를 운영하도록 하며, 이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가능성, 만족도 체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함(예: 양육지원서비스 체감지수 등을 개발).

■ 기관보육과 가정내돌봄, 부모양육(부모됨)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아동의 발달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 및 회복과 중재의 대응체계를 구축함.

- ◆ 교육·돌봄 서비스 운영의 변화와 유관분야 서비스와의 연계를 활성화 하는 지자체/지역사회 중심의 양육지원체계를 구축함. 개별돌봄서비스의 제공과 부모가 자유롭게 다른 형태의 개별돌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돌봄 및 다양한 지원 간 서비스 연계를 활성화 함.

■ 아동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담은 돌봄서비스 연계 전략이도록 함.

- ◆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 개선: 아동학대와 영아유기 등 생애초기부터 아동보호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아동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안전망이 가동하는 돌봄체계를 구축함.
- ◆ 이를 위해 출생 단계에서부터 출생통보제의 시행, 그리고 미취학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 및 보편적 가정방문 체계를 확립하고, (접근성과 상용성, 만족도가 높은) 영유아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아동발달에 대한) 병원기록 등의 관리체계와 미취학아동 관련 정보 체계, 아동보호 및 학대 관련 정보를 발굴·연계 함.

- 아동보호체계를 위해 아동 가정방문 지속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보편적 아동복지 지원과 연결되는 지점들을 확보함

■ 지역사회 중심의 연속성 있는 취학 전-후 방과후돌봄 체계 가동

- ◆ 노동시간 유연화에 따른 유연한 시간제보육/돌봄서비스(정기, 일시, 긴급 등)의 확충이 필요하며,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한 틈새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함.
- ◆ 학교중심의 교육·돌봄체계와 지자체/마을 중심의 돌봄인프라 정비와 관련 법적 기반의 마련이 필요함.
- ◆ 수요자 중심의 돌봄의 안전성과 연속성, 요구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가용한 돌봄인프라

라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연계·협력을 이행함.

■ 아동보호의 구심점으로써 학교기능 강화와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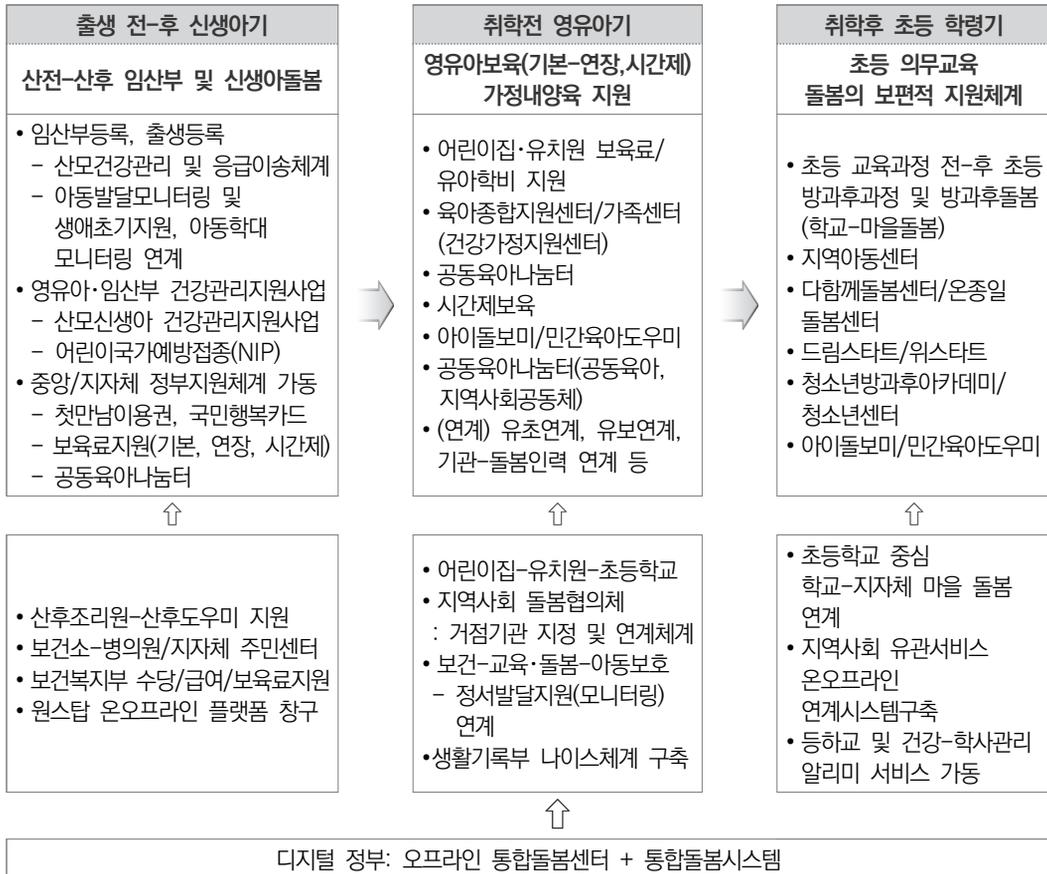
- ◆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 강화, 장기결석 현황을 학교-교육청-교육부가 공유하고 학대위기 학생이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부처간 지속 협력이 요구됨.
- 위기아동 발굴시스템 개선의 중기 과제로 아동복지서비스의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분절성을 해소하고, 과학기술(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맞춤형 아동 돌봄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함.

다. 아동돌봄의 거버넌스 체계

■ 다부처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령별 돌봄 정책/사업이 수요자 부모와 아동에게 원할히 전달되도록 하는 운영체계(거버넌스)의 마련이 필요함.

- ◆ 통합돌봄의 운영 기반 조성 전에는 개별 수요자가 다양한 돌봄 정책과 서비스별로 정보를 탐색하고 이용을 하였다면, 통합적 운영 기반 하에서는 온-오프라인의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관련 정보의 제공과 서비스 연계가 동일한 채널을 통해 파악, 진행 되도록 함.
- ◆ 다양한 돌봄 및 아동보호, 건강의료, 가정양육지원 서비스의 탐색과 대기신청, 이용 및 비용 결제가 임신육아종합포털과 같은 디지털정부 온라인시스템과 연동되어 생애 초기 출생등록과 함께 이루어지도록 함.
- ◆ 이를 위해 산부 등록과 함께 산전-산후 돌봄과 아동 출생 후 출생등록과 함께 생애주기 관점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단계적으로 진행함.

[그림 4] 출생 전후 아동 생애주기별 돌봄지원 사업 거버넌스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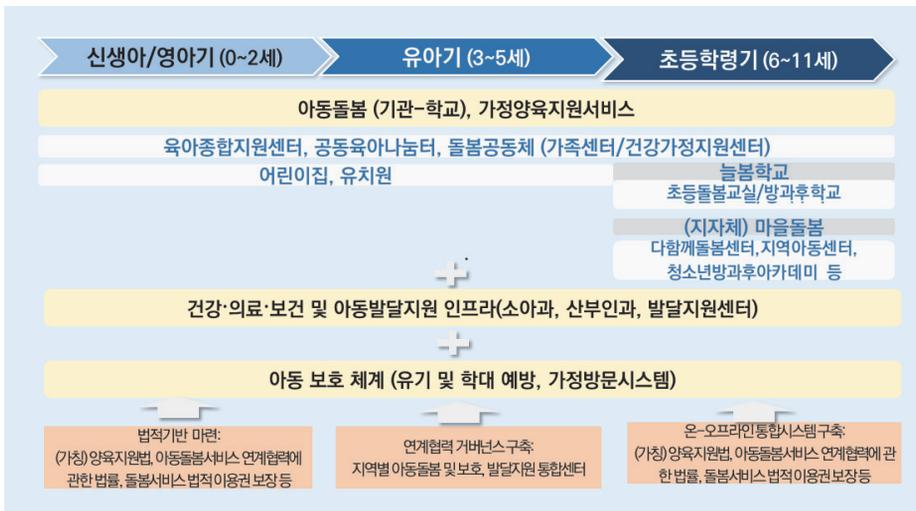
자료: 최윤경 외(2022).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기반 구축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294.

- 아동통합센터가 중앙-시·도-시·군·구 조직을 갖추고, 중앙 및 시·도 센터는 지원기관으로, 시·군·구 센터는 해당 지역의 아동돌봄을 직접 운영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예: 지역단위 전담운영체제-지역센터, [그림 2] 참조).
 - ◆ 이를 위해 지역별 교육청과 지자체 및 민관 협력체계를 아우르는 (가칭) 지역통합돌봄위원회와 관련 조직체계의 마련이 요구됨.
-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의 연속성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연계협력이 중요하지만, 지역별로 가용한 민·관 영역의 자원을 포괄하여 지자체별로 통합돌봄사업과 민간플랫폼(예: 네이버 맵, 민간육아도우미 매칭 플랫폼), 지역사회 돌봄공동체와 유관기관/

유휴공간(학교시설, 도서관, 주민센터 등)에 대한 정보 및 접근성을 포괄하여 구축함 ([그림 3] 참조).

- 지역의 유휴공간과 시설 및 인력(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유관사업의 공간과 인력 운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체제와 인력 전반에 있어 유연하고 광범위한 운영이 필요함(예: 빈 교실 공간에서 지역사회 시간제돌봄 및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그림 5] 지역단위 광의의 포괄적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및 연계협력



주: 최윤경 외(2022) 2개 연구내용에 기초하여 본 그림을 작성함.

라. 결어

- 본 고를 통해 아동권의 보장 및 아동의 관점에서, 그리고 부모의 돌봄권과 일가정양립을 위한 실질적 정책기반을 위해 아동의 출생이후 생애주기와 하루일과에서 돌봄과 보호의 공백과 격차,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연속성과 전이의 관점을 실행하는 방안을 살펴봄.

- 이를 위해 취학 전-후 아동 연령별로 교육·보육·돌봄 서비스 운영의 분절적인 현황에 대해, 각 개별 정책/사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통합적 운영 즉 연계협력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였음.

- ◆ 그 결과, 변화하는 돌봄 서비스에의 요구 및 아동 돌봄이 포괄하는 다양한 요구와 필요를 고려하여, 협의의 돌봄서비스 운영과 공급에 국한되지 않고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합적 돌봄의 실질적 기반에 대해 논의함. 광의의 통합적 돌봄 운영의 필요성과 유관 서비스 운영 전반의 연계로 확장되어 접근할 필요성을 살펴봄.
- ◆ 이를 아동의 임신·출산 단계에서부터 시작하여 취학 전-후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종합적 접근으로 칭하고, 구체적으로 아동 보호 및 건강·의료 체계와 아동발달 지원 체계를 포괄함. 기관/학교 중심의 돌봄서비스 뿐만 아니라 부모 직접돌봄을 지원하는 가정양육지원 체계의 연계를 포괄하는 접근을 제안함.
- ◆ 기관/학교의 교육·보육과 가정내돌봄, 부모양육 간의 관계 설정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환경 조성의 실행을 필요로 함.

I 참고 문헌 I

최윤경·김근진·정익중·최영·송신영(2021). 포스트코로나 시대 양육지원체계 재구조화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최윤경·박은정·차선자·권혜진·박유경(2022). 양육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양육지원법 제정 기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최윤경·조숙인·이혜민·김정현·윤재석(2022).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기반 구축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22. 5).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 이슈페이퍼 2023-09 |

양육실태와 정책 수요를 고려한 영아 양육지원 전략 및 정책 과제

이정원

1. 배경
 2. 영아 양육 실태
 3. 결론 및 정책제언
- 참고문헌

양육실태와 정책 수요를 고려한 영아 양육지원 전략 및 정책 과제*

이정원 선임연구위원

◆◆ 요약 ◆◆

- 최근 들어 영아기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정책 지원이 확대되고 있음. 한국의 영아 양육지원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정책 기조는 국가 수준의 유관 기본계획의 기조 변화와 맞물려 변화해 왔으며, 2010년대 후반 이후 특히 '영아기 집중투자' 및 영아에 대한 가정 양육 지원 확대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
- 영아에 대한 양육형태의 다양성 보장, 형평성 제고, 가정양육 지원의 확대 경향 속에서 최근 '서비스' 위주에서 '현금' 및 '시간' 지원이 크게 확대강화되고 있음. 이로 인해 영아에 대한 가정양육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요 변화에 따른 유관 정책지원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가정양육, 기관보육 등 영아가구가 희망하는 양육형태에 따른 다양한 선택지를 보장하기 위해 정책 범주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수요자 욕구별 충분한 정책지원을 위해 욕구별 차등지원의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영아의 세부연령별 주된 정책지원의 전략 차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1

배경

가. 영아기에 대한 정책적 관심 증가

■ 영아자녀 양육지원에 대한 정책적 차별화 경향

- ◆ 최근 들어 생애 초기에 대한 재정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영아기 자녀에 대한 양육지원이 핵심 과제로 부상함.

* 본고의 내용은 육아정책연구소의 2023년 기본과제인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이정원·유해미·조혜주·김윤환·신윤정·한인애)」 연구를 기반으로 작성됨.

- 이러한 기조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영아기 집중투자'가 강조되기 시작한 이래(대한민국정부, 2020: 77-78)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함.
- 윤석열 정부에서는 영아기를 타겟화한 대표적인 정책 지원으로 '부모급여'를 2023년부터 도입함(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 1. 4).

나. 영아 양육지원 정책 기조의 변화와 영향

■ 가정양육 지원 강화와 현금 및 시간지원의 부상

- ◆ 2009년 이전의 영아 양육지원은 여성 경제활동 지원 목적으로 유아와 동일하게 기관서비스 이용 접근성 강화 위주로 확대됨. 이후 제1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의 보완·수정 계획인 '아이사랑플랜'을 통해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2009년 0~1세아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미이용 영아를 위한 가정양육수당이 도입됨.
 - 한편 2012~2018년까지 영아에 대한 가정 내 돌봄 활성화, 시설보육과 가정 내 보육의 형평성 제고, 가구특성별 맞춤형 지원 등을 방향으로 가정양육수당의 지원 연령 확대, 육아휴직급여의 상향 조정,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도입, 영아 맞춤형 보육제도 도입, 영아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연령 대상 확대 등이 추진됨.
- ◆ 특히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영아가구의 소득보장과 현금지원의 필요성에 따른 '영아 가구 집중투자'가 강조되면서, 최근 영아 양육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도 기존의 시설 보육 등 서비스 위주에서 영아수당, 부모급여 도입 등 현금 지원과 육아휴직 등 시간지원이 강화되고 있음.
 - 그간 가정양육수당 도입 후 지원 대상 연령 및 지급액을 확대하였으나, 0세 기준 최대 20만원으로 현금 지원은 동일 연령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액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음. 이를 고려하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2024년 기준 0세 100만원, 1세는 50만원이 지급되는 부모급여, 0세에게 일시금으로 200만원이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은 매우 파격적인 수준의 현금지원이라 할 수 있음.
- ◆ 이는 영아자녀의 양육 방식에 대한 부모의 욕구가 기관 서비스 위주인 유아에 비해 다양하며(정미라·김경숙·이방실, 2013: 185), 이에 따라 기관 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된 유아에 비해 선호하는 양육 방식에 따른 선택지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지

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반영된 것임.

■ 영아 양육을 위한 현금 및 시간지원 확대의 영향과 대응

- ◆ 단, 가정양육 지원 강화의 수단으로 현금, 시간지원 위주의 확대·강화는 ‘서비스’ 영역에 대한 수요 축소 및 이로 인한 인프라의 위축을 우려하게 하는 면이 있음.
- 이에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기조 및 정책도구의 변화로 인해 나타날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본고에서는 현재 영아 양육가구의 양육 실태와 정책 지원에 대한 수요 변화를 예측하여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음.

2 영아 양육 실태

- 0~2세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 1,021명을 대상으로 영아 양육 실태 및 정책 요구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가. 영아의 주양육자와 부모 양육 실태

■ 영아의 연령, 부모 취업 상황에 따라 주양육자의 차이가 있음

- ◆ 영아의 낮시간 주양육자(사람 또는 기관)는 ‘어린이집’(45.5%)과 엄마 (43.3%)가 대부분이며 조부모 또는 친인척(6.3%)의 비중은 크지 않음.
- 만0세 때는 엄마(75.4%)가 주로 돌보나, 만1세와 만2세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나 만0세 때 주로 가정양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53.5%) 비맞벌이인 경우(35.3%)에 비해 어린이집 이용률이 높게 나타남.
- 영아가구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 이용률, 즉 모의 돌봄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영아의 연령이 어릴수록 부모가 가정양육을 위해 외벌이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가정양육을 하는(주양육자가 엄마인) 가구의 소득이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단, 영아의 가정양육 시 현금지원 수준이 높아질 경우 저소득 가구일수록 가정양육을 선택할 가능성도 높음을 유의해야 함.

〈표 1〉 영아의 주양육자

단위: %(명)

구분	엄마	아빠	조부모 또는 친인척	정부지원 아이 돌보미	민간 육아 도우미	이웃, 지인	어린이집	계(수)
전체	43.8	1.3	6.3	0.8	2.3	0.1	45.5	100.0(1,021)
막내 자녀 나이								
만0세	75.4	2.2	8.2	1.3	1.9	0.0	11.0	100.0(317)
만1세	44.0	1.5	6.7	0.6	2.1	0.0	45.2	100.0(341)
만2세	16.0	0.3	4.1	0.6	2.8	0.3	76.0	100.0(363)
X ² (df)				307.0(12)***				
맞벌이 여부								
맞벌이임	30.0	0.9	10.6	1.2	3.6	0.2	53.5	100.0(576)
맞벌이 아님	61.6	1.8	0.7	0.2	0.4	0.0	35.3	100.0(445)
X ² (df)				131.7(6)***				
월평균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54.5	2.2	1.1	0.5	2.2	0.0	39.5	100.0(365)
400만원~700만원 미만	39.0	0.9	8.1	0.7	1.2	0.0	50.1	100.0(433)
700만원 이상	35.4	0.4	11.2	1.3	4.5	0.4	46.6	100.0(223)
X ² (df)				63.0(12)***				

자료: 이정원 외(2023).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 215-216.

*** p < .001.

■ 보조 양육자 유무

- ◆ 영아 가구의 절반 이상이 가족 및 혈연에게 보조적인 양육 도움을 받고 있음
 - 보조양육자가 없는 경우는 40.2%이며, 보조양육자가 있는 경우는 ‘가족 및 혈연’이 보조양육자라는 응답이 55.3%로 가장 높음 비중을 차지함.
 - 영아의 연령이 어릴수록, 맞벌이인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보조양육자가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2〉 영아의 보조양육자(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가족 및 혈연	정부지원 아이 돌보미	민간 육아 도우미	이웃, 지인	기타	도움을 주는 사람 없음	(수)
전체	55.3	5.2	1.9	2.0	0.7	40.2	(1,021)
막내 자녀 나이							
만0세	61.5	7.3	3.5	0.9	0.3	33.1	(317)
만1세	54.5	5.9	1.5	1.5	0.9	41.1	(341)
만2세	50.7	2.8	0.8	3.3	0.8	45.5	(363)
맞벌이 여부							
맞벌이임	65.3	5.9	2.3	1.7	0.7	30.4	(576)
맞벌이 아님	42.5	4.3	1.3	2.2	0.7	52.8	(445)
월평균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47.9	5.2	0.8	1.1	1.4	47.1	(365)
400만원~700만원 미만	58.0	4.6	2.3	1.6	0.2	38.3	(433)
700만원 이상	62.3	6.3	2.7	4.0	0.4	32.3	(223)

주: 중복 응답으로 합계가 100%를 초과함.

자료: 이정원 외(2023).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217.

◆ 영아 양육자(주/부)에 대한 지출 비용 부담

- 비용 지출이 없다는 응답을 제외하고 '10만원 미만'(19.3%), '10-30만원 미만'(13.9%), '30-50만원 미만'(11.5%) 순임.
- 맞벌이인 경우, 보조양육자가 있을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영아의 주된 혹은 보조양육자에 대해 지출하는 비용이 높아지는 경향임.
- 영아의 연령은 낮을수록 비용지출이 없는 비율이 높는데, 이는 영아가 어릴수록 주양육자가 '엄마'인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사료됨.

〈표 3〉 영아의 양육자/기관에 지불하는 월평균 비용

단위: %(명)

구분	비용 지출 없음	10 만원 미만	10~ 30만원 미만	30~ 50만원 미만	50~ 70만원 미만	70~ 100만 원 미만	100 만원 이상	계(수)
전체	36.9	19.3	13.9	11.5	6.9	4.2	7.3	100.0(1,021)
막내 자녀 나이								
만0세	51.7	10.4	9.1	10.4	5.4	6.3	6.6	100.0(317)
만1세	39.9	17.6	12.3	11.4	8.2	3.5	7.0	100.0(341)
만2세	21.2	28.7	19.6	12.4	6.9	3.0	8.3	100.0(363)
X ² (df)				96.1(12)***				
보조양육자 유무								
있음	31.8	17.3	13.1	13.6	8.2	6.1	10.0	100.0(611)
없음	44.6	22.2	15.1	8.3	4.9	1.5	3.4	100.0(410)
X ² (df)				51.3(6)***				
맞벌이 여부								
맞벌이임	28.6	17.0	14.8	12.5	9.7	5.9	11.5	100.0(576)
맞벌이 아님	47.6	22.2	12.8	10.1	3.1	2.0	2.0	100.0(445)
X ² (df)				85.3(6)***				
월평균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42.7	23.8	13.7	11.2	4.1	3.3	1.1	100.0(365)
400만원~700만원 미만	35.1	19.2	15.7	11.1	7.4	3.7	7.9	100.0(433)
700만원 이상	30.9	12.1	10.8	12.6	10.3	6.7	16.6	100.0(223)
X ² (df)				76.6(12)***				

자료: 이정원 외(2023).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 219-220.

*** p < .001.

- 양육자와 기관에 지불하는 비용 부담은 부담스럽다 29.8%, 부담스럽지 않다 16.8%로 응답됨.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증가하는 경향임.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부담스럽지 않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어린이집보다는 가정 내 양육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에 부담을 더 느끼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음.

〈표 4〉 양육자/기관에 지불하는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정도

단위: %(명)

구분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부담스럽지 않다	보통이다	부담스럽다	매우 부담스럽다	계(수)	평균(점)
전체	8.2	16.8	35.7	29.8	9.5	100.0(644)	3.2
막내 자녀 나이							
만0세	4.6	18.3	26.1	37.9	13.1	100.0(153)	3.4
만1세	8.3	14.6	36.6	29.8	10.7	100.0(205)	3.2
만2세	10.1	17.5	40.2	25.5	6.6	100.0(286)	3.0
X^2 (df)/F			20.2(8)*				5.8**
맞벌이 여부							
맞벌이임	7.3	14.8	33.3	33.3	11.2	100.0(411)	3.3
맞벌이 아님	9.9	20.2	39.9	23.6	6.4	100.0(233)	3.0
X^2 (df)/t			13.8(4)**				3.4**
어린이집 이용 여부							
이용함	9.4	17.4	39.7	26.3	7.1	100.0(448)	3.0
이용하지 않음	5.6	15.3	26.5	37.8	14.8	100.0(196)	3.4
X^2 (df)/t			23.8(4)***				-3.9***

주: 평균은 '매우 부담스럽다=1'~'전혀 부담스럽지 않다=5'로 평정한 결과를 역코딩하여 산출함. 점수가 높을수록 부담스러움을 의미함.

자료: 이정원 외(2023).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221.

* $p < .05$, ** $p < .01$, *** $p < .001$.

■ 부모 직접돌봄 실태

◆ 어머니 위주의 직접 돌봄 경향이 발견됨.

- 주중 평일 기준 영아 부모가 주중 평일에 자녀를 직접 돌보는 시간은 모의 경우 평균 9.2시간, 부의 경우 3.0시간으로 어머니가 돌보는 시간이 3배 이상임.
- 주말 기준 부모의 영아 돌봄 시간은 모 12.7시간, 부 8.3시간으로 어머니가 많았지만, 주중일 때보다는 차이가 감소함. 단, 주중·주말을 불문하고 전반적으로 여성의 자녀돌봄시간이 남성보다 긴 경향이 나타남.
- 단, 영아가 어릴수록, 맞벌이인 경우, 모의 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즉, 외벌이 가구 또는 어머니의 근로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어머니 위주의 양육 경향이 두드러짐.

[그림 1] 주중 평일 영아 부모의 자녀 직접 돌봄 시간
주중 평일 영아 부모의 자녀를 직접 돌보는 시간



자료: 이정원 외(2023).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222.

<표 5> 부의 자녀 직접 돌봄 시간_주중 평일

단위: %(명), 시간

구분	1시간 이하	1시간 초과 ~ 2시간 이하	2시간 초과 ~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계(수)	평균(시간)
전체	27.0	22.6	30.2	20.2	100.0(1,000)	3.0
막내 자녀 나이						
만0세	23.1	21.5	30.4	25.0	100.0(312)	3.4
만1세	26.9	23.3	28.4	21.5	100.0(335)	3.0
만2세	30.6	22.9	31.7	14.7	100.0(353)	2.7
χ^2 (df)/F		13.5(6)*				6.6**(a)
맞벌이 여부						
맞벌이임	22.1	22.3	31.7	23.9	100.0(565)	3.4
맞벌이 아님	33.3	23.0	28.3	15.4	100.0(435)	2.6
χ^2 (df)/t		21.2(3)***				4.6***
월평균 모의 근로 소득						
근로소득 없음	34.4	21.6	30.8	13.2	100.0(250)	2.5
300만원 미만	23.4	22.9	31.1	22.6	100.0(354)	3.2
300~500만원 미만	25.5	24.3	30.3	19.9	100.0(251)	3.0
500만원 이상	25.5	20.7	26.9	26.9	100.0(145)	3.5
χ^2 (df)/F		18.7(9)*				5.4**(a)

자료: 이정원 외(2023).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 224-225.

* p < .05, ** p < .01, *** p < .001.

나.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실태

■ 어린이집 이용 특성

- ◆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수요는 적지 않은 수준임.
 - 영아 가구 조사에서 하루 기준으로 최소 3시간 이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은 54.4%이며,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맞벌이인 경우, 어머니의 근로시간이 길 경우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높게 나타남.
 - 영아 연령별로는 만0세아는 16.1%에 불과하나 만2세아는 86.8%로 대다수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으며, 맞벌이 가구는 62.3%로 외벌이 가구(44.3%)에 비해 어린이집을 많이 이용하며, 또한 어머니가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73.7%로 높음.

〈표 6〉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여부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계(수)
전체	54.5	45.5	100.0(1,021)
막내 자녀 나이			
만0세	16.1	83.9	100.0(317)
만1세	55.7	44.3	100.0(341)
만2세	86.8	13.2	100.0(363)
X ² (df)		341.3(2)***	
맞벌이 여부			
맞벌이임	62.3	37.7	100.0(576)
맞벌이 아님	44.3	55.7	100.0(445)
X ² (df)		33.0(1)***	
본인 1주일 평균 근로시간			
미취업/미학업/휴직/휴학	38.7	61.3	100.0(524)
40시간 미만	68.7	31.3	100.0(265)
40시간 이상	73.7	26.3	100.0(232)
X ² (df)		108.5(2)***	

자료: 이정원 외(2023).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 228-229.

*** p < .001.

- ◆ 어린이집 이용 영아는 9시 등원, 16시 30분 하원하여 평균 7시간 24분 어린이집을 이용하며, 대부분(88.1%)의 영아가구가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단, 어머니의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어린이집 총 이용시간도 8시간 18분으로 가장 길었으나, ‘(어린이집을)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16.4%로 상대적으로 높아 장시간 기관 이용이 필요한 실수요 가구에서 돌봄 공백이 우려됨. 이에 주 40시간 종일근로 이상의 장시간 근로 가구에 대한 공백 없는 보육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임.

〈표 7〉 영아의 어린이집 등하원 시각 및 이용시간

단위: %(명)

등원시각				하원시각				평균 시각	이용시간	계(수)
9:00 이전	9:00~9:30 이전	9:30 이후	평균 시각	16:00 이전	16:00~16:30 이전	16:30~17:30 이전	17:30 이후			
30.0	36.9	33.1	9시	24.3	33.6	20.5	21.6	16시 30분	7시간 24분	100.0 (556)

자료: 이정원 외(2023).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 231-234.

〈표 8〉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충분성 여부

단위: %(명), 시분

구분	어린이집 총이용시간	충분성 여부		계(수)
		그렇다	아니다	
전체	7시간 24분	88.1	11.9	100.0(556)
막내 자녀 나이				
만0세	7시간 36분	84.3	15.7	100.0(51)
만1세	7시간 24분	87.4	12.6	100.0(190)
만2세	7시간 24분	89.2	10.8	100.0(315)
χ^2 (df)		1.2(2)		
맞벌이 여부				
맞벌이임	7시간 54분	87.7	12.3	100.0(359)
맞벌이 아님	6시간 36분	88.8	11.2	100.0(197)
χ^2 (df)		0.1(1)		
본인 1주일 평균 근로시간				
미취업/미학업/휴직/휴학	6시간 36분	87.7	12.3	100.0(203)
40시간 미만	7시간 36분	92.9	7.1	100.0(182)
40시간 이상	8시간 18분	83.6	16.4	100.0(171)
χ^2 (df)		7.2(2)*		

자료: 이정원 외(2023).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235.

* $p < .05$.

■ 영아의 연장보육 이용

- ◆ 어린이집 이용가구 중에서 연장보육(16:00~19:30)을 이용하는 비율은 44.1%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들은 장시간 보육에 대한 실수요층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임.
 - 연장보육 이용률은 자녀연령별로는 0세아(54.9%), 맞벌이 가구(58.2%), 모(母)가 규칙적으로 근로하는 경우(63.3%),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65.5%) 높게 나타남.
 - 모(母)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는 300만원 미만에 비해 연장보육 이용률이 낮게 나타남. 이들 가구는 어린이집 기본보육만 이용하고 연장보육 대신에 다른 서비스를 병행 이용하는 것으로 짐작됨.
 - 즉, 어머니가 취업 중이며, 특히 근로시간이 긴 경우처럼 장시간 보육에 대한 수요가 있는 영아가구 중에서도 개별돌봄서비스 등 비용 부담이 높은 대체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서 특히 어린이집 연장보육서비스 이용률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임.

〈표 8〉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용 여부

단위: %(명)

구분	그렇다	아니다	계(수)
전체	44.1	55.9	100.0(556)
막내 자녀 나이			
만0세	54.9	45.1	100.0(51)
만1세	45.3	54.7	100.0(190)
만2세	41.6	58.4	100.0(315)
X ² (df)		3.3(2)	
맞벌이 여부			
맞벌이임	58.2	41.8	100.0(359)
맞벌이 아님	18.3	81.7	100.0(197)
X ² (df)		82.3(1)***	
본인 근로형태			
규칙적으로 출퇴근	63.3	36.7	100.0(264)
불규칙적으로 출퇴근/재택근무/교대근무	48.3	51.7	100.0(89)
미취업/미학업/휴직/휴학	17.2	82.8	100.0(203)
X ² (df)		99.4(2)***	
본인 1주일 평균 근로시간			
미취업/미학업/휴직/휴학	17.2	82.8	100.0(203)

구분	그렇다	아니다	계(수)
40시간 미만	53.8	46.2	100.0(182)
40시간 이상	65.5	34.5	100.0(171)
X ² (df)	98.2(2)***		
월평균 본인 근로 소득			
근로소득 없음	19.1	80.9	100.0(110)
300만원 미만	52.5	47.5	100.0(219)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47.6	52.4	100.0(147)
500만원 이상	48.8	51.3	100.0(80)
X ² (df)	35.6(3)***		

자료: 이정원 외(2023).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 236-237.

*** p < .001.

- ◆ 가구소득 기준에 따른 자부담을 하게 될 경우 연장보육 이용 의향은 46.9%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현재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용가구를 대상으로 연장보육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자부담 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46.9%만이 이용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자부담 연장보육 이용 의향은 모(母)의 근로소득이 300만원 이하 이거나 월평균 가구소득이 700만원 이하인 가구에서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나타냄.

〈표 9〉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시 연장보육 이용 의향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없다	없다	전혀 없다 + 없다	보통	있다	매우 있다	매우 있다+ 있다	계(수)	평균 (점)
전체	10.2	15.9	26.1	26.9	35.5	11.4	46.9	100.0(245)	3.2
맞벌이 여부									
맞벌이임	10.5	15.3	25.8	26.3	35.9	12.0	47.8	100.0(209)	3.2
맞벌이 아님	8.3	19.4	27.8	30.6	33.3	8.3	41.7	100.0(36)	3.1
X ² (df)/t	1.1(4)(b)								0.5
월평균 본인 근로 소득									
근로소득없음	14.3	28.6	42.9	28.6	19.0	9.5	28.6	100.0(21)	2.8
300만원미만	14.8	17.4	32.2	25.2	31.3	11.3	42.6	100.0(115)	3.1
300~500만원 미만	2.9	11.4	14.3	28.6	47.1	10.0	57.1	100.0(70)	3.5
500만원 이상	7.7	12.8	20.5	28.2	35.9	15.4	51.3	100.0(39)	3.4

구분	전혀 없다	없다	전혀 없다 + 없다	보통	있다	매우 있다	매우 있다+ 있다	계(수)	평균 (점)
X ² (df)/F	15.9(12)(b)								3.3
월평균 가구 소득									
400만원미만	6.8	25.0	31.8	25.0	38.6	4.5	43.2	100.0(44)	3.1
400~700만원 미만	12.9	16.5	29.5	28.1	30.2	12.2	42.4	100.0(139)	3.1
700만원이상	6.5	8.1	14.5	25.8	45.2	14.5	59.7	100.0(62)	3.5
X ² (df)/F	12.5(8)								3.1

주: 평균은 '전혀 없다=1점'~'매우 있다=5점'으로 평정하여 산출함.
 자료: 이정원 외(2023).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239.

■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시작 시기 및 이용 희망 시기

- ◆ 영아는 실제 희망했던 시기보다 이르게 어린이집 이용을 시작하고 있음.
 - 어린이집 이용 영아의 최초 이용 시작 시기는 평균 14.9개월이며, 11개월 이하부터 이용을 시작한 경우가 28.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맞벌이 가구 영아는 11개월 미만에 이용을 시작한 경우가 34.5%로 가장 많고 평균 시작시기가 13.8개월로, 맞벌이가 아닌 경우에 비해 약 3.2개월 빨리 이용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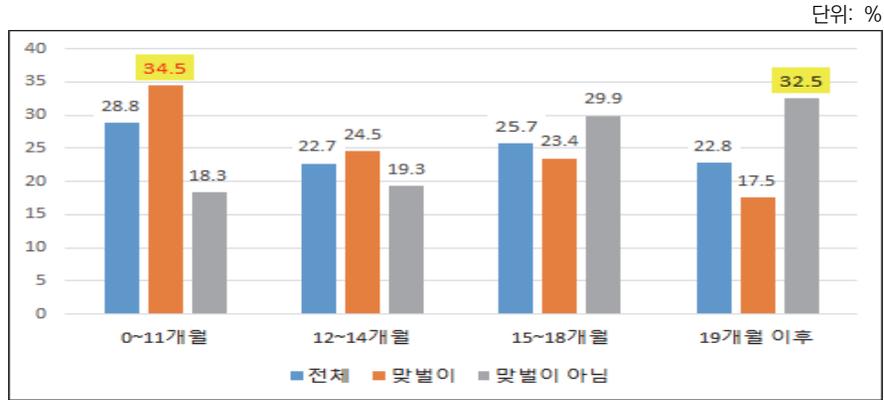
〈표 10〉 현재 어린이집 이용 영아의 최초 이용 시작 시기

단위: %(명), 개월

구분	0개월 ~ 11개월	12개월 ~ 14개월	15개월 ~ 18개월	19개월 이후	계(수)	평균 (개월)	
전체	28.8	22.7	25.7	22.8	100.0(556)	14.9	
맞벌이 여부							
맞벌이임	34.5	24.5	23.4	17.5	100.0(359)	13.8	
맞벌이 아님	18.3	19.3	29.9	32.5	100.0(197)	17.0	
X ² (df)/t	27.8(3)***						-6.1***

자료: 이정원 외(2023).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240.
 *** p < .001.

[그림 2] 영아의 어린이집 최초 이용시기(맞벌이 여부별)



주: <표 10>을 그림으로 구성함.

- ◆ 어린이집 이용 영아 중 절반 정도는 '희망하는 시기보다 빨리 이용'한 경우였음(50.7%).
 - 희망하는 시기보다 어린이집을 빨리 이용한 비율은 맞벌이 가구(52.4%), 주당 근로 시간이 40시간 이상인 모(母) 가구(60.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희망 시기와 실제 어린이집 최초 이용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희망했던 입소 시기는 평균 21.9개월로 나타남.

〈표 11〉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한 시기와 희망 시기의 일치 여부

단위: %(명)

구분	희망시기와 일치함	희망시기보다 늦게 이용함	희망시기보다 빨리 이용함	계(수)
전체	40.6	8.6	50.7	100.0(556)
맞벌이 여부				
맞벌이임	39.8	7.8	52.4	100.0(359)
맞벌이 아님	42.1	10.2	47.7	100.0(197)
X ² (df)		1.5(2)		
본인 1주일 평균 근로시간				
미취업/미학업/휴직/휴학	41.9	10.8	47.3	100.0(203)
40시간 미만	47.8	6.6	45.6	100.0(182)
40시간 이상	31.6	8.2	60.2	100.0(171)
X ² (df)		12.3(4)*		

자료: 이정원 외(2023).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 240-241.

* $p < .05$.

- ◆ 희망하는 시기에 어린이집에 입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이른 입소를 결정함.
- 어린이집을 최초로 이용한 시기가 희망하는 시기보다 빠르다고 응답한 경우 가장 큰 이유는 ‘희망하는 시기에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을 것 같아서’(39.0%)로 나타남.

〈표 12〉 희망시기보다 빨리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한 이유

단위: %(명)

희망하는 시기에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을 것 같아서	육아휴직 후 예상보다 빨리 복귀하게 되어서	집에서 돌볼 수 없게 되어서 (주양육자의 취업, 질환 등)	기타	계(수)
39.0	21.6	36.9	2.5	100.0(282)

자료: 이정원 외(2023).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242.

다. 미이용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계획

- ◆ 어린이집 미이용 영아도 대부분 어린이집 이용 계획이 있음
- 현재 어린이집과 이외 학원 및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 중 73.7%는 향후 기관¹⁾을 보낼 계획이 있으며, 계획하는 이용 시기는 평균 21.6개월, 이용을 계획하는 기관 유형은 어린이집이 96.1%로 대부분임.

라. 영아 양육의 애로사항과 정책 지원 요구

■ 영아 양육의 애로사항

- ◆ 부모의 육체적·정신적 부담과 양육비용이 가장 큰 애로사항
- 영아 양육시 부모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2순위까지 답하도록 하여 살펴 본 결과, 1순위 기준 ‘영아 양육에서의 육체적·정신적 힘들(부담)’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며 (33.0%), 이외 ‘아이를 믿고 맡길 기관이나 사람을 구하기 어려움’(23.5%), ‘비용 부담’(19.2%) 등의 순으로 응답됨. 1, 2순위를 합한 결과에서도 동일한 응답 경향을 보임.
- 취업한 부모의 경우 전반적인 ‘일-자녀양육 병행’의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휴직·퇴

1) 기관은 최소 하루 3시간 이상 이용하는 놀이학원, 영어학원, 선교원, 체능단 등 기준임.

사로 인한 가구소득 감소, 경력단절 등 장기적으로 가구소득을 감소시키는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3〉 영아 자녀 양육의 어려움

단위: %(명)

구분	1순위	1+2순위
아이를 믿고 맡길 기관이나 사람을 구하기 어려움	23.5	36.4
아이를 키우는데 비용이 많이 듦	19.2	35.1
아이를 키우는데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들	33.0	54.0
영아기 발달에 맞는 양육 방법, 지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	0.9	5.8
휴직·퇴사 등으로 가구 소득이 줄어 듦	8.8	22.2
휴직·퇴사 등으로 경력단절, 승진 누락 등 불이익이 있음	2.9	10.7
일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움	10.3	26.6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하는 것 같음	1.4	8.9
기타	-	0.3
계(수)	100.0(1,021)	(1,021)

자료: 이정원 외(2023).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254.

- ◆ 자녀를 키우면서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 중 경력 상의 불이익은 주로 어머니가 겪은 것으로 나타남.
- 어머니 중 44.5%가 자녀양육으로 인한 경력상의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표 14〉 자녀를 키우면서 경력상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여부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계
엄마(본인)	44.5	55.5	100.0(1,021)
아빠(배우자)	9.5	90.5	100.0(1,000)

자료: 이정원 외(2023).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256.

■ 영아 가구의 정책 요구

- ◆ 영아 부모들은 영아 양육을 위해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으로 ‘현금지원’과 ‘시간 지원’을 꼽고 있음.
- 영아를 양육하는데 있어 현재 가장 필요한 정책을 필요한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

답하도록 한 결과,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현금 지원’이 25.9%로 가장 많이 응답됨.

- 이외 ‘일하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지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재택근무 등)’(22.0%), ‘일정기간 근로를 중단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시간지원(육아휴직)’(21.1%), ‘부모를 대신해 장시간 돌봐줄 수 있는 기관보육 서비스 지원’(13.3%), ‘필요할 때 단시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시간제 보육,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등)’(11.4%), ‘부모를 대신해 가정에서 아이를 장시간 돌봐줄 수 있는 서비스 지원(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6.4%) 순으로 응답됨.
- 즉, 영아 부모들은 우선적으로 영아 양육기간 중 감소하는 소득과 증가하는 양육비 부담에 대처하기 위한 ‘현금지원’에 요구도가 크며, 영아의 돌봄에는 부모 본인의 직접 돌봄을 선호하여 이를 위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대리 돌봄서비스를 희망하더라도 외부 인력이 개인의 집으로 방문하는 서비스 보다는 가급적 믿을 수 있는 ‘기관 보육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임. 이는 영아의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비교적 일관된 경향이었음²⁾.

〈표 15〉 자녀 양육을 위해 현재 가장 필요한 정책

단위: %(명)

구분	부모를 대신해 장시간 돌봐줄 수 있는 기관 보육 서비스 지원	부모 대신 아이를 가정에서 장시간 돌봐줄 수 있는 서비스 지원	필요할 때 단시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일정 기간 근로를 중단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시간지원	일하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지원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현금 지원	계(수)
1순위	13.3	6.4	11.4	21.1	22.0	25.9	100.0(1,021)
1+2순위	24.7	13.5	24.2	36.4	49.5	51.7	(1,021)

자료: 이정원 외(2023).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277.

■ 영아 가구 특성별 요구

- ◆ 영아 가구의 맞벌이 여부 등 취업특성, 가구소득, 영아의 연령 등 가구특성별로 가장

2) 연령 등 제특성별 응답결과는 이정원 외(2023)의 p. 261 〈표 V-2-3〉 영아 양육 서비스 이용 경험 만족도를 참조할 것.

- 필요로 하는 정책 지원에 차이를 보임.
- ◆ 맞벌이 여부 및 부모의 취업특성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짐.
 - 맞벌이 가구인 경우 현금 지원 보다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지원 요구(‘일정기간 근로를 중단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시간지원’에 대한 요구 21.1%, ‘일하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지원’ 22.0%)가 높으며, 서비스 지원 중에서는 장시간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기관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가(14.9%)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단시간 서비스’(10.6%)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반면 외벌이 가구는 현금 지원에 대한 요구(34.2%)가 가장 높고, 서비스 지원 중 ‘필요할 때 단시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에 대한 요구(12.4%)가 높게 나타남.
 - 어머니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기준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에 차이를 보임. 어머니가 40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일정기간 근로를 중단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시간지원’에 대한 요구(28.4%)를 비롯해 ‘일하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지원’(24.1%) 등 시간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남. 반면, 주 40시간 미만 근로하거나 미취업 등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는 ‘현금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음.
 - ◆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현금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남.
 - ◆ 영아의 연령은 낮을수록 육아휴직 등 ‘근로를 중단하고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집중적인) 시간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은 반면, ‘일하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지원’은 영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요구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2세의 경우 ‘기관보육서비스’ 지원 요구가 0-1세 보다 다소 높은 결과를 보임.

〈표 16〉 자녀 양육을 위해 현재 가장 필요한 정책 -1순위

단위: %(명)

구분	장시간 대리돌봄을 위한 기관 보육 서비스 지원	장시간 대리돌봄을 위한 가정 내 개별돌봄 서비스 지원	필요할 때 단시간 이용할 수 있는 대리돌봄 서비스 지원	일정 기간 근로를 중단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시간지원	일하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지원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현금 지원	계(수)
전체	13.3	6.4	11.4	21.1	22.0	25.9	100.0(1,021)
막내 자녀 나이							
만0세	12.9	6.9	11.7	23.7	20.2	24.6	100.0(317)
만1세	12.0	6.7	11.4	21.7	21.7	26.4	100.0(341)
만2세	14.9	5.5	11.0	18.2	24.0	26.4	100.0(363)
$\chi^2(df)$			5.8(10)				
맞벌이 여부							
맞벌이임	14.9	6.9	10.6	24.8	23.3	19.4	100.0(576)
맞벌이 아님	11.2	5.6	12.4	16.2	20.4	34.2	100.0(445)
$\chi^2(df)$			34.8(5)***				
본인(모) 1주일 평균 근로시간							
미취업/미학업/ 휴직/휴학	11.5	6.9	10.7	19.1	21.2	30.7	100.0(524)
40시간 미만	14.7	6.4	11.3	18.5	21.9	27.2	100.0(265)
40시간 이상	15.9	5.2	12.9	28.4	24.1	13.4	100.0(232)
$\chi^2(df)$			31.9(10)***				
월평균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11.8	4.9	11.2	16.4	20.5	35.1	100.0(365)
400만원~700만원 미만	13.2	7.2	11.5	23.6	23.1	21.5	100.0(433)
700만원 이상	16.1	7.2	11.2	23.8	22.4	19.3	100.0(223)
$\chi^2(df)$			29.1(10)**				

자료: 이정원 외(2023).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 278-279.

** p < .01, *** p < .001.

3

결론 및 정책제언

- 영아가구의 양육실태 및 정책 요구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방향 및 세부 정책 방안을 제시함.

가. 결론: 영아 양육지원 수요의 특성

- ◆ 영아 가구의 특성별로 양육지원에 대한 요구가 다양함
 -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 근로형태 등 영아가구의 특성별 애로사항 및 필요한 양육 지원 욕구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함.
- ◆ 영아 연령별 필요로 하는 양육지원 정책에 차이가 있음
 - 영아양육을 위해 부모들이 '지금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영아의 세부연령 별로 다소 차이를 보임.
 - 연령별 필요로 하는 지원 요구를 종합하면 0~1세 시기에는 '부모의 직접 돌봄'에 대한 수요가 높고, 직접 돌봄을 위한 근로 형태의 변화로 인한 가구소득의 감소와 양육비 지출 부담이 가중됨에 따른 '현금 지원'에 대한 요구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영아 보육 실수요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 영아의 가정 내 양육 선호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취업, 가구소득, 근로환경 등의 조건에 따라 가정 내 양육이 불가능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실수요층이 상당 수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영아보육서비스 실수요층의 우선적인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지원 필요함.

나.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방향성 제언

- 영아가구 특성에 따른 양육지원 욕구 대응을 위한 선택지 다양성·지원충분성 확보
 -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양육 자원(서비스, 현금, 시간)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어떠한 지원을 선택하더라도 선택한 양육 방식에 도움이 되는 층

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육구 대응의 충분성(충실성)’을 통해 영아가구에게 선호하는 양육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다양한 선택지의 보장을 방향으로 제안함.

■ 영아 연령별 핵심 양육지원 전략 차별화

- 0~1세 시기에는 ‘부모의 직접 돌봄’을 지원하는 다양한 시간지원의 이용 활성화, 직접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 가정 내에서의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지원, 가구소득 감소에 대응하는 현금 지원 확대 전략 등 다각적인 양육지원 전략이 균형 있게 발전되어야 할 것임. 특히, 어린 영아를 두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주(또는 보조)양육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부담이 큰 저소득 맞벌이 가구에 대한 저렴한 가정 내 개별돌봄서비스 이용의 접근성 제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세부터는 ‘기관 보육서비스’ 이용과 ‘일하며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부모 직접 돌봄 시간지원’이 서로 보완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지원의 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다. 영아 양육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세부 정책제안

■ 실수요층을 위한 기관 돌봄서비스 인프라 안정성 & 접근성 강화

◆ 소규모 영아보육서비스 기관 마련

- 부모급여 도입 등 가정양육 지원 강화 기조에 따라 기관보육 수요는 감소, 영아보육서비스 인프라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영아 보육 실수요층을 위한 서비스 기관 인프라 안정성 확보가 시급함.
- 특히 주 40시간 이상 종일제 이상의 장시간 근로, 규칙적인 출퇴근 형태의 맞벌이 가구의 경우 어린이집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가정 양육을 선호하는 0세부터 장시간의 보육서비스 이용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실수요층을 위한 영아보육서비스의 접근성 강화가 필요함.
- 실수요층을 위한 영아보육서비스 인프라의 안정성 확보 가능성 및 영유아 인구의 감소 추세를 고려해, 19인 이하의 소규모 영아보육어린이집 형태의 신설 및 운영 기준 마련을 제안함.

- ◆ 입소대기 우선 항목에 ‘육아휴직 종료 예정’을 추가, 가정 돌봄-기관 돌봄의 원활한 연계 지원, 조기 이용 행태 방지.
 - 한편, 희망 시기보다 이른 시기에 어린이집을 조기 이용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수요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보육서비스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함.
 - 특히, 육아휴직 복귀 예정자와 같이 가정 돌봄-기관 돌봄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실 수요자를 위한 기관 보육서비스 이용 연계 강화를 위해 육아휴직 후 복귀예정자 등을 입소대기 우선순위 항목으로 ‘육아휴직 종료 예정’을 추가하여 원활한 연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는 육아휴직(부모 직접돌봄을 위한 시간지원 이용) 중 보육서비스(대리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기능할 수 있음.
- ◆ 영아 연장보육료 수익자 부담·차등지원 도입
 - 재정 확보를 통한 연장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영아 연장보육이용의 자격조건 유지 및 가구소득에 따른 차등지원, 수익자 부담 기준 도입을 제안함.
- 육구에 따른 차등지원 도입
 - ◆ 현금지원 및 시간지원에도 지원의 충분성 담보를 위한 ‘육구에 따른 차등지원’의 도입을 제안함.
 - 현금지원의 경우 보편적 지원 위주로 도입된 상황으로, 현금지원별 차별화가 되지 않는 상황임. 부모급여와 같이 지급액이 높은 현금지원에 대해서는 특히 가구소득 지원, 양육비 부담 경감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가구소득에 따른 차등지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시간지원의 경우도 ‘육구’를 고려한 차등지원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시간지원의 경우 육구의 크기는 자녀수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고려, 자녀수와 무관하게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같은 경우 자녀수가 많을수록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추가 부여하는 등의 차등지원 도입을 통해 ‘지원의 충분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이밖에 시간지원은 여성 위주의 이용을 방지하고 성별 이용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과 외벌이 가구의 취업부모와 같이 시간지원의 취약 계층에 대한 특례 마련 등 보완이 필요함.

〈표 17〉 자녀수 기준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차등 부여 방안

개선 목표	대상 제도	방안
시간지원 욕구 대응	- 배우자 출산휴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자녀수 무관 배우자의 출산시 유급 10일의 휴가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자녀수 기준(집중적 돌봄 필요) 자녀수 1명 추가 시 배우자 출산휴가 약 30~40% 추가 부여 - 예) 출생아 포함 영유아 자녀 1명 10일/ 2명 13~14일/3명 16~17일

〈표 18〉 시간지원의 취약대상을 위한 특례(안)

개선 목표	대상 제도	방안
시간지원 취약대상 지원	-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벌이 가구의 취업 부모, 한부모 가구의 취업부모 대상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특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 급여 대체율 80%(상한액 200~300만원선 인상)

I 참고 문헌 I

대한민국정부(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

이정원·유해미·조혜주·김윤환·신윤정·한인애(2023).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정미라·김경숙·이방실(2013).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지원에 대한 질적 연구. 제33권 제2호, pp.163-289.

[뉴스·신문기사]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3. 1. 4.). 부모급여가 모든 영아가족에게 힘이 되어드립니다. 부모급여 신청하세요! : 부모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4436&SEARCHKEY=TITLE&SEARCHVALUE=%EB%B6%80%EB%AA%A8%EA%B8%89%EC%97%AC(인출일: 2023. 3. 6.).

PART

03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삶

-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가구, 기관의 환경 변화와 영유아 발달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
최은영
- 코로나19로 인한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변화와 시사점
이정원
-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영유아의 발달 현황
최은영

| 이슈페이퍼 2023-01 |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가구, 기관의 환경 변화와 영유아 발달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

최은영

1. 배경
 2. 영유아 가구의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변화
 3. 영유아 이용 기관의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변화
 4. 영유아 발달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주관적 인식 비교
 5. 제언
- 참고문헌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가구, 기관의 환경 변화와 영유아 발달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

최은영 선임연구위원

◆◆ 요약 ◆◆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영유아의 가정과 기관의 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 변화에 대한 인식을 비교함으로써 이에 따른 지원방식을 모색함¹⁾.
- 팬데믹 기간(2020-2021) 중 긴급돌봄을 이용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만 2세반과 만 5세반 모두 과반을 넘었는데, 만 2세반 영아 자녀를 둔 외벌이 가구의 경우, 이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한편 경제 상황 등 전반적인 생활 변화로 만 2세반 영아와 만 5세반 유아 가구는 모두 가구 총 지출, 자녀양육비가 증가했고, TV/미디어 이용시간이 증가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음.
- 교사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 기관이나 교육과정 운영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으며, 만 2세반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대해 조사한 결과, 또래적응 점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음. 만 5세반 유아의 또래 놀이행동 중 놀이 상호작용은 긍정적으로 응답됨.
- 만 2세반 영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모의 인식이 높게 나타났는데, 인지발달, 정서발달, 사회성발달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으며, 사회성발달이 가장 낮았음. 한편 만 2세반 영아의 정서조절의 전체 점수와 적응적 정서조절 점수는 교사보다 부모가 높았으며, 부모와 교사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만 5세반 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대해서는 정서발달에 대해서 교사보다 부모가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발달영역에서는 차이가 없었음. 한편 만 5세반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중 적응적 정서조절은 부모가 높게 인식하였고, 부정적 정서조절은 교사가 높게 인식함.
-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가정환경 특성별 지원 강화, 간편형 체크리스트(앱) 개발, 발달에 대한 이해와 발달 지연, 문제 행동을 객관적으로 스크리닝 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제언함.

* 본고의 내용은 육아정책연구소의 2022년 일반과제인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연구(1)(최은영 외)」의 일부를 토대로 작성함.

1) 본 연구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직접 수행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참여 가구의 자발적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 참여한 가구표본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다소 높은 편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1 배경

-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된 COVID-19(이하 코로나19)는 높은 감염률을 보이며, 치명률은 지역, 인구집단연령 구조, 감염 상태 및 기타 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질병관리청, 2021).
 - ◆ 재난은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지만 각 집단이 재난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크고, 이에 따라 각 집단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으며, 재난이 초래하는 결과는 재해가 일어난 사회의 시스템이나 불평등, 부패 정도 등 사회적 조건에 따라 달라짐(질병관리청, 2021).
-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 육아 및 돌봄 분야 전반에도 적지 않은 변화와 어려움이 보고되었으며, 대표적으로 돌봄의 공백과 사각지대, 그리고 학습의 격차, 발달의 지연 등이 지적된 바 있음(최윤경, 박원순, 최윤경, 안현미, 2020).
 - ◆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돌봄 서비스의 이용이 원활하지 않음에 따라 교육·보육·돌봄의 공백이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크며, 영유아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지속적인 영향력을 가진다는 우려가 큰 상황임.
 - ◆ 팬데믹 기간 중 가정 내 양육의 부담이 커지고, 아동의 일상생활은 온라인 미디어 이용시간 및 부모, 가족과의 소통의 증가, 바깥놀이와 야외활동의 감소로 나타났으며, 부모-자녀 관계는 팬데믹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좋아졌다는 긍정 경험과 나빠졌다는 부정 응답이 비등하게 나타남(최윤경 외, 2020).
-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연구들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폐쇄와 원격 교육의 시행이 학습격차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교사와 부모의 역량 차이, 가정의 물리적 자원 차이, 부모의 시간 제약, 부모의 교육 수준 등이 원격교육에서 아동 간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됨(박미희, 2020).
 - ◆ 김지우, 김나영, 남재현(2021)은 코로나19로 인해 아동 가구의 교육 지출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코로나19 이후에 전반적으로 디지털 장치에 대한 지출이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중 비빈곤 가구만 유의하

였다고 보고함.

- 장시간 가정에서 보내는 유아들은 가정에서의 교육적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자녀에게 교육적 지원이나 환경적 자극을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운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의 유아들에게 장기간의 가정양육은 교육 기회의 박탈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최혜영, 유준호, 권수정, 장경은, 2021).
 - ◆ 코로나19로 인한 부모의 실직과 부부갈등 등의 위험 요인이 아동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고들도 있는데, 취약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아동의 경우,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발생의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음(Prime, Wade, & Browne, 2020).
 - ◆ 양신영(2021)도 코로나19 이후 영유아의 신체 및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 원장 및 교사의 71.6%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동의 발달에 미친 영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과도한 실내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짜증, 공격적 행동 빈도가 증가’, ‘낮가림, 기관 적응 어려움 및 또래관계 문제 발생 빈도가 증가’했다고 밝힘.
- 교육·보육·돌봄 기관의 휴원과 휴업, 교육체계의 붕괴(학교 휴교 및 폐쇄 조치)는 교육·보육·돌봄의 영역과 성과에 국한되지 않고, 영유아와 지역사회 전반의 건강한 성장과 유지에 필요한 필수적인 서비스와 운용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침.
 - ◆ 이에 따라 사회 전반의 의식주와 신체적·정신적 건강, 개별가정의 일가정 양립 및 일생활 균형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 이로써 가장 취약한 곳과 사각지대에서 사회적 폭력과 학대의 위험성을 가중시킴.
- 팬데믹 기간에 집단 돌봄에 준하는 조치를 한 영유아는 언어발달과 집행기능이 상대적으로 더 뛰어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소외된 계층에서 더 두드러질 수 있는 차이를 사회적 돌봄 기능의 확대를 통해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줌(Davies et al., 2021).
 - ◆ 이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영유아의 가정과 기관의 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 변화에 대한 인식을 비교함으로써 이에 따른 지원방식을 모색함.
 - ◆ 이를 위해 발달 검사를 수행한 만 2세반 영아와 만 5세반 유아의 부모(각각 100명, 총 200명)와 담임교사(총 40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팬데믹 전후의 가구와 기관의 주요 변화, 영유아 발달에 대한 인식을 분석함.

2 영유아 가구의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변화

가. 팬데믹 기간 중 가구의 전반적 변화

- 만 2세반 영아 가구의 가구 소득에는 변화가 없었고(49.0%), 가구 총 지출, 자녀양육비는 증가(약간 증가+매우 증가, 각각 56.0%, 52.0%)하였으며, TV/미디어 이용시간은 69.0%(약간증가+매우증가)로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 한편 자녀의 야외활동 시간은 감소했다(약간 감소+매우 감소, 54.0%)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1〉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대비 경제 상황과 가정에서의 생활 변화: 전체

단위 : %(명)

구분		매우 감소	약간 감소	변화 없음	약간 증가	매우 증가	비해당	평균 점수 (점)	계(명)
가구 총 소득	만 2세반	9.0	20.0	49.0	20.0	2.0	-	2.86	100.0 (100)
	만 5세반	6.0	12.0	64.0	15.0	3.0	-	2.97	100.0 (100)
가구 총 지출	만 2세반	2.0	16.0	26.0	41.0	15.0	-	3.51	100.0 (100)
	만 5세반	1.0	8.0	29.0	49.0	13.0	-	3.65	
자녀양육비 지출	만 2세반	2.0	4.0	42.0	37.0	15.0	-	3.59	100.0 (100)
	만 5세반	1.0	4.0	32.0	51.0	12.0	-	3.69	
사교육비 지출	만 2세반	2.0	5.0	56.0	26.0	11.0	-	3.39	100.0 (100)
	만 5세반	1.0	7.0	30.0	46.0	16.0	-	3.69	100.0 (100)
부가 자녀와 보내는 양육시간	만 2세반	3.0	13.0	35.0	39.0	10.0	-	3.40	100.0 (100)
	만 5세반	4.0	6.0	58.0	22.0	10.0	-	3.28	100.0 (100)
모가 자녀와 보내는 양육시간	만 2세반	1.0	6.0	37.0	25.0	31.0	-	3.79	100.0 (100)
	만 5세반	0.0	3.0	40.0	28.0	29.0	-	3.83	100.0 (100)
자녀의 TV/미디어 이용시간	만 2세반	1.0	2.0	28.0	48.0	21.0	-	3.86	100.0 (100)
	만 5세반	0.0	0.0	28.0	48.0	24.0	-	3.96	100.0 (100)
자녀의 야외활동 시간	만 2세반	14.0	40.0	13.0	25.0	8.0	-	2.73	100.0 (100)
	만 5세반	21.0	31.0	17.0	28.0	3.0	-	2.61	100.0 (100)
학습지 등 방문교육 시간	만 2세반	7.0	3.0	50.0	15.0	6.0	19.0	3.12	100.0 (100)
	만 5세반	9.0	12.0	49.0	21.0	3.0	6.0	2.97	100.0 (100)
학원 이용시간	만 2세반	6.0	4.0	51.0	14.0	5.0	20.0	3.10	100.0 (100)
	만 5세반	5.0	17.0	43.0	23.0	9.0	3.0	3.14	100.0 (100)

구분		매우 감소	약간 감소	변화 없음	약간 증가	매우 증가	비해당	평균 점수 (점)	계(명)
자녀의 수면 시간	만 2세반	3.0	22.0	68.0	7.0	0.0	-	2.79	100.0 (100)
	만 5세반	1.0	10.0	81.0	7.0	1.0	-	2.97	100.0 (100)
부의 평균 근로시간	만 2세반	3.0	15.0	61.0	16.0	5.0	-	3.05	100.0 (100)
	만 5세반	1.0	11.0	72.0	12.0	4.0	-	3.07	100.0 (100)
모의 평균 근로시간	만 2세반	3.0	15.0	50.0	11.0	6.0	15.0	3.02	100.0 (100)
	만 5세반	2.0	6.0	52.0	10.0	4.0	26.0	3.11	100.0 (100)

- 만 5세반 유아 가구의 가구 소득에는 변화가 없었고(64.0%), 가구 총 지출, 자녀양육비, 사교육비는 증가(약간 증가+매우 증가, 각각 62.0%, 63.0%, 62.0%)했다고 응답되었으며, 만 5세반 유아의 TV/미디어 이용시간도 72.0%(약간증가+매우증가)로 매우 높았음.
 - ◆ 반면 자녀의 야외활동 시간은 감소(약간 감소+매우 감소, 52.0%)한 것으로 나타남.
- 만 2세반 영아와 만 5세반 유아 가구의 팬데믹 이전 대비 팬데믹 기간 중 어머니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은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
 - ◆ 외벌이 가구에서 어머니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증가했다고 인식하는 점수가 맞벌이 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만 2세반 66.7%, 만 5세반 65.5%).
 - ◆ 이는 팬데믹 기간 중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없는 비율이 높기(만 2세반 64.0%, 만 5세반 71%) 때문에 팬데믹으로 인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휴원 시기, 가정에서의 돌봄 시간을 증가시켰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2〉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경제 상황과 가정에서의 생활 변화: 자녀와 보내는 시간

단위 : %(명)

구분		매우 감소	약간 감소	변화 없음	약간 증가	매우 증가	평균 점수 (점)	계(명)
만 2세반		1.0	6.0	37.0	25.0	31.0	3.79	100.0 (100)
	맞벌이	1.3	7.9	38.2	27.6	25.0	3.67	100.0 (76)
맞벌이 여부	외벌이	0.0	0.0	33.3	16.7	50.0	4.17	100.0 (24)
	<i>t</i>							-2.183*

구분	매우 감소	약간 감소	변화 없음	약간 증가	매우 증가	평균 점수 (점)	계(명)	
만 5세반	0.0	3.0	40.0	28.0	29.0	3.83	100.0 (1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0.0	4.2	42.3	32.4	21.1	3.70	100.0 (71)
	외벌이	0.0	0.0	34.5	17.2	48.3	4.14	100.0 (29)
	<i>t</i>							-2.261*

* $p < .05$

■ 만 2세반 영아와 만 5세반 유아 가구의 팬데믹 이전 대비 팬데믹 기간 중 자녀의 야외활동 시간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는데, 자녀수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 ◆ 다만, 만 2세반 영아의 경우, 자녀수가 2명 이상인 가구가 1명인 가구보다 자녀의 야외활동이 감소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경제 상황과 가정에서의 생활 변화: 야외활동 시간

단위 : %(명)

구분	매우 감소	약간 감소	변화 없음	약간 증가	매우 증가	평균 점수 (점)	계(명)	
만 2세반	14.0	40.0	13.0	25.0	8.0	2.73	100.0 (100)	
자녀수	1명	10.4	31.3	18.8	27.1	3.00	100.0 (48)	
	2명 이상	17.3	48.1	7.7	23.1	3.8	2.48	100.0 (52)
	<i>t</i>							2.178*
맞벌이 여부	맞벌이	13.2	39.5	14.5	23.7	9.2	2.76	100.0 (76)
	외벌이	16.7	41.7	8.3	29.2	4.2	2.63	100.0 (24)
	<i>t</i>							0.484
만 5세반	21.0	31.0	17.0	28.0	3.0	2.61	100.0 (100)	
자녀수	1명	21.1	26.3	15.8	34.2	2.6	2.71	100.0 (38)
	2명 이상	21.0	33.9	17.7	24.2	3.2	2.55	100.0 (62)
	<i>t</i>							0.660
맞벌이 여부	맞벌이	22.5	23.9	15.5	35.2	2.8	2.72	100.0 (71)
	외벌이	17.2	48.3	20.7	10.3	3.4	2.34	100.0 (29)
	<i>t</i>							1.565

* $p < .05$

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2020-2021) 돌봄서비스 이용

- 만 2세반 영아 자녀가 있는 부모 100명을 대상으로 팬데믹 기간 중 자녀의 어린이집 긴급돌봄 이용을 살펴본 결과, 이용하지 않았다가 45.0%로 가장 높았으며, 많이 이용 33.0%, 가끔 이용 22.0% 순으로 나타남.
- ◆ 한편 만 5세반 유아의 긴급돌봄 이용은 맞벌이의 이용 비율이 높고, 외벌이의 경우 이용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임. 재택근무를 이용한 경우에도 긴급돌봄을 이용했다(가끔+많이)고 응답한 비율이 74.1%로 높았음.

〈표 4〉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2020-2021) 긴급돌봄 이용

단위 : %(명)

구분	이용하지 않았다	가끔 이용하였다	많이 이용하였다	계(명)	
만 2세반	45.0	22.0	33.0	100.0 (1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42.1	21.1	36.8	100.0 (76)
	외벌이	54.2	25.0	20.8	100.0 (24)
	χ^2	2.135(2)			
유연 근무제 이용	이용함	18.8	12.5	68.8	100.0 (16)
	미이용	45.2	29.0	25.8	100.0 (31)
	제도없음+비해당	54.8	16.1	29.0	100.0 (31)
	χ^2	11.167(4)*			
재택근무 이용	이용함	50.0	13.3	36.7	100.0 (30)
	미이용	47.4	26.3	26.3	100.0 (19)
	제도없음+비해당	34.5	24.1	41.4	100.0 (29)
	χ^2	2.882(4)			
만 5세반	39.0	24.0	37.0	100.0 (1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35.2	22.5	42.3	100.0 (71)
	외벌이	48.3	27.6	24.1	100.0 (29)
	χ^2	2.946(2)			
유연 근무제 이용	이용함	16.7	27.8	55.6	100.0 (18)
	미이용	39.1	21.7	39.1	100.0 (23)
	제도없음+비해당	40.6	18.8	40.6	100.0 (32)
	χ^2	3.349(4)			
재택근무 이용	이용함	25.9	18.5	55.6	100.0 (27)
	미이용	43.8	18.8	37.5	100.0 (16)
	제도없음+비해당	36.7	26.7	36.7	100.0 (30)
	χ^2	2.888(4)			

* $p < .05$.

■ 팬데믹 기간 중 긴급돌봄을 이용하지 않거나 가끔 이용했던 만 2세반 영아 부모 67명을 대상으로 자녀를 가정에서 주로 돌본 사람을 조사한 결과, 어머니가 67.2%로 가장 많았으며, 조부모 22.4%, 민간 육아도우미 4.5%, 자녀의 아버지, 친인척, 아이 돌보미, 기타가 각각 1.5% 순으로 나타남.

- ◆ 외벌이의 경우에는 자녀의 어머니가 100%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맞벌이는 자녀의 어머니 54.2%, 조부모 31.3% 순임.
- ◆ 유연근무제를 이용하거나 유연근무제에 비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어머니가 주양육자인 비율이 각각 60.0%, 63.6%로 가장 높았던 반면, 유연근무제를 미이용하는 경우에는 조부모가 주양육자인 비율이 52.2%로 가장 높았음. 한편 재택근무의 이용 여부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음.
- ◆ 만 5세반 유아 부모(63명)의 경우, 어머니가 주양육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82.5%로 가장 높았고, 맞벌이 여부, 유연근무제 이용, 재택근무 이용 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었음.

〈표 5〉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2020-2021) 주양육자

단위 : %(명)

구분	모	조부모	민간 육아도우미	부	친인척	아이 돌보미	기타	계(명)
만 2세반	67.2	22.4	4.5	1.5	1.5	1.5	1.5	100.0 (67)
맞벌이 여부	맞벌이	54.2	31.3	6.3	2.1	2.1	2.1	100.0 (48)
	외벌이	100.0	0.0	0.0	0.0	0.0	0.0	100.0 (19)
	χ^2	12.966(6)*						
	이용함	60.0	0.0	20.0	0.0	0.0	20.0	100.0 (5)
유연 근무제 이용	미이용	47.8	52.2	0.0	0.0	0.0	0.0	100.0 (23)
	제도없음+비해당	63.6	13.6	9.1	4.5	4.5	0.0	100.0 (22)
	χ^2	23.933(12)*						
	이용함	52.6	31.6	5.3	0.0	0.0	5.3	100.0 (19)
재택근무 이용	미이용	42.9	50.0	7.1	0.0	0.0	0.0	100.0 (14)
	제도없음+비해당	70.6	11.8	5.9	5.9	5.9	0.0	100.0 (17)
	χ^2	12.077(12)						
	만 5세반	82.5	12.7	-	3.2	-	-	1.6

구분		모	조부모	민간 육아 도우미	부	친인척	아이 돌보미	기타	계(명)
맞벌이 여부	맞벌이	75.6	17.1	-	4.9	-	-	2.4	100.0 (41)
	외벌이	95.5	4.5	-	0.0	-	-	0.0	100.0 (22)
	χ^2	4.062(3)							
유연 근무제 이용	이용함	75.0	12.5	-	0.0	-	-	12.5	100.0 (8)
	미이용	57.1	28.6	-	14.3	-	-	0.0	100.0 (14)
	제도없음+비해당	89.5	10.5	-	0.0	-	-	0.0	100.0 (19)
	χ^2	10.756(6)							
재택근무 이용	이용함	75.0	16.7	-	0.0	-	-	8.3	100.0 (12)
	미이용	60.0	30.0	-	10.0	-	-	0.0	100.0 (10)
	제도없음+비해당	84.2	10.5	-	5.3	-	-	0.0	100.0 (19)
	χ^2	5.511(6)							

* $p < .05$.

- 팬데믹 기간 중 유치원과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경험은 다음과 같음.
 - ◆ 만 2세반 영아의 부모와 만 5세반 유아의 부모 모두 이용한 적 없다는 응답이 각각 64.0%, 71.0%로 높았음.

〈표 6〉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2020-2021)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구분	이용한적 있음	이용한적 없음	계(명)
만 2세반	36.0	64.0	100.0 (100)
반 5세반	29.0	71.0	100.0 (100)

단위 : %(명)

- 개별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만 2세반 영아의 부모 36명을 대상으로 이용한 서비스를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조부모(할머니, 할아버지 등)가 91.7%로 가장 높았음.
 - ◆ 그 밖의 응답으로는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 27.8%, 민간 육아도우미 19.4%,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기타 공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포함) 5.6% 순으로 나타남.
 - ◆ 만 5세반 유아 부모(29명)도 조부모의 돌봄을 이용한 비율이 82.8%로 가장 높았음.

〈표 7〉 이용한 개별돌봄 서비스(복수응답)

단위 : %(명)

만 2세반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등)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 (아동의 이모, 고모, 삼촌 등)	민간 육아도우미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기타 공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포함)	명
만 2세반	91.7	27.8	19.4	5.6	(36)
만 5세반	82.8	24.1	10.3	6.9	(29)

3

영유아 이용 기관의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변화

- 교사들에게 코로나19 상황이 기관이나 교육과정 운영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주었는지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5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응답은 없었음.

〈표 8〉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기관이나 교육과정 운영에 미친 영향

단위 : %(명)

구분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침	매우 영향을 미침	평균점수 (점)	계(명)
코로나19 상황이 기관이나 교육과정 운영에 미친 영향	2.5	57.5	40.0	3.38	100.0 (40)

주: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 응답한 경우는 없음.

- 긴급돌봄 시 교사가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었다는 응답이 37.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주기적인 방역 22.5%, 기타 17.5%, 인력 부족 15.0% 순이었음.

〈표 9〉 긴급돌봄 시 교사가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

단위 : %(명)

구분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	주기적인 방역	인력 부족	기타	긴급돌봄 경험 없음	계(명)
긴급돌봄 시 가장 큰 어려움	37.5	22.5	15.0	17.5	7.5	100.0 (40)

- 발달 검사에 참여한 만 2세반 영아 100명의 평소 행동을 토대로 어린이집 적응에 관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에 대해 교사 응답을 바탕으로 어린이집 적응을 4개 하위요인(사회정서적응, 또래적응, 자아적응, 일과적응)으로 파악하였는데, 만 2세반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하위요인별 평균 점수는 5점 척도 기준 3.38~3.62점의 분포를 보임.
 - ◆ 만 2세반 영아의 일과적응 점수가 평균 3.6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또래적응 점수가 평균 3.38점으로 가장 낮았음.

〈표 10〉 만 2세반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단위 : 점(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사회정서적응	3.47	0.95	(100)
또래적응	3.38	1.01	(100)
자아적응	3.61	1.02	(100)
일과적응	3.62	0.93	(100)

- 만 5세반 유아의 또래놀이행동 중 놀이상호작용은 3.05점으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 놀이방해와 놀이단절은 각각 1.81점, 1.59점으로 나타남.

〈표 11〉 만 5세반 유아의 또래 놀이행동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평균점수 (표준편차)	계(명)
놀이상호작용	4.2	8.1	66.6	21.1	3.05(0.68)	100.0 (100)
놀이방해	44.2	20.1	32.1	3.6	1.81(0.86)	100.0 (100)
놀이단절	56.0	29.6	13.5	0.9	1.59(0.75)	100.0 (100)

4 영유아 발달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주관적 인식 비교

가. 만 2세반 영아의 전반적인 발달과 정서조절 능력

- 발달검사에 참여한 만 2세반 영아 100명의 전반적인 발달 상황에 대해 살펴본 결과, 발달 항목별 평균점수(5점 척도)는 3.05~3.39점으로 분포됨.
- ◆ 사회성 발달이 평균 3.05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언어 발달과 인지 발달이 각각 평균 3.3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임. 전반적으로 부모의 인식이 높았으며,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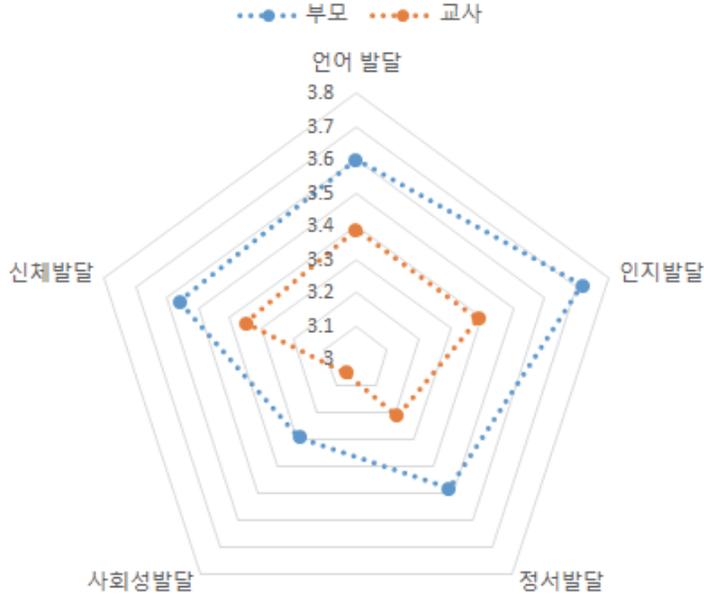
〈표 12〉 만 2세반 영아의 전반적 발달에 대한 인식: 부모/교사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낮음	약간 낮음	보통	약간 빠름	매우 빠름	평균 점수	계(명)	t
언어 발달	부모	1.0	16.0	28.0	32.0	23.0	3.60	100.0 (100)	1.403
	교사	4.0	17.0	31.0	32.0	16.0	3.39	100.0 (100)	
인지 발달	부모	-	3.0	39.0	41.0	17.0	3.72	100.0 (100)	2.880**
	교사	1.0	10.0	48.0	31.0	10.0	3.39	100.0 (100)	
정서 발달	부모	-	7.0	47.0	37.0	9.0	3.48	100.0 (100)	2.437*
	교사	-	15.0	58.0	18.0	9.0	3.21	100.0 (100)	
사회성 발달	부모	1.0	16.0	45.0	29.0	9.0	3.29	100.0 (100)	1.995*
	교사	1.0	21.0	57.0	14.0	7.0	3.05	100.0 (100)	
신체 발달	부모	1.0	8.0	40.0	36.0	15.0	3.56	100.0 (100)	1.645
	교사	2.0	11.0	51.0	22.0	14.0	3.35	100.0 (100)	

* $p < .05$, ** $p < .01$

[그림 1] 만 2세반 영아의 전반적 발달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 비교



- 발달 검사에 참여한 만 2세반 영아의 정서조절 능력을 하위요인별로 적응적 정서조절과 부정적 정서조절(4점 척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 부모가 응답한 만 2세반 영아의 정서조절 중 적응적 정서조절 점수는 평균 3.05점이었으며, 부정적 정서조절 점수는 2.98점임.
 - ◆ 교사가 응답한 만 2세반 영아의 정서조절 중 적응적 정서조절 점수는 평균 2.82점이었고, 부정적 정서조절 점수는 평균 2.96점으로 조사됨.
 - ◆ 만 2세반 영아의 정서조절의 전체 점수는 교사보다 부모가 높게 평정하였으며, 적응적 정서조절도 3.05점으로 부모가 인식하는 정서조절 점수가 높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표 13〉 만 2세반 영아의 정서조절 평가: 부모/교사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단위 : 점(명) t
전체	부모	3.01	0.78	(100)	4.581***
	교사	2.90	0.79	(100)	
적응적 정서조절	부모	3.05	0.65	(100)	7.600***
	교사	2.82	0.64	(100)	
부정적 정서조절	부모	2.98	0.85	(100)	0.859
	교사	2.96	0.85	(100)	

*** $p < .001$.

나. 만 5세반 유아의 전반적인 발달과 정서조절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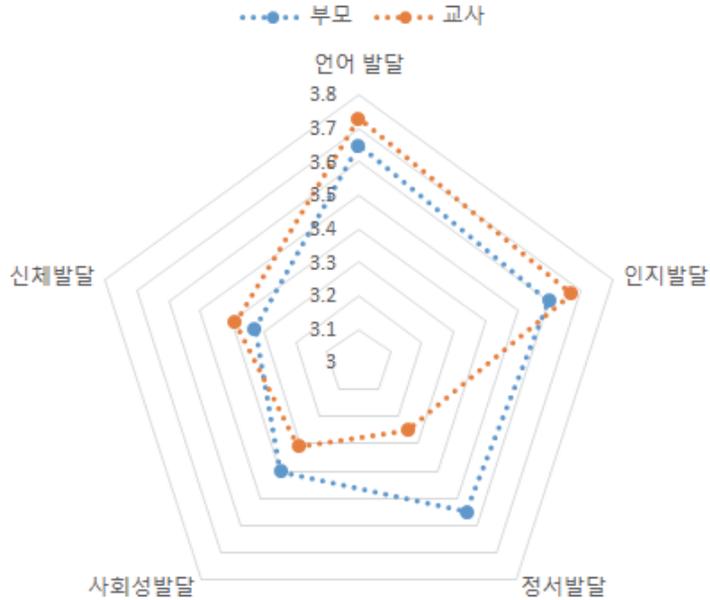
- 만 5세반 교사들은 5가지 발달 영역(5점 척도) 중 언어 발달이 3.7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인지 발달 3.67점, 신체 발달 3.39점, 사회성 발달 3.31점 순이었으며, 정서 발달이 3.25점으로 가장 낮게 인식함.
 - ◆ 반면 부모는 3.33점~3.65점의 분포를 보였으며, 언어 발달이 3.6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신체 발달이 3.33점으로 가장 낮았음.
 - ◆ 만 5세반 유아의 전반적 발달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 차이가 나타난 영역은 정서 발달이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14〉 만 5세반 유아의 전반적 발달에 대한 인식: 부모/교사

구분		단위 : %(명), 점					평균 점수	t	
		매우 낮음	약간 낮음	보통	약간 빠름	매우 빠름			
언어 발달	부모	1.0	11.0	29.0	40.0	19.0	100.0 (100)	3.65	-0.577
	교사	2.0	6.0	38.0	25.0	29.0	100.0 (100)		
인지 발달	부모	-	5.0	41.0	43.0	11.0	100.0 (100)	3.60	-0.561
	교사	2.0	9.0	32.0	34.0	23.0	100.0 (100)		
정서 발달	부모	-	2.0	52.0	35.0	11.0	100.0 (100)	3.55	2.731**
	교사	3.0	9.0	55.0	26.0	7.0	100.0 (100)		
사회성 발달	부모	1.0	12.0	43.0	34.0	10.0	100.0 (100)	3.40	0.696
	교사	5.0	10.0	44.0	31.0	10.0	100.0 (100)		
신체 발달	부모	2.0	12.0	48.0	27.0	11.0	100.0 (100)	3.33	-0.463
	교사	2.0	10.0	50.0	23.0	15.0	100.0 (100)		

** $p < .01$

[그림 2] 만 5세반 유아의 전반적 발달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 비교



- 만 5세반 교사들은 유아의 정서조절에 대해 적응적 정서조절은 4점 척도에 2.95점으로 긍정적인 편으로 평가하였으며, 부정적 정서조절은 3.29점으로 적응적 정서조절에 비해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남.
- ◆ 반면 부모가 평가한 정서조절 점수 평균은 3.18점이었으며, 부정적 정서조절이 3.23점으로 적응적 정서조절에 비해 높게 나타남.
- ◆ 정서조절에 대한 인식도 부모와 교사의 차이가 있었는데, 적응적 정서조절은 부모가 3.09로 교사(2.95점)보다 높았고, 부정적 정서조절은 교사가 3.29점으로 부모(3.23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표 15〉 만 5세반 유아의 정서조절 평가: 부모/교사

구분		(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부모	(100)	3.18	0.69	0.535
	교사	(100)	3.17	0.82	
적응적 정서조절	부모	(100)	3.09	0.55	4.566***
	교사	(100)	2.95	0.72	

단위 : 점(명)

구분	(수)	평균	표준편차	t	
부정적 정서조절	부모	(100)	3.23	0.75	-2.188*
	교사	(100)	3.29	0.85	

* $p < .05$, *** $p < .001$.

5 제언

- 영유아 시기의 발달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영유아 발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가정 환경 특성별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 본 연구결과, 팬데믹 기간 중 가정에서 주로 자녀를 돌본 사람이 어머니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맞벌이 가구는 조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또한 팬데믹 기간 중 대부분의 부모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외벌이 가구는 휴원기간에도 긴급돌봄이나 개별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음.
 - ◆ 교육에 대한 기대는 실제적인 교육 지원으로 이어져서 직접적으로 사교육비 부담, 진로 상담을 위한 학교 방문, 입시 정보 수집, 자녀와 진로에 대한 대화, 자녀의 성적 관리, 집안의 공부 분위기 조성 등 학업 지원 활동으로 나타남(김경근, 2005; 김경근, 강영혜, 2005; 김기석, 2005).
 -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경우, 부모는 고소득의 안정된 직업을 가질 확률이 높으며, 이러한 조건은 부모로 하여금 자녀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며 투자 할 수 있는 시간적, 물질적, 심리적 여유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함(김경희, 황혜정, 1998; 박응임, 1988; 오혜진, 주경란, 2004).
-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고, 문제행동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간편형 체크리스트(앱)를 개발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 만 2세반 영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을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부모의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정서조절의 전체 점수와 적응적 정서조절 점수는 교사보다 부모가 높았으며, 부모와 교사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만 5세반 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을 비교한 결과, 정서발달에 대해서 교사보다 부모가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발달영역에서는 차이가 없었음. 한편 만 5세반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중 적응적 정서조절은 부모가 높게 인식하였고, 부정적 정서조절은 교사가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 부모는 일반적으로 영유아와 오랜 시간 생활하고, 기관에서의 생활과는 다르게 좀 더 편안한 가운데 영유아와 일대일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비인지적 특성을 측정하는데에 적합할 수 있음.
- ◆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팬데믹으로 인한 인지적 발달의 지연보다는 정서발달 측면에서 장기적인 문제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이에 부모의 배경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정할 수 있는 보다 쉽고, 간편한 척도의 개발이 필요함. 체크리스트(앱)을 통해 부모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하여 조기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영유아의 교사와 원장의 발달에 대한 이해와 발달 지연, 문제 행동을 객관적으로 스크리닝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함.
 - ◆ 선행연구들의 결과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기관 내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영유아의 기관 내에서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영유아의 기관(시설) 이용 시기가 빨라지고, 이용 시간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영유아의 발달 상황을 누구보다 잘 관찰할 수 있는 전문가인 담임교사와 원장임.
 - ◆ 팬데믹 이후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이전보다 영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보고와 우려가 많은 상황이나 자녀의 발달에 대한 교사나 원장의 안내에도 인정하지 않거나 방관하는 부모들도 적지 않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상하반기에 이루어지는 부모 상담도 형식에 그치는 경우도 많음.
 - ◆ 발달의 민감기인 영유아기의 발달 지연은 이후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청소년기 이후보다 영향력이 크고, 탄력성도 높기 때문에 부모를 비롯한 영유아 교사와 원장의 역량은 조기 선별을 위한 기초 장치라고 할 수 있음.

I 참고문헌 I

- 김경근(2005).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5(3), 1-27.
- 김경근·강영혜(2005).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원인. 한국사회학회 제1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723-747.
- 김경희, 황혜정(1998). 저소득층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와 부모의 자녀양육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1(1), 12-27.
- 김기석(2005). 평준화 정책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적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기현(2008). 생애 초기 교육기회와 불평등: 유아교육 경험이 교육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9,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논문집, 39-61.
- 김지우·김나영·남재현(2021). 코로나19와 불평등 -코로나19가 아동의 인적자본투자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70(2), 167-195.
- 박미희(2020). 코로나19 시대의 교육격차 실태와 교육의 과제: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회학연구*, 30(4), 113-145.
- 박응임(1988). 사회계층에 따른 가정환경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신영(2021). 코로나19가 아동 발달에 미친 영향과 그 해법을 모색한다. '코로나19, 영유아 발달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자료, 1-20.
- 오혜진·주경란(2004). 유치원아 부모의 사회계층에 따른 자녀교육관에 대한 세대간 비교연구. *아동교육*, 13(2), 165-184.
- 질병관리청(2021). *간행물/통계*. www.kcdc.go.kr에서 2022. 6. 17. 인출.
- 최윤경·박원순·최윤경·안현미(2020).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및 돌봄공백 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최혜영·유준호·권수정·장경은(2021). 코로나19 시대의 보육환경 내 영유아의 사회적 경험. *한국보육지원학*, 17(2), 29-46.

- Davies, C., Hendry, A., Gibson, S. P., Gliga, T., McGillion, M., & Gonzalez-Gomez, N. (2021).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during COVID-19 boosts growth in language and executive function.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30(4). doi:10.1002/icd.2241
- Prime, H., Wade, M., & Browne, D. T. (2020). Risk and resilience in family well-be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merican Psychologist*, 75(5), 631-643.

| 이슈페이퍼 2023-03 |

코로나19로 인한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변화와 시사점

이정원

1. 배경
 2. 코로나19 시기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변화
 3. 정책 제언
- 참고문헌

코로나19로 인한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변화와 시사점*

이정원 선임연구위원

◆◆ 요약 ◆◆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발생한 긴급한 돌봄 공백에 대해 육아정책 분야에서는 주로 기관 이용 보다는 가정 내 돌봄을 지원하는 조치로 대응함. 이에 영유아 가구는 부모와 혈연 위주의 인력을 활용한 가정 내 돌봄으로 긴급 돌봄 공백 상황에 대응하였던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코로나19는 영유아의 보육교육서비스 기관 이용을 크게 위축시켰으나 코로나19 발생 초기를 지나 코로나19 위험성의 감소와 일상회복의 분위기에 따라 점차적으로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기관 이용이 다시 회복세를 보임.
- 한편 영유아 돌봄을 위해 개별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시점을 전후해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 중 조부모 및 친인척 등 혈연의 비중이 증가, 돌봄의 가족화 현상이 두드러짐.
- 코로나19 발생 초기 영유아의 보육교육서비스 기관 및 외부 인력에 의한 육아서비스 이용 축소는 부모 및 혈연에 의한 가정 내 돌봄으로 대체되었고, 이로 인해 개별 가구의 양육부담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임. 이러한 가정 내 돌봄의 증가는 주로 여성의 양육 부담으로 전가되었을 수 있어 향후 긴급 돌봄 공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가정 이외의 상시적인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함.
- 단, 코로나19와 같은 위험도가 높은 감염병 발생에 대해서는 외부 인력의 활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긴급 상황에서 활용도가 높은 가정 내 돌봄 지원 제도의 상시적인 구축도 필요함. 즉, 부모의 연차 활용처럼 개인적인 대응 보다는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지원 확대와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정착으로 긴급 돌봄 공백 발생 시에 즉각적으로 이용 가능한 상시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단, 해당 제도의 설계시 여성 위주의 활용을 방지할 수 있는 고려가 필요함.

* 본 고의 내용은 육아정책연구소의 2022년 일반과제인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이정원·이재희·김자연·우석진·김태우)」의 일부를 토대로 작성함.

1 배경

가. 코로나19 팬데믹과 육아 정책 분야의 대응

■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육아정책 분야의 대응

- ◆ 2020년 전후 전세계적으로 발발한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도입되고, 이는 영유아 양육을 위한 서비스 공급 및 이용에 영향을 미침.
 - 2020~2021년 사이 지역별 코로나19 확산세의 강도를 반영해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의 휴원 및 긴급보육 시행, 밀집도 감소를 위한 조치(원격 수업 전환, 등원 인원 제한 등)가 실시되었음(조숙인·김나영·김재희·김영민, 2021: 196).
 -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 등으로 가정 내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수요가 증가할 것을 예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 지원 비율 확대 등으로 이용자 부담을 완화하는 한시적 조치를 시행함(최효미·이정원·박은정·김태우, 2020: 38).
- ◆ 이외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강도에 따라 업무 환경의 밀집도 감소,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방안으로 정부, 공공기관, 기업의 재택 근무 활성화를 권고한 바 있으며¹⁾, 이에 따라 2020~2021년 3월까지 만 25세~54세 직장인의 30%가 재택근무를 짧게라도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남(한국갤럽, 2021; 전지원·차승은·은기수, 2022: 28에서 재인용).

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영유아 가구의 자녀 돌봄 변화

-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발생에 대해 영유아 가구에서는 부모 및 혈연 위주 인력에 의한 가정 내 양육으로 대응

1) HIT news(2020. 8. 29.). ‘거리두기 3단계 같은 2.5단계...제약 재택근무 전격 전환?’(인출일: 2023. 5. 24.).

- ◆ 코로나19가 최초 발생한 2020년도에 실시된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조사 결과, 코로나 19 상황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휴원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였을 때 맞벌이 가구가 자녀를 돌보았던 방식은 다음과 같음.
 - 1순위 응답 기준 ‘조부모 등 친인척의 개별돌봄’(24.8%), ‘어머니가 연월차 휴가를 사용’(18.6%), ‘부모 중 누구든 육아휴직을 사용’(13.3%), ‘부모 중 누구든 재택근로 사용’(8.1%), ‘어머니가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 사용’(7.7%)순이며, ‘긴급돌봄센터 이용’은 8.9%에 그쳤음(최효미 외, 2020: 193).
- ◆ 즉,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였을 때, 영유아 가구는 주로 조부모 등의 도움을 받은 ‘가정 내 대리 양육’, ‘부모의 휴가·휴직’, ‘재택근무’ 등을 활용한 ‘가정 내 직접 돌봄’으로 대응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처럼 가정 내 대리양육, 가정 내 직접 돌봄 등 ‘가정 내 돌봄’의 증가는 코로나19 전 영유아 돌봄을 위해 이용하던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됨.
- ◆ 이에 코로나19 발생으로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의 이용에 어떤 변동이 있었는지를 실증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코로나19 시기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변화

가. 반일제이상 기관 보육·교육서비스

- 코로나19 시기별 기관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변화
 - ◆ 2018년~2022년 동안 수행된 I기 KICCE 소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비율은 코로나19가 최초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3차년도)에 72.4%로 2019년(2차년도) 81.0% 대비 대폭 감소함. 이후 2021년(4차년도)에는 80.5%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8년(1차년도), 2019년(2차년도) 조사 시와 유사한 수준을 회복함. 단, 2022년(5차년도)에는 4차년도 대비 다소(3.1%p) 감소함.(표 1 참조)
 - ◆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 대상 반일제이상 기관 미이용 영유아 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8년(1차년도)과 2019년(2차년도)에 각각 18%,19%에 해당함.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3차년도)에는 미이용 영유아가 27.6%로 급증하였는 바, 코로나19 팬데믹이 단기적으로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수요를 감소시킨 것으로 보임. 반일제이상 기관 미이용 비율은 2021년(4차년도)에 19.5%로 코로나19 팬데믹 시작 이전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코로나19 팬데믹 3년차에 접어드는 2022년에는 다시 미이용 비율이 다소 증가함.

〈표 1〉 연도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2018~2022년)

단위: %, (명)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전체	100.0 (2,277)	100.0 (2,333)	100.0 (2,368)	100.0 (2,371)	100.0 (2,393)
어린이집	51.1 (1,163)	53.0 (1,235)	48.1 (1,139)	50.4 (1,196)	49.2 (1,177)
유치원	27.7 (630)	26.5 (617)	23.3 (551)	28.8 (682)	27.1 (648)
반일제이상 학원 등	3.2 (74)	1.6 (37)	1.0 (24)	1.3 (31)	1.1 (27)
반일제이상 기관 미이용	18.0 (410)	19.0 (443)	27.6 (653)	19.5 (462)	22.6 (542)

주: 반일제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자료: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163 〈표 V-1-1〉

■ 코로나19 확산 전후 아동 연령별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행태의 변화

- ◆ 아동 연령별로 코로나19 확산 전후 시기별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비중을 살펴본 결과 아동 연령별로 코로나19 확산 전후 시기별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행태에 차이가 있음이 드러남.
- ◆ 만2세까지는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8년, 2019년에 비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비율이 감소한 후, 코로나19 발발 3년차인 2022년까지 2018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음.
- ◆ 만3세~만6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3차년도)에 반일제이상 기관 미이용 비율이 코로나19 발생 전(2018~2019년)에 비해 급증하였으나 2021년 이후 다시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이 증가하여 2022년에는 코로나19 확산 전 수준을 회복함. 이는 즉, 일상적으로 기관 이용 수요가 영아 보다 높은 유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기관 이용 욕구가 위축되었다 위험성의 감소세에 힘입어 빠르게 기관 이용 수요를 회복하고 있음을 보여줌.

〈표 2〉 연령별 및 연도별 영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비중(2018~2022년)

단위: %, (명)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어린이집	1차년도(2018년)	2.3 (3)	32.9 (94)	82.9 (283)	94.7 (348)
	2차년도(2019년)	2.0 (3)	24.3 (70)	81.1 (265)	95.2 (356)
	3차년도(2020년)	1.8 (3)	19.9 (57)	70.6 (227)	89.4 (315)
	4차년도(2021년)	1.3 (2)	26.7 (74)	74.5 (238)	90.2 (315)
	5차년도(2022년)	1.3 (2)	27.5 (88)	77.3 (259)	95.7 (379)
유치원	5차년도(2022년)	0.0 (0)	0.0 (0)	0.0 (0)	0.5 (2)
반일제이 상 학원	1차년도(2018년)	0.0 (0)	0.4 (1)	0.7 (2)	1.4 (5)
	2차년도(2019년)	0.0 (0)	0.0 (0)	0.7 (2)	0.9 (3)
	3차년도(2020년)	0.0 (0)	0.0 (0)	0.0 (0)	0.3 (1)
	4차년도(2021년)	0.7 (1)	0.0 (0)	0.0 (0)	0.5 (2)
	5차년도(2021년)	0.0 (0)	0.0 (0)	0.3 (1)	0.3 (1)
반일제이 상 기관 미이용	1차년도(2018년)	97.7 (140)	66.8 (192)	16.4 (56)	3.9 (15)
	2차년도(2019년)	98.0 (141)	75.7 (218)	18.2 (59)	3.9 (14)
	3차년도(2020년)	98.2 (140)	80.1 (231)	29.4 (95)	10.3 (36)
	4차년도(2021년)	98.0 (137)	73.3 (204)	25.5 (81)	9.3 (32)
	5차년도(2022년)	98.7 (154)	72.5 (232)	22.4 (75)	3.5 (14)

주: 1) 해당 연령 전체 대비 해당 서비스 이용자 비중과 수입.

2) 반일제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자료: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부록, p.433 <부표 V-1-1>

〈표 3〉 연령별 및 연도별 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비중(2018~2022년)

단위: %, (명)

구분	만4세	만5세	만6세	
어린이집	1차년도(2018년)	52.1 (190)	34.1 (125)	29.4 (120)
	2차년도(2019년)	63.3 (254)	40.1 (160)	31.8 (128)
	3차년도(2020년)	55.0 (221)	41.5 (180)	31.8 (136)
	4차년도(2021년)	58.6 (224)	44.0 (191)	32.6 (153)
	5차년도(2022년)	58.3 (221)	43.1 (169)	33.7 (140)
유치원	1차년도(2018년)	41.0 (149)	60.2 (220)	63.8 (260)
	2차년도(2019년)	33.3 (134)	56.7 (226)	64.4 (258)
	3차년도(2020년)	34.5 (139)	43.0 (186)	53.1 (227)
	4차년도(2021년)	40.0 (153)	52.8 (229)	63.9 (300)
	5차년도(2022년)	38.5 (146)	55.4 (217)	62.4 (259)

	구분	만4세	만5세	만6세
반일제이상 학원	1차년도(2018년)	5.1 (19)	5.4 (20)	6.6 (27)
	2차년도(2019년)	2.2 (9)	2.2 (9)	3.6 (14)
	3차년도(2020년)	1.4 (6)	1.6 (7)	2.4 (10)
	4차년도(2021년)	0.5 (2)	2.7 (12)	3.0 (14)
	5차년도(2022년)	1.3 (5)	1.3 (5)	3.4 (14)
반일제이상 기관 미이용	1차년도(2018년)	1.8 (7)	0.3 (1)	0.2 (1)
	2차년도(2019년)	1.2 (5)	1.0 (4)	0.2 (1)
	3차년도(2020년)	9.2 (37)	13.9 (60)	12.7 (54)
	4차년도(2021년)	0.9 (3)	0.5 (2)	0.4 (2)
	5차년도(2022년)	1.8 (7)	0.3 (1)	0.5 (2)

주: 1) 해당 연령 전체 대비 해당 서비스 이용자 비중과 수입.

2) 반일제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자료: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부록, p.434 <부표 V-1-2>

■ 코로나19 발생 전후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시간 변화

- ◆ 코로나19 발생 전후 시기별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시간을 살펴본 결과, 코로나19가 최초 발생하여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3차년도)에 어린이집을 이용한 경우 이용시간은 가장 길었고, 2021년(4차년도), 2022년(5차년도)까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평균 이용시간은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이는 코로나19가 최초 발생한 2020년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영어학원 등 기타 반일제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로 긴급돌봄체제로 운영되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반일제이상 기관의 장시간 이용이 불가피한 아동들로 이용자가 압축되면서 오히려 이용 아동들의 평균 이용시간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음(최효미 외, 2020: 140).
- ◆ 즉,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 상황에서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기관 외 가용한 돌봄 자원(인력, 본인의 제도 이용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서는 가정 내 돌봄을 확대하여 대응하였으나, 가정 내 돌봄을 위한 인력, 제도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영유아의 감염 위험을 감수하고 반일제이상 기관을 지속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음.

〈표 4〉 연도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주당 평균 이용시간(2018~2021년)

단위 : 시간, (명)

구분	1차년도(2018년)	2차년도(2019년)	3차년도(2020년)	4차년도(2021년)	5차년도(2022년)
어린이집	34.9 (1,163)	35.4 (1,235)	37.5 (1,139)	35.0 (1,196)	34.9 (1,177)
유치원	34.4 (630)	34.4 (617)	34.5 (551)	34.5 (682)	34.8 (648)
반일제이상 학원 등	28.3 (74)	29.7 (37)	34.5 (24)	29.5 (31)	35.1 (27)

주: 1) 반일제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2) 해당 서비스 이용자 기준으로 산출함.
 3) 3차년도 이용시간은 시간표로 조사된 시간을 합산한 값이며, 1차, 2차, 4차, 5차년도는 하루 이용시간에 5일로 곱하여 산출함.
 4) 자료 표의 5차년도 사례수에 오류가 있어 수정하여 제시함.
 자료: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170. 〈표 V-1-9〉

- ◆ 한편, 아동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시간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던 2020년(3차년도) 조사 결과를 영·유아를 구분해 가구 특성별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코로나19 상황에 서도 가구소득과 맞벌이 여부에 따라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시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 코로나19로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던 2020년(3차년도)에 반일제이상 기관을 이용한 경우,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에 비해,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시간이 길었던 것으로 나타남. 즉, 맞벌이 가구의 부모가 휴가·휴직, 재택근무 등의 가정 내 돌봄을 위한 제도 이용이 충분치 못한 경우에 주로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을 지속함으로써, 이용 아동 내에서 집계되는 반일제이상 기관 평균 이용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5〉 가구특성별 영아의 어린이집 주당 이용시간(2020년)

단위: 시간, (명)

구분	어린이집	
전체(2020)	37.3 (603)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39.9 (288)
	외벌이	34.8 (314)
	<i>t</i>	8.2***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34.8 (37)
	300~399만원 이하	35.1 (114)
	400~499만원 이하	36.8 (189)
	500~599만원 이하	38.2 (106)
	600만원 이상	39.3 (156)
	<i>F</i>	6.4***

자료: 최효미 외(2020).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p.141 〈표 V-1-5〉

〈표 6〉 가구특성별 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주당 이용시간(2020년)

단위: 시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등		
전체(2020)	37.9	(538)	34.5	(551)	34.9	(22)	
맞벌이 가구	맞벌이	39.9	(270)	37.5	(258)	33.7	(11)
	외벌이	35.8	(268)	31.9	(293)	36.3	(10)
여부	<i>t</i>	6.3***		7.4***		-1.2	
	299만원 이하	38.0	(36)	33.0	(30)	35.0	(1)
가구 소득	300~399만원 이하	36.0	(109)	33.5	(105)	42.5	(2)
	400~499만원 이하	37.1	(157)	33.4	(170)	33.7	(6)
	500~599만원 이하	39.0	(108)	34.0	(112)	37.6	(2)
	600만원 이상	39.5	(128)	37.5	(134)	33.5	(10)
	<i>F</i>	3.9**		4.7***		1.6	

자료: 최효미 외(2020).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p.159 〈표 V-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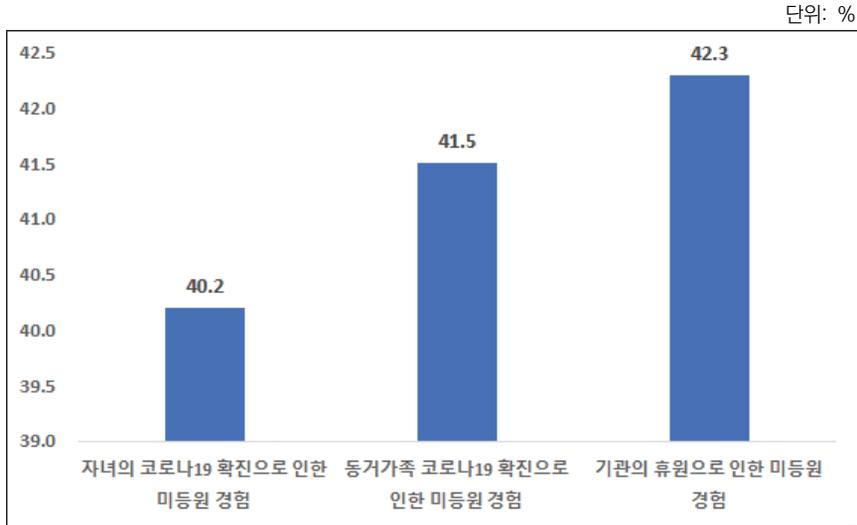
■ 코로나19로 인한 반일제이상 기관 미등원 경험

- ◆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2022년) 조사에서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이유로 반일제이상 기관을 등원하지 않은 경우²⁾의 미등원 사유와 미등원 일수를 조사함.
- ◆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가구의 코로나19로 인한 지난 1년간 미등원 일수는 평균 21.2일이었음. 이는 곧 평소 반일제이상 기관을 이용하던 가구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1년 중 21.2일을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였음을 의미함.
- ◆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유로 반일제이상 기관을 등원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모두 응답하도록 한 결과, ‘기관의 휴원’으로 인한 경우가 42.3%, ‘동거가족³⁾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경우 41.5%, ‘자녀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경우 40.2% 순으로 나타남.
- ◆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가구가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유로 이용하던 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가정에서의 돌봄을 위한 개별돌봄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하거나, 부모가 직접 돌보기 위한 제도 이용이 증가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 ◆ 단, 반일제이상 기관 미등원 사유 중 ‘자녀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경우는 감염 위험으로 인해 외부 인력에게 자녀 돌봄을 위탁할 수 없어 부모 또는 가까운 혈연 위주의 돌봄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됨.

2) 이는 반일제이상 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미등원한 경우를 의미함.

3) 동거가족에는 ‘부모’도 포함됨

[그림 1] 코로나19로 인한 사유별 기관 미등원 경험



출처: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182. [그림 V-1-4]

나. 개별돌봄서비스

■ 코로나19 시기별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변화

- ◆ 코로나19 발생 전후(소비실태조사 2차년도~5차년도)⁴⁾ 시기별 육아가구⁵⁾의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행태를 살펴봄.
- ◆ 개별돌봄서비스 이용률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2차년도)부터 발생 후인 2021년(4차년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2022년(5차년도)에 2021년(4차년도) 대비 다소(0.4%p) 감소하였으나 감소세로 전환한 것인지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 ◆ 한편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별 이용 비율을 시기별로 살펴본 결과, 코로나19가 최초 발발한 2020년(3차년도) 조사에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2차년도)에 비해 조부모, 친인척 돌봄의 비율은 증가,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4) KICCE 소비실태조사에서 개별돌봄서비스 이용에 대한 문항은 1차년도에는 아동별로 조사되었으나, 가구단위로 이용되는 행태를 고려해 2차년도 이후부터는 가구용 조사에서 가구단위로 조사하였음(최효미·이정원·박은정·김태우, 2020: 191). 이에 본고에서는 가구용 조사로 실시된 2차년도~5차년도 조사 결과를 비교하였음.

5) KICCE 소비실태조사 2~4차년도 조사에는 막내자녀가 초등학생인 가구를 포함하여 개별돌봄서비스 이용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으므로, '영유아가구'가 아닌 '육아가구'로 지칭함.

- ◆ 조부모와 친인척의 개별돌봄서비스 이용은 2020년(3차년도)에 크게 증가한 후 2021년(4차년도)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조부모의 경우는 2022년(5차년도) 조사에서 2019년(2차년도) 수준과 유사한 68.3%까지로 회귀하였고, 친인척 돌봄은 2021년(4차년도)부터 2019년(2차년도)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감소함.
- ◆ 반면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민간 육아도우미의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비율은 2020년(3차년도)에 크게 감소한 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 즉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3차년도)에는 반일제이상기관 등 집체보육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가정보육 수요가 증가하면서 개별돌봄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졌으나 감염에 대한 위기감이 높고 외부인력 이용에 대한 거부감이 커 조부모와 친인척 등 가족의 돌봄 비중이 높아졌던 것으로 볼 수 있음. 이후 코로나19가 지속되며 누적된 가족의 돌봄 부담 증가와 더불어 확산되는 일상생활의 회복 분위기로 가족 외 육아도우미의 이용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컸던 3차년도에는 자녀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뿐 아니라 외부 인력을 활용하는 개별돌봄서비스 이용도 모두 감소하였던 것을 알 수 있으며, 가정 내 양육으로 전환된 자녀 돌봄이 상당 부분 조부모 등 혈연과 가족에게 전가되었을 것으로 추측됨.

〈표 7〉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2019~2022년, 중복응답)

단위: %, (가구)

구분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가구 비율 ^{주1)}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별 이용 비율 ^{주2)주4)}				(수) ^{주5)}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민간 육아도우미	조부모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	
2차년도(2019년)	9.9	17.1	7.8	68.9	11.9	(193)
3차년도(2020년)	10.4	6.7	5.3	77.3	13.8	(225)
4차년도(2021년)	12.3	16.0	5.9	75.9	8.9	(237)
5차년도(2022년)	11.9	15.6	8.0	68.3	8.0	(206)

주: 1) 해당년도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가구 수(제공자별 중복하여 이용한 가구는 1사례로 봄)/ 조사대상 전체 가구 표본' * 100으로 산출함.

2) 각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 비율은 개별돌봄서비스 이용가구를 대상으로 한 응답 비율임.

3) 개별돌봄은 개별돌봄서비스로 부모가 아닌 사람(조부모, 친인척,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민간아이 도우미 등)이 가정에서 해당 아동(혹은 가구 내 아동)을 돌보는 경우를 의미함.

4) 개별돌봄서비스는 중복 이용으로 비중의 합이 100%를 초과함.

5) 자료 〈표 V-2-1〉의 2, 3, 5차년도 사례수 수정(2, 3차년도 연도별 사례수 뒤바뀜 수정, 5차년도 중복 이용 사례를 1사례로 선택)하여 활용함.

자료: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200. 〈표 V-2-1〉

-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인한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행태의 변화(5차년도 조사 결과)
 - ◆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가구 중 6.8%가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인해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가 바뀐 적이 있다고 응답함.

〈표 8〉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인한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 변화 여부(2022년)

단위: %, (가구)

구분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 변화 경험		(수)	
	있음	없음		
전체	6.8	93.2	(206)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8.3	91.7	(157)
	외벌이	2.0	98.0	(49)
	x2	2.3		

자료: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202. 〈표 V-2-4〉

- ◆ 개별돌봄서비스 동시 돌봄 자녀수에 변화가 있었던 경우는 6.3%이며, 변화가 있는 경우 동시 돌봄 자녀수가 줄어든 경우(1.5%) 보다는 증가한 경우가 많았음(4.9%).

〈표 9〉 코로나19로 인한 개별돌봄서비스 동시 돌봄 자녀 수 변화(2022년)

단위: %, (가구)

개별돌봄서비스 동시 돌봄 자녀 수 변화 경험			(수)
돌봄 자녀수 늘어남	돌봄 자녀수 줄어듦	변화 없음	
4.9	1.5	93.7	(206)

자료: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203. 〈표 V-2-5〉

- ◆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1년간 개별돌봄서비스 이용시간에 변화가 있었던 경우는 15.0%에 해당하였음. 변화가 있는 경우 대부분(13.1%)이 이용시간이 증가함.

〈표 10〉 코로나19로 인한 개별돌봄서비스 이용시간 변화(2022년)

단위: %, (가구)

구분	개별돌봄서비스 이용시간 변화			(수)	
	이용시간 증가	이용시간 감소	변화 없음		
전체	13.1	1.9	85.0	(206)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4.6	1.3	84.1	(157)
	외벌이	8.2	4.1	87.8	(9)
	x2	2.8			

자료: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203. 〈표 V-2-6〉

- ◆ 코로나19로 인한 개별돌봄서비스 이용비용의 변화를 겪은 경우는 7.3%이며, 이중 대부분은(5.8%) 비용이 증가한 경우였음.

〈표 11〉 코로나19로 인한 개별돌봄서비스 이용비용 변화(2022년)

단위: %, (가구)

비용증가	개별돌봄서비스 이용비용 변화			(수)
	비용감소	변화 없음		
5.8	1.5	92.7		(206)

자료: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203. 〈표 V-2-7〉

- ◆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가구 중 코로나19로 인한 이용 행태의 변화가 있었던 경우,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 1인이 돌봐야하는 아동수의 증가, 이용시간의 증가, 비용증가 등 개별돌봄서비스 이용의 부담이 증가하는 변화를 겪었던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다.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

■ 코로나19 시기의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 정도 변화

- ◆ KICCE 소비실태조사 2021년(4차년도), 2022년(5차년도) 조사에서 코로나19 시기 영유아 부모들의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 정도를 살펴봄.
- ◆ 2021년(4차년도), 2022년(5차년도)에 일자리가 있었던 응답자 본인과 배우자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 4차년도 대비 5차년도에 부, 모 모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이용은 증가함.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이용 경험 비율은 2021년(4차년도)보다 2022년(5차년도)에 오히려 감소함.

〈표 12〉 부모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 경험(2021~2022년)

단위: %

구분	아버지		어머니	
	4차년도(2021)	5차년도(2022)	4차년도(2021)	5차년도(2022)
출산휴가	6.7	8.9	13.6	15.9
육아휴직	2.8	3.6	18.6	21.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6	0.8	6.7	5.8

자료: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104. 〈표 III-3-15〉

- ◆ 2022년(5차년도) 조사 결과 가족돌봄휴직 이용은 아버지 0.5%, 어머니 1.0%로 4차년도(2021)년 조사 결과에 비해서도 감소함. 가족돌봄휴가는 5차년도 조사에서 아버지 2.1%, 어머니 4.2%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4차년도 조사 대비 증가함.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는 5차년도에만 아버지 0.6%, 어머니 1.5%가 이용하였으며, ‘가족돌봄휴직’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남.
- ◆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의 이용율은 매우 낮지만, 본 제도들은 코로나19 시기에 맞물려 도입되고 주목받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임.

〈표 13〉 부모의 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휴가 등 이용 경험(2021~2022년)

단위: %

구분	아버지		어머니	
	4차년도 (2021)	5차년도 (2022)	4차년도 (2021)	5차년도 (2022)
가족돌봄휴직	1.0	0.5	2.1	1.0
가족돌봄휴가	1.9	2.1	3.1	4.2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0.6	-	1.5

자료: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105. 〈표 III-3-17〉

- ◆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도 이용 경험은 2022년(5차년도)에 2021년(4차년도) 대비 거의 모든 유형의 유연근무제도 이용이 줄어들음. 유연근무제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린이집, 유치원의 휴원 및 학교의 휴교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에 대응하고자 활성화된 측면이 있었음⁶⁾. 따라서 2022년에는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기관의 휴원·휴교가 없어 다시 이용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 단, 유연근무제도는 단지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한 긴급한 돌봄 공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취업한 부모의 일상적인 일-가정 양립의 수월성을 지원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활용이 아닌 일상적인 정착과 재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6) 이투데이(2020. 2. 25.). 코로나19 ‘심각’ 대응...이커머스 업계, 재택근무 확산
<https://www.etoday.co.kr/news/view/1861492>(인출일: 2023. 6. 23.)

〈표 14〉 부모의 유연근무제도 이용 경험(2021~2022년)

단위: %

구분	아버지		어머니	
	4차년도(2021)	5차년도(2022)	4차년도(2021)	5차년도(2022)
재택근무	11.3	10.5	14.5	12.6
시차출퇴근	4.0	3.5	6.5	4.6
선택근로제	2.1	1.7	2.7	3.2
원격근무	3.5	2.1	3.3	3.0
전환형시간선택제	0.7	0.2	1.9	1.0

자료: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106. 〈표 III-3-19〉

3 정책 제언

- ◆ 코로나19와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한 돌봄 공백의 상황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지원 체계를 상시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국가적 긴급 상황·재난 상황에서의 기관 돌봄서비스의 대응 강화

- ◆ 코로나19 발생의 사례에서 부모 취업 등 긴급한 돌봄 공백 발생시 휴가, 휴직, 재택근무 등을 활용한 가정 내 돌봄으로의 전환으로 대응이 어려웠던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됨. 이 경우 반일제이상 기관도 장시간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남.
- ◆ 가정의 인적 자원과 근로 환경의 특성에 따라 가정 내 돌봄으로의 대응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영유아가 이용하는 반일제이상 기관에서도 휴원·휴교 조치 이외 긴급·재난 상황의 단계별 대응 체계의 구축을 우선적으로 모색해야 함.
- ◆ 위기 상황의 유형과 기관 돌봄의 가능성, 적절성 정도를 고려한 세분화된 대응 메뉴얼 마련과 콘트롤 타워의 상시적 운영이 필요함.

■ 돌봄 공백 대응을 위한 목적성 휴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 ◆ KICCE 소비실태조사 1~5차년도 조사를 통해 코로나19 발생 전후의 양육 형태와 육아서비스 이용을 비교한 결과 긴급 돌봄 상황 중에서도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돌봄 공백의 경우 결과적으로 외부 인력에 의한 개별돌봄서비스, 집단보육서비스 보다는 부모 등 혈연 위주의 가정 내 돌봄으로 대응이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었음.

- ◆ ‘긴급한 상황’에서의 돌봄 공백에 대해서 영유아 가구들은 ‘부모의 직접 돌봄’을 가장 희망하며, ‘부모 직접 돌봄’의 방식으로서는 육아휴직 같은 중장기의 휴직을 사용하기 보다는 긴급 돌봄 공백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한정된 일시,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휴가’의 형태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즉, 전 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 풍수해 등 자연재해와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긴급한 돌봄 공백’ 대응을 위해서는 부모의 연차 등을 활용한 개인적인 대응보다는 ‘가족돌봄휴가제도’와 같은 특수 목적성의 휴가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가족돌봄휴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휴가 사용 일수의 연장’ 및 ‘비용지원 확대’가 필요할 것임.

■ 재택근무의 일상적 제도로의 정착

- ◆ 업무와 자녀 돌봄을 한 공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활성화하여 취업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일상적인 제도로의 정착이 필요함.
- ◆ KICCE 소비실태조사의 결과 4차년도(2021년) 대비 5차년도(2022년)의 각 유형별 유연근무제도의 이용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20년 코로나19를 계기로 활성화되었던 ‘재택근무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약화되면서 다시 이용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그러나, 재택근무제도와 같은 유연근무제도는 단지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돌봄 상황에서만 필요한 제도가 아니라 육아 가구 또는 자녀가 없는 근로자라도 일상적인 일-가정 양립을 위해 활성화가 필요한 지원임. 항상 시간이 부족한 취업 부모에게 가장 유용할 수 있으나 더불어 모든 가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 대한 인식 개선이 반드시 필요함.
- ◆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에서 발표한

7) 중앙일보(2023.04.10.). “이제 회사 출근하세요”...재택근무 ‘멸종 위기’ 곳곳 신경전.(인출일: 2023. 5. 24.)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 이행력 강화’, ‘육아기 단축근로 및 유연근무 활성화’(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합동, 2023. 3. 28.)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근로자가 ‘반드시 휴가나 휴직을 하지 않더라도 적절히 근로와 돌봄을 조절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할 수 있도록’ 적합 업종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유연근무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긴급한 돌봄 공백에 대한 대응으로 증가한 가정 내 양육 의 부담과 이와 관련한 그림자비용에 대한 고려 필요.
 - ◆ 가정 내 돌봄을 위해 부모의 휴직, 무급휴가 등의 이용을 통한 소득의 감소나 경력 단절, 취업 포기 등 간접적 비용 발생, 저비용의 조부모 돌봄 의존 현상이 있지 않았는지 검토를 통해 이러한 그림자비용을 줄이기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긴급한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휴가, 휴직, 재택근무 등의 활용에 있어 성별 격차와 그에 따른 여성의 양육 부담 가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남성의 제도 이용과 긴급 돌봄 역할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I 참고 문헌 I

이정원·이재희·김자연·우석진·김태우(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합동(2023. 3. 28.).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

전지원·차승은·은기수(2022). 코로나 19 시기 재택근무가 남녀 취업자의 일-가족 양립에 미친 영향. 한국인구학, 45(3), 27-50.

조숙인·김나영·김재희·김영민(2021). 코로나19 대응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국제비교. 육아정책연구소.

최효미·이정원·박은정·김태우(2020).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 (Ⅲ). 육아정책연구소.

한국갤럽(2021). 직장인 조사 2021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갤럽리포트.

[뉴스·신문기사]

이투데이(2020. 2. 25.). 코로나19 '심각' 대응...이커머스 업계, 재택근무 확산
<https://www.etoday.co.kr/news/view/1861492>(인출일: 2023. 6. 23.)

중앙일보(2023.04.10.). “이제 회사 출근하세요”...재택근무 ‘멸종 위기’ 곳곳 신경전.(인출일: 2023. 5. 24.)

HIT news(2020. 8.29). ‘거리두기 3단계 같은 2.5단계...제약 재택근무 전격 전환?’.(인출일: 2023. 5. 24.).

| 이슈페이퍼 2023-04 |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영유아의 발달 현황

최은영

1. 배경
 2. 팬데믹을 경험한 영유아의 발달 현황
 3. 팬데믹을 경험한 영유아 발달 비교
 4. 제언
- 참고문헌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영유아의 발달 현황*

최은영 선임연구위원

◆◆ 요약 ◆◆

- 본 글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영유아의 성장·발달을 영유아 개인, 가정, 기관 요인 별로 분석함. 발달 검사에 참여한 만 2세반 영아의 평균 월령은 약 38.69개월(sd=3.37)이었고, 만 5세반 유아의 평균 월령은 약 75.27개월(sd=3.26)임.
- 인지능력은 만 2세반 영아가 110.92(sd=15.09)이고, 5세반 유아 107.20(sd=15.21)으로 평균수준으로 나타났고, 만 2세반 영아의 적응행동 종합점수는 105.66(sd=17.30)이고 만 5세반 유아 107.70(sd=12.89)으로 인지능력과 마찬가지로 평균 수준으로 나타남.
- 가구 특성별로는 맞벌이 가정의 영유아는 그림명명 소검사를 중심으로 어휘습득지표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외벌이 가정의 영유아는 선택하기를 중심으로 처리속도 지표에서 높은 수행 수준을 보임.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행렬추리 소검사를 중심으로 유동추론지표가 소득이 높은 가정의 영유아가 높은 수행 수준을 보임.
- 분석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 팬데믹이 영향과 격차 요인들을 중장기적으로 추적하는 연구의 필요성, 맞춤형 지원에 대해 논의하고 제언함.

1

배경

-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전 세계적으로 국경 폐쇄, 사회적 거리두기, 교육과 돌봄의 중단 등을 야기했고, 이에 따른 경제 위기, 사회 불평등 심화 등으로 전반적인 혼란을 초래함(CDC, 2020; The World Bank, 2020).
- ◆ 재난의 위협은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다가갈 수 있으나, 재난의 고통은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취약계층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을 피하는 것도 힘겹지만, 대유행이 몰고

* 본고의 내용은 육아정책연구소의 2022년 일반과제인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연구(1)(최은영 외)」의 일부를 토대로 작성함.

은 경제적 충격에는 더 취약함(구인회, 2021).

- 가정배경의 차이로 인한 교육격차의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새로 등장한 문제는 아니지만, 학교의 기능과 역할을 가정으로 고스란히 옮겨온 것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교육격차의 실태를 만들었다(이정연, 2021)는 지적도 있음.
 -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거주환경의 차이에 따른 초등학생의 시간 사용을 분석한 연구 결과(이시효, 2020),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의 학습시간은 증가한 경우가 많고,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은 학습시간이 감소한 경우가 더 많았으며,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의 게임시간이 더 긴 것으로 보고됨.
- 영유아도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권혜진(2021)은 보육교사의 자가 격리로 인해 학급이 통합 운영되거나, 일부 영유아들만 등원하는 등의 상황으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웠으며, 등원하지 못한 영유아와 그렇지 못한 영유아 간의 아동의 적응 차이로 인해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함.
 - ◆ 장시간 가정에서 보내는 유아들은 가정에서의 교육적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자녀에게 교육적 지원이나 환경적 자극을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운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의 유아들에게 장기간의 가정양육은 교육 기회의 박탈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최혜영·유준호·권수정·장경은, 2021).
- 미국 질병 관리본부(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서도 코로나19가 만 0세에서 만 5세 영유아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직접적인 감염 외에도 영유아의 사회, 정서, 정신 건강을 비롯한 아동 삶의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더욱 큰 관심이 필요하다고(CDC, 2020) 지적함.
 - ◆ 박영심·신지현·최희경·박영숙(2021)이 코로나19 전후 영아의 발달 변화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비대면 접촉, 마스크 착용, 외출자제 등은 영아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방해하여 모방과 학습 등을 통한 영아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보고함.
 - ◆ 교육·보육·돌봄 기관의 휴원과 휴업, 교육체계의 붕괴(학교 휴교 및 폐쇄 조치)는 교육·보육·돌봄의 영역과 성과에 국한되지 않고, 영유아와 지역사회 전반의 건강한 성장과 유지에 필요한 필수적인 서비스와 운용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침.
- 본 글에서는 영유아기의 팬데믹의 영향이 실질적으로 영유아 발달의 격차를 가져왔

는지, 격차를 가져온 영향 요인들의 완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이에 만 2세반 영아, 만 5세반 유아(각각 100명, 총 200명)를 대상으로 발달검사를 (K-WPPSI-IV, K-Vineland-2) 수행하였으며, 결과를 토대로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 현황을 분석함.

2 팬데믹을 경험한 영유아의 발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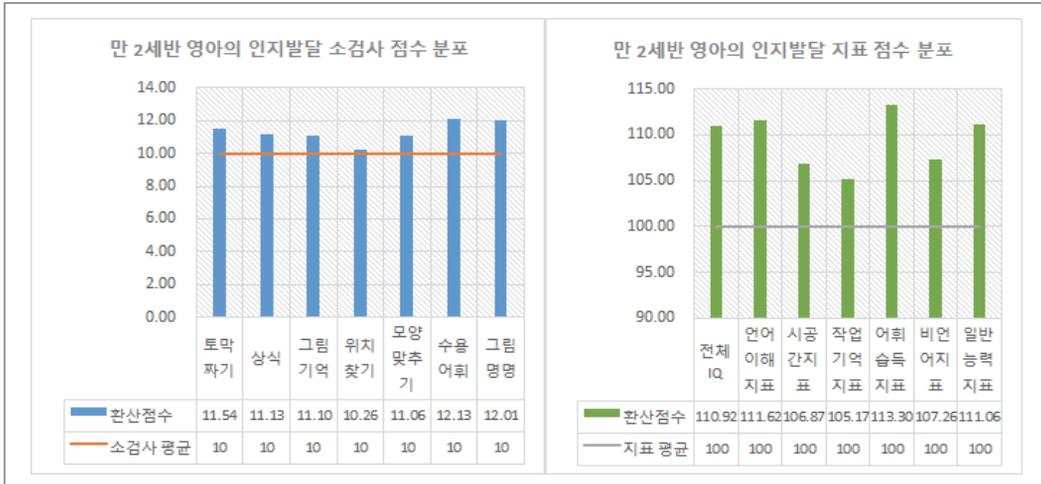
- 본 절에서는 만 2세반 영아 총 100명, 만 5세반 유아 100명의 인지발달(K-WPPSI-IV) 검사와 적응행동(K-Vineland-2) 검사 결과를 항목별로 비교하여 제시함.
- ◆ 만 2세반 영아의 평균 월령은 약 38.69개월(sd=3.37)이었고, 남아 55명, 여아 45명이 참여하였으며, 만 5세반 유아의 평균 월령은 약 75.27개월(sd=3.26)이었고, 남아 54명, 여아46명이 참여함.

가. 만 2세반 영아의 인지능력 및 적응행동 발달

1) 만 2세반 영아의 인지능력 발달

- 만 2세반 영아의 인지발달(K-WPPSI-IV) 검사결과, 전체 IQ는 110.92(sd=15.09)로 평균 범위로 나타남.
- ◆ 기본지표의 평균을 살펴보면, 언어이해지표 111.62(sd=16.26), 시공간지표 106.87(sd=14.18), 작업기억지표 105.17(sd=16.19)이었고, 추가지표의 평균은 어휘습득지표 113.30(sd=15.19), 일반능력지표 111.06(sd=15.33), 비언어지표 107.26(sd=14.84)임.
- ◆ 소검사의 환산점수의 범위는 10.26~12.13(sd=2.71~3.36)로 수용어휘(M=12.13, sd=3.36)와 그림명명(M=12.01, sd=2.87) 점수가 가장 높고, 위치찾기(M=10.26, sd=2.92)가 가장 낮으나 모두 평균 수준임.
- ◆ 만 2세반 영아의 경우, 수용어휘나 그림명명 소검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임.

[그림 1] 만 2세반 영아의 인지발달 소검사 및 지표 점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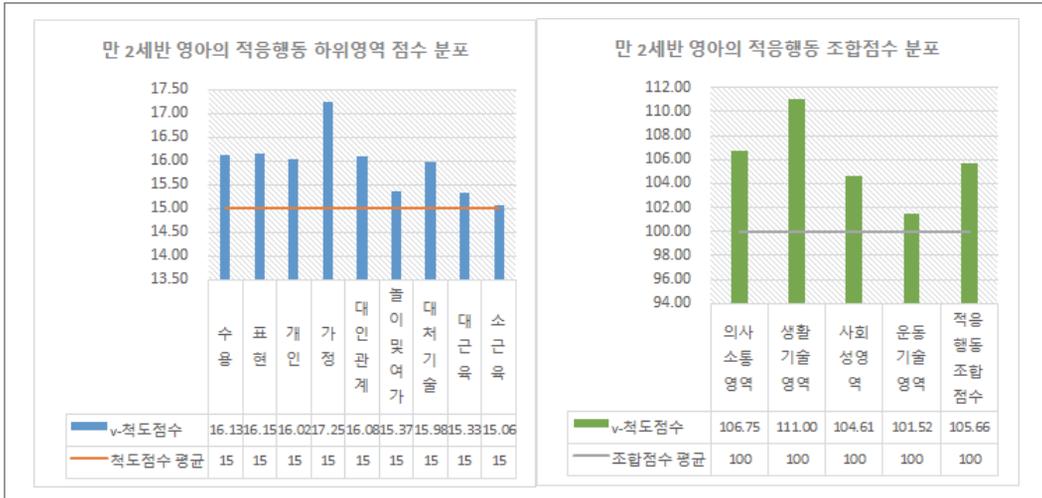
주: 1) 만 2세반의 경우 행렬추리, 동형찾기, 공통성, 공통그림찾기, 선택하기 소검사와 유동추론지표, 처리속도지표, 인지효율성지표는 산출되지 않아 제시되지 않음.
 2) 토막짜기, 상식, 그림기억, 위치찾기, 모양맞추기, 수용어휘, 그림명명 소검사의 경우 평균 10, 표준편차 3의 환산점수로 제시됨.
 3) 전체IQ, 언어이해지표, 시공간지표, 작업기억지표, 어휘습득지표, 비언어지표, 일반능력지표의 경우 평균 100, 표준편차 15의 지표점수로 제시됨.
 자료: 최은영 외(2022).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연구(1), p.126. <표 IV-2-5>를 재구성함.

2) 만 2세반 영아의 적응행동 발달

■ 만 2세반 영아의 적응행동(K-Vineland-2) 조합점수는 105.66점(sd=17.30)임.

- ◆ 주영역의 전체 평균을 살펴보면, 의사소통 영역 106.75(sd=14.14), 생활기술 영역 111.00(sd=19.61), 사회성 영역 104.61(sd=17.55), 운동기술 영역 101.52(sd=16.73)임.
- ◆ 하위영역의 v-척도점수의 평균은 15.05~17.25(sd=2.05~3.86)로 소근육(M=15.06, sd=3.61)과 대근육(M=15.33, sd=2.05) 하위영역이 가장 낮고, 가정(M=17.25, sd=3.27) 하위영역이 가장 높음.
- ◆ 만 2세반 영아의 적응행동 중 가정 하위영역은 높은 경향을 보이며, 운동기술 영역의 소근육 하위영역의 적응행동이 다소 낮은 경향을 보임.

[그림 2] 만 2세반 영아의 적응행동 하위영역 및 조합 점수 분포



주: 1) 수용, 표현, 개인, 가정, 대인관계, 놀이 및 여가, 대처기술, 대근육, 소근육 하위영역의 경우 평균 15, 표준편차 3의 v-적도 점수로 제시됨.

2) 의사소통영역, 생활기술영역, 사회성영역, 운동기술영역, 적응행동 조합점수의 경우 평균 100, 표준편차 15의 표준점수로 제시됨.

자료: 최은영 외(2022).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연구(1), p.127. <표 IV-2-6>을 재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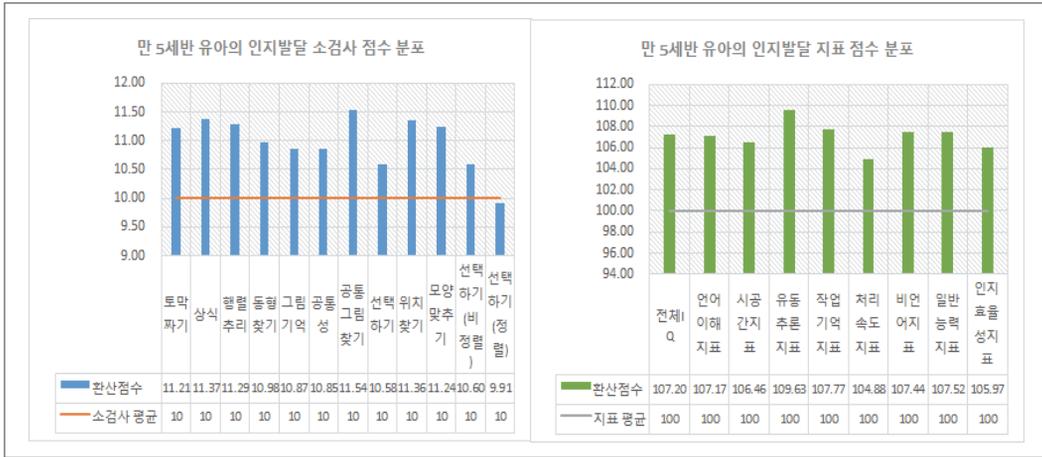
나. 만 5세반 유아의 인지능력 및 적응행동 발달

1) 만 5세반 유아의 인지능력 발달

■ 만 5세반 유아의 인지발달(K-WPPSI-IV) 검사결과, 전체 IQ는 107.20(sd=15.21)로 평균 범위로 나타남.

- ◆ 기본지표의 평균을 살펴보면, 언어이해지표 107.17(sd=13.59), 시공간지표 106.46(sd=15.70), 유동추론지표 109.63(sd=15.44), 작업기억지표 107.77(sd=14.05)이고, 추가지표의 평균은 비언어지표 107.44(sd=15.02), 일반능력지표 17.52(sd=16.26), 인지효율성지표 105.97(sd=14.46)임.
- ◆ 소검사의 환산점수의 범위는 10.58~11.54(sd=2.54~3.67)로 공통그림찾기(M=11.54, sd=2.54)가 가장 높고 선택하기(M=10.58, sd=2.81)가 가장 낮으나 모두 평균 수준임.
- ◆ 만 5세반 유아의 경우, 전반적으로 평균 수준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거나 처리속도지표가 다소 낮은 경향을 보이며 선택하기 소검사 점수에서 다소 낮은 경향을 보임.

[그림 3] 만 5세반 유아의 인지발달 소검사 및 지표 점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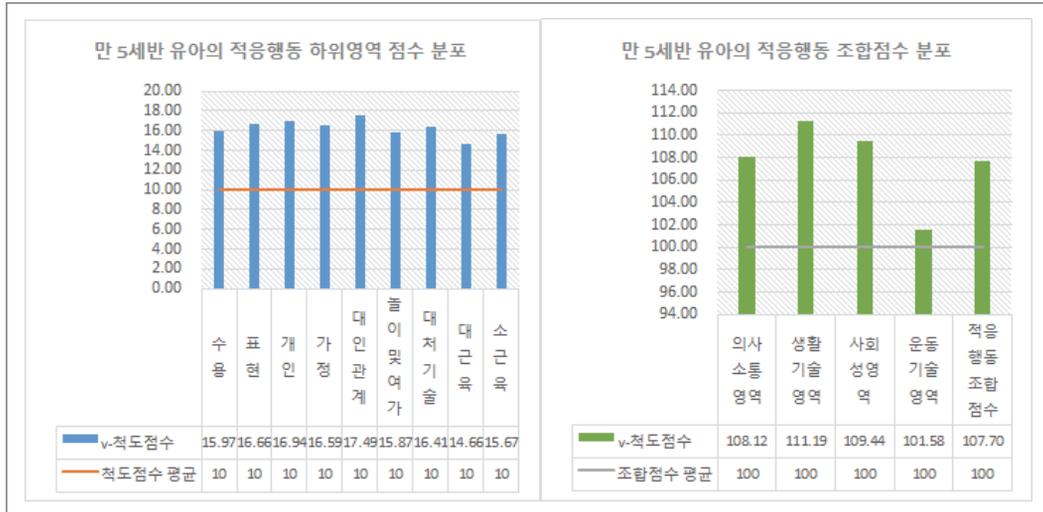
- 주: 1) 만 5세반의 경우 수용어휘, 그림명명 소검사와 어휘습득지표는 산출되지 않아 제시되지 않음.
 2) 토막짜기, 상식, 행렬추리, 동형찾기, 그림기억, 공동성, 공동그림찾기, 선택하기, 위치찾기, 모양맞추기, 선택하기(비정렬), 선택하기(정렬) 소검사의 경우 평균 10, 표준편차 3의 환산점으로 제시됨.
 3) 전체Q, 언어이해지표, 시공간지표, 유동추론지표, 작업기억지표, 처리속도지표, 비언어지표, 일반능력지표, 인지효율성지표의 경우 평균 100, 표준편차 15의 지표점으로 제시됨.

자료: 최은영 외(2022).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연구(1), p.131. <표 V-2-11>을 재구성함.

2) 만 5세반 유아의 적응행동 발달

- 만 5세반 유아(N=100)의 적응행동(K-Vineland-2) 조합점수는 107.70점(sd=12.89)임.
 - ◆ 주영역의 평균을 살펴보면, 의사소통 영역 108.12(sd=14.64), 생활기술 영역 111.19(sd=16.54), 사회성 영역 109.44(sd=14.76), 운동기술 영역 101.58(sd=11.66)임.
 - ◆ 하위영역의 v-척도점수의 평균은 14.66~17.49(sd=2.02~3.11)로 대근육(M=14.66, sd=2.18)과 소근육(M=15.67, sd=2.02) 하위영역이 가장 낮고, 대인관계(M=17.49, sd=2.64) 하위영역이 가장 높음.
 - ◆ 만 5세반 유아의 적응행동 중 생활기술 영역의 대인관계 하위영역이 다소 높고, 운동기술 영역의 대근육과 소근육 하위영역의 적응행동이 다소 낮은 경향을 보임.

[그림 4] 만 5세반 유아의 적응행동 하위영역 및 조합 점수 분포



주: 1) 수용, 표현, 개인, 가정, 대인관계, 놀이 및 여가, 대처기술, 대근육, 소근육 하위영역의 경우 평균 15, 표준편차 3의 v-척도 점수로 제시됨.

2) 의사소통영역, 생활기술영역, 사회성영역, 운동기술영역, 적응행동 조합점수의 경우 평균 100, 표준편차15의 표준점수로 제시됨.

자료: 최은영 외(2022).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연구(1), p.132. <표 IV-2-12>를 재구성함.

3 팬데믹을 경험한 영유아 발달 비교

- 본 절에서는 만 2세반 영아와 만 5세반 유아의 인지발달(K-WPPSI-IV)과 적응행동(K-Vineland-2)을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를 분석함.

가. 가구 특성에 따른 만 2세반 영아의 발달 비교

1) 맞벌이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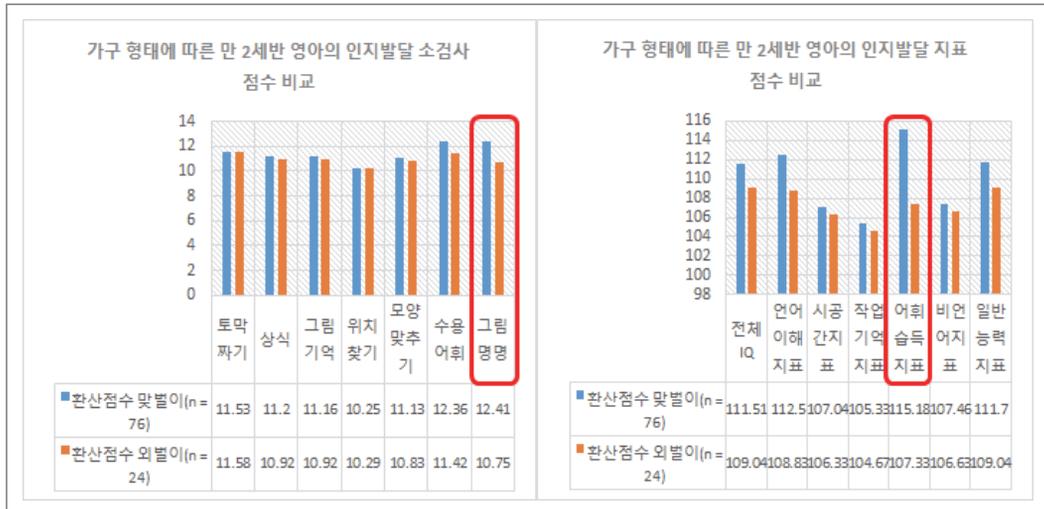
- 만 2세반 영아의 K-WPPSI-IV 검사결과, 맞벌이 가정 영아의 평균은 111.51(sd=14.78), 외벌이 가정 영아의 평균은 109.04(sd=16.22)로 취업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 추가지표의 경우, 어휘습득지표에서 맞벌이 가정 영아의 평균은 115.18(sd=13.80),

외별이 가정 영아의 평균은 107.33(sd=17.97)으로 취업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t=2.253, p=.027), 외별이 가정의 영아가 맞별이 가정의 영아보다 낮은 어휘습득 수준을 보임. 반면, 비언어지표, 일반능력지표는 취업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 소검사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그림명명에서만 맞별이 가정 영아의 평균은 12.41(sd=2.55), 외별이 가정 영아의 평균은 10.75(sd=3.48)로 취업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t=2.531, p=.013).
- ◆ 전반적으로 맞별이와 외별이 가정의 만 2세반 영아의 인지능력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휘습득에 있어 맞별이 가정의 만 2세반 영아의 인지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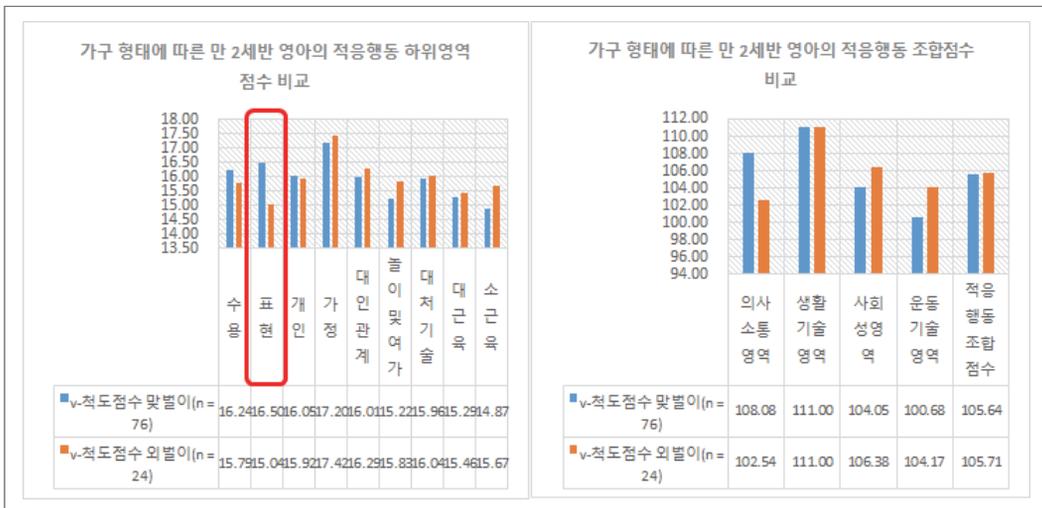
[그림 5] 가구에 따른 만 2세반 영아의 인지발달 점수 비교



주: 1) 만 2세반의 경우 행렬추리, 동형찾기, 공통성, 공통그림찾기, 선택하기 소검사와 유동추론지표, 처리속도지표, 인지효율성 지표는 산출되지 않아 제시되지 않음.
 2) 토막짜기, 상식, 그림기억, 위치찾기, 모양맞추기, 수용어휘, 그림명명 소검사의 경우 평균 10, 표준편차 3의 환산점수로 제시됨.
 3) 전체IQ, 언어이해지표, 시공간지표, 작업기억지표, 어휘습득지표, 비언어지표, 일반능력지표의 경우 평균 100, 표준편차 15의 지표점수로 제시됨.
 자료: 최은영 외(2022).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연구(1), p.138. <표 IV-3-9>를 재구성함.

- 만 2세반 영아의 적응행동검사 결과, 맞벌이 가정 영아의 적응행동 조합점수 평균은 105.64(sd=17.84), 외벌이 가정 영아의 적응행동 조합점수 평균은 105.71(sd=15.82)로 취업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 모든 주영역에서도 취업여부에 따른 만 2세반 영아의 적응행동 주영역 표준점수에는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6] 가구 형태에 따른 만 2세반 영아의 적응행동 점수 비교



주: 1) 수용, 표현, 개인, 가정, 대인관계, 놀이 및 여가, 대처기술, 대근육, 소근육 하위영역의 경우 평균 15, 표준편차 3의 v-최도 점수로 제시됨.
 2) 의사소통영역, 생활기술영역, 사회성영역, 운동기술영역, 적응행동 조합점수의 경우 평균 100, 표준편차15의 표준점수로 제시됨.
 자료: 최은영 외(2022).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연구(1), p.146. <표 IV-3-19>를 재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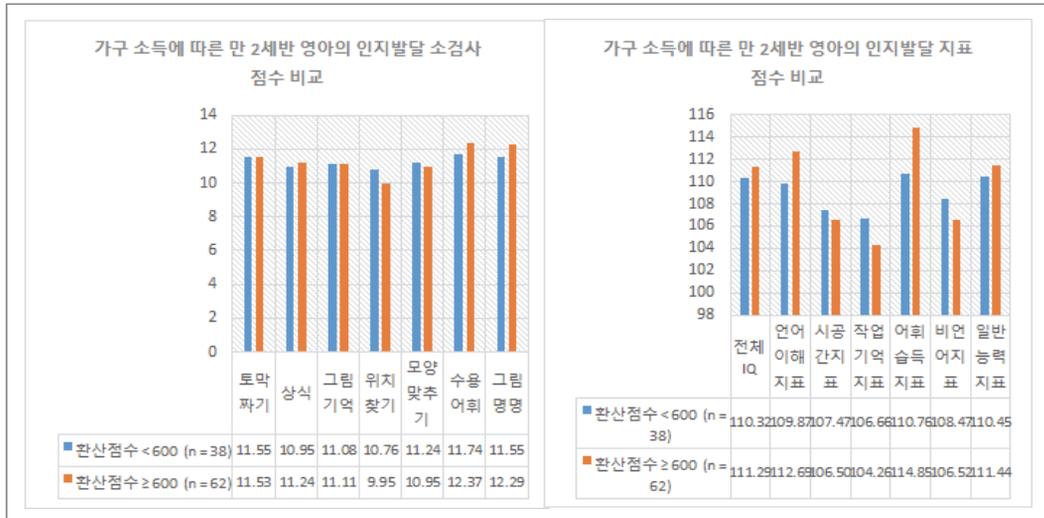
- ◆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표현에서만 맞벌이 가정 영아의 v-최도점수 평균은 16.50 (sd=2.70), 외벌이 가정 영아의 v-최도점수의 평균은 15.04(sd=2.84)로 취업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t=2.279, p=.025), 외벌이 가정에 비해 맞벌이 가정 영아의 표현 점수가 높음.
- ◆ 전반적으로 맞벌이와 외벌이 가정의 만 2세반 영아의 적응행동에 차이가 없었으나, 의사소통 영역 중 표현에서 외벌이 가정에 비해 맞벌이 가정의 만 2세반 영아의 적응 행동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2) 가구 소득

■ 가구 소득은 전체 표본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는데, 만 2세반 영아의 K-WPPSI-IV 검사결과, 가정의 수입이 600만원 미만인 가정 영아의 전체 IQ 평균은 110.32(sd=16.30), 600만원 이상 가정 영아의 평균은 111.29(sd=14.43)로 가계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 기본지표와 소검사 수준에서도 가계소득에 따른 만 2세반 영아의 인지능력에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그림 7] 가구 소득(2집단)에 따른 만 2세반 영아의 인지발달 점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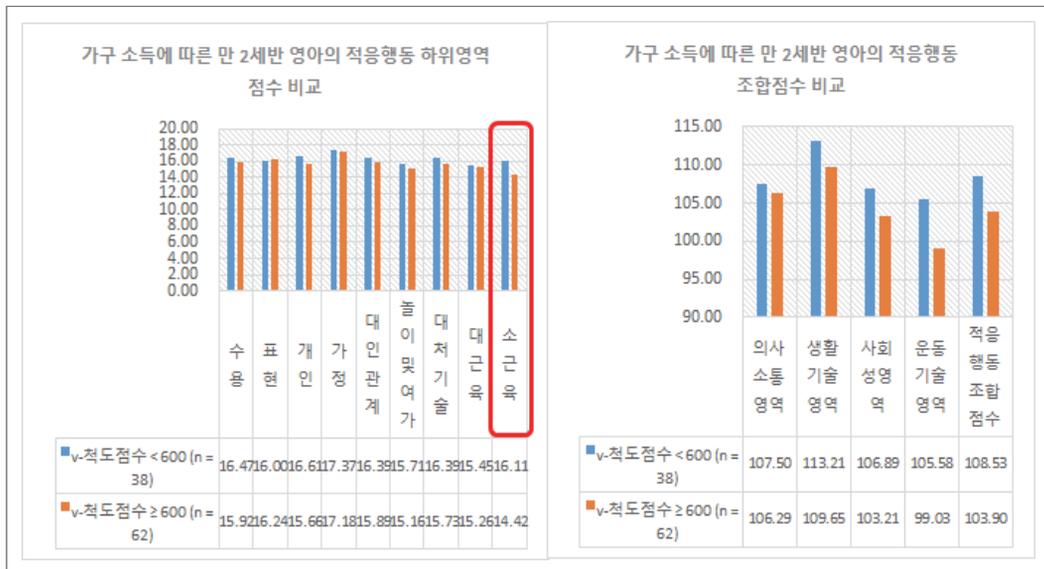
- 주: 1) 2세반의 경우 행렬추리, 동형찾기, 공통성, 공통그림찾기, 선택하기 소검사와 유동추론지표, 처리속도지표, 인지효율성지표는 산출되지 않아 제시되지 않음.
 2) 토막짜기, 상식, 그림기억, 위치찾기, 모양맞추기, 수용어휘, 그림명명 소검사의 경우 평균 10, 표준편차 3의 환산점수로 제시됨.
 3) 전체IQ, 언어이해지표, 시공간지표, 작업기억지표, 어휘습득지표, 비언어지표, 일반능력지표의 경우 평균 100, 표준편차 15의 지표점으로 제시됨.

자료: 최은영 외(2022).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연구(I), p.140. <표 IV-3-11>을 재구성함.

■ 만 2세반 영아의 적응행동검사 결과, 가정의 수입이 600만원 미만인 가정 영아의 적응행동 조합점수 평균은 108.53(sd=16.65), 600만원 이상 가정 영아의 전체 적응행동 조합점수의 평균은 103.90(sd=17.59)로 가계소득에 따라 만 2세반 영아의 적응행동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 ◆ 모든 주영역에서도 가계소득에 따른 만 2세반 영아의 적응행동 주영역 표준점수에는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소근육에서만 600만원 미만인 가정 영아의 적응행동 점수가 16.11(sd=3.39), 600만원 이상인 가정 영아의 점수가 14.42(sd=3.61)로 가계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t=2.317, p=.023$).

[그림 8] 가구 소득(2집단)에 따른 만 2세반 영아의 적응행동 점수 비교



주: 1) 수용, 표현, 개인, 가정, 대인관계, 놀이 및 여가, 대처기술, 대근육, 소근육 하위영역의 경우 평균 15, 표준편차 3의 v-척도 점수로 제시됨.

2) 의사소통영역, 생활기술영역, 사회성영역, 운동기술영역, 적응행동 조합점수의 경우 평균 100, 표준편차 15의 표준점수로 제시됨

자료: 최은영 외(2022).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연구(1), p.141. <표 IV-3-12>를 재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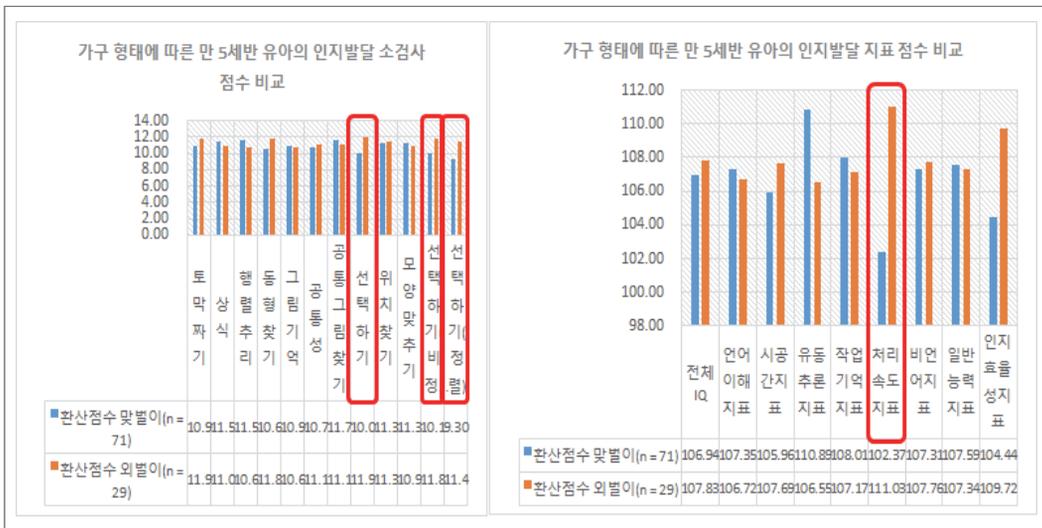
나. 가구 특성에 따른 만 5세반 유아의 발달 비교

1) 맞벌이 여부

- 만 5세반 유아의 K-WPPSI-IV 검사결과, 맞벌이 가정 유아의 전체 IQ 평균은 106.94 (sd=15.39), 외벌이 가정 유아의 전체 IQ 평균은 107.83(sd=15.00)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 ◆ 기본지표의 경우, 처리속도지표는 맞벌이 가정 유아가 102.37(sd=13.30), 외벌이 가정의 유아가 111.03(sd=13.10)으로 외벌이 가정 유아가 맞벌이 가정 유아보다 높아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t=-2.97, p=.004$).
- ◆ 전반적으로 맞벌이와 외벌이 가정의 만 5세반 유아의 인지능력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처리속도지표와 선택하기 소검사에서 외벌이 가정의 유아들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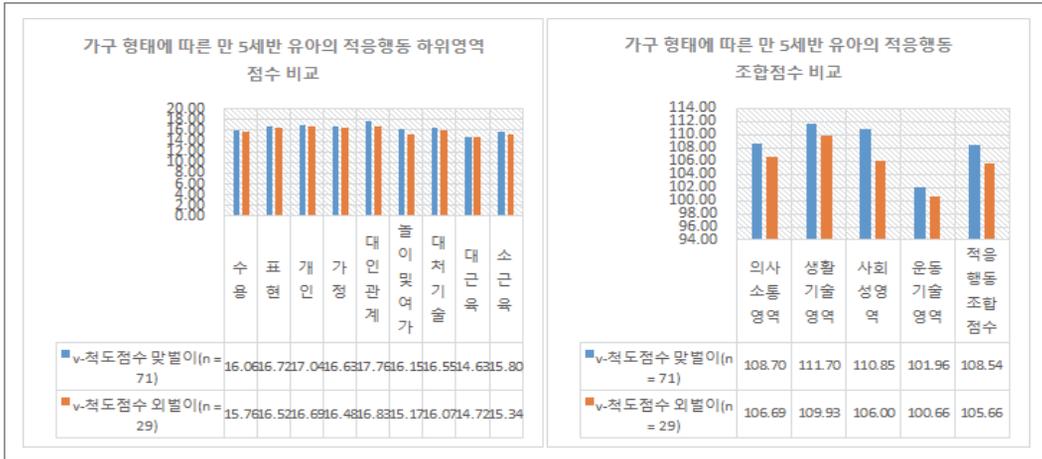
[그림 9] 맞벌이 여부에 따른 만 5세반 유아의 인지발달 점수 비교



주: 1) 5세반의 경우 수용어휘, 그림명명 소검사와 어휘습득지표는 산출되지 않아 제시되지 않음.
 2) 토막짜기, 상식, 행렬추리, 동형찾기, 그림기억, 공통성, 공통그림찾기, 선택하기, 위치찾기, 모양맞추기, 선택하기(비정렬), 선택하기(정렬) 소검사의 경우 평균 10, 표준편차 3의 환산점으로 제시됨.
 3) 전체IQ, 언어이해지표, 시공간지표, 유동추론지표, 작업기억지표, 처리속도지표, 비언어지표, 일반능력지표, 인지효율성지표의 경우 평균 100, 표준편차 15의 지표점으로 제시됨.
 자료: 최은영 외(2022).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연구(1), p.146. <표 IV-3-19>를 재구성함.

- 만 5세반 유아의 적응행동검사 결과, 맞벌이 가정 유아의 적응행동 조합 점수 평균은 맞벌이 가정 유아가 108.54(sd=12.91), 외벌이 가정 유아가 105.66(sd=12.85)로 맞벌이 가정 유아의 적응행동 조합점수가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음.
- ◆ 주영역인 의사소통영역, 생활기술영역, 사회성영역, 운동기술영역 모두 맞벌이 가정 유아가 외벌이 가정 유아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으므로 취업여부에 따른 만 5세반 유아의 적응행동 주영역 표준점수에는 차이가 없음.

[그림 10] 맞벌이 여부에 따른 만 5세반 유아의 적응행동 점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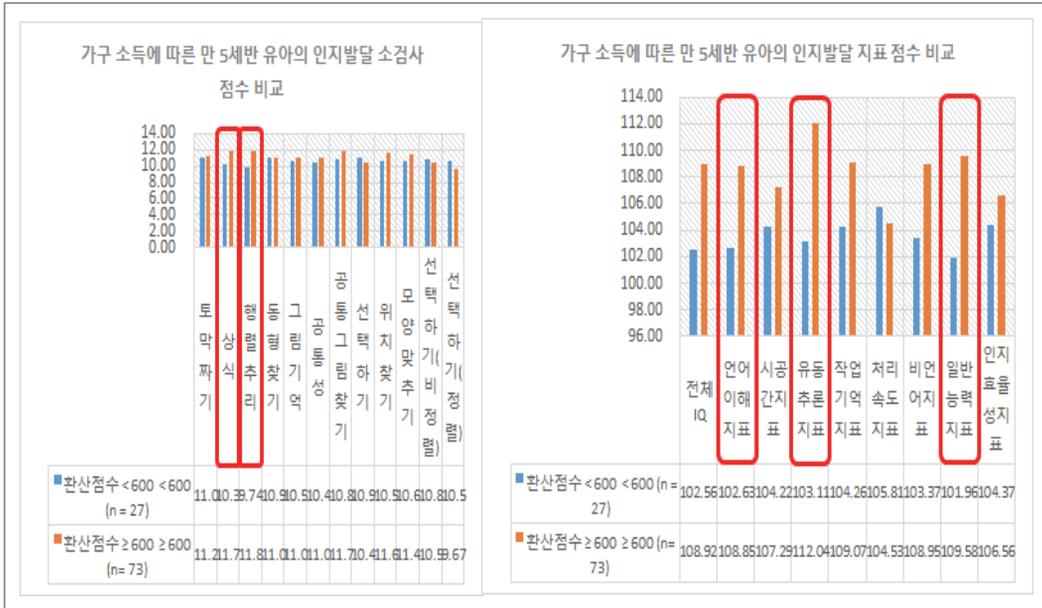
주: 1) 수용, 표현, 개인, 가정, 대인관계, 놀이 및 여가, 대처기술, 대근육, 소근육 하위영역의 경우 평균 15, 표준편차 3의 v-적도 점수로 제시됨.
 2) 의사소통영역, 생활기술영역, 사회성영역, 운동기술영역, 적응행동 조합점수의 경우 평균 100, 표준편차15의 표준점수로 제시됨
 자료: 최은영 외(2022).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연구(1), p.147. <표 IV-3-20>을 재구성함.

2) 가구 소득

■ 가구 소득은 전체 표본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는데, 만 5세반 유아의 K-WPPSI-IV 검사결과, 가정의 수입이 600만원 미만인 가정 유아의 평균은 102.56(sd=15.44), 600만원 이상 가정 유아의 평균은 108.92(sd=14.86)로 가계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 기본지표를 살펴본 결과 언어이해지표는 600만원 미만인 가정 유아는 102.63 (sd=12.52), 600만원 이상 가정 유아는 108.85(sd=13.67)로 두 집단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t=-2.065, p=.042), 유동추론지표는 수입이 600만원 미만 가정 유아는 103.11(sd=18.13), 600만원 이상 가정 유아는 112.04(sd=13.6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t=-2.645, p=.010).
- ◆ 추가지표 분석에서도 일반능력지표가 수입이 600만원 미만 가정 유아는 101.96 (sd=17.60), 600만원 이상 가정 유아는 109.58(sd=15.36)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t=-2.115, p=.037).

[그림 11] 가구소득(2집단)에 따른 만 5세반 유아의 인지발달 점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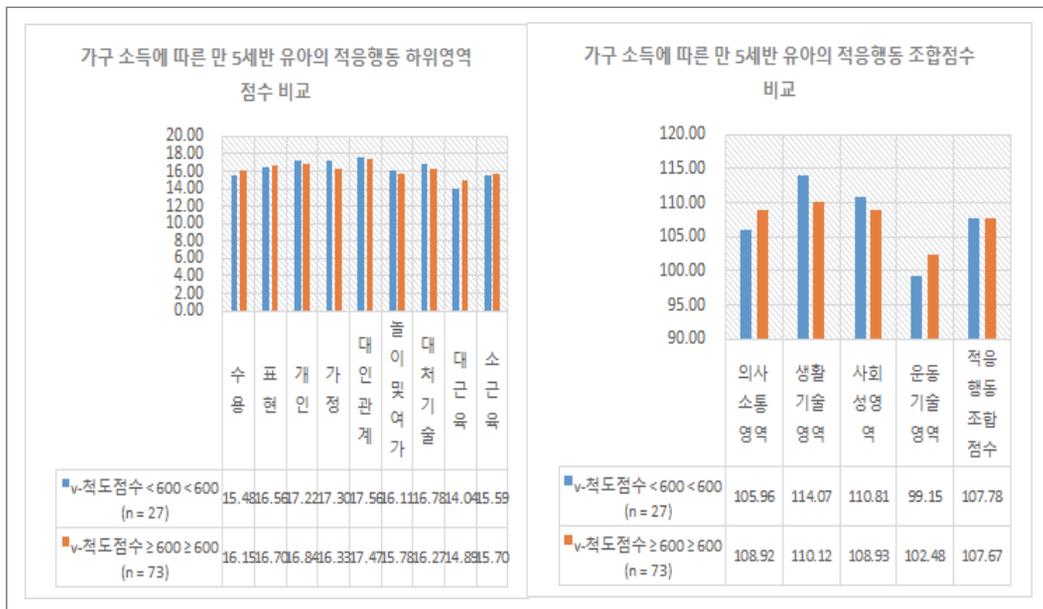
주: 1) 5세반의 경우 수용어휘, 그림명명 소검사와 어휘습득지표는 산출되지 않아 제시되지 않음.
 2) 토막짜기, 상식, 행렬추리, 동형찾기, 그림기억, 공통성, 공통그림찾기, 선택하기, 위치찾기, 모양맞추기, 선택하기(비정렬), 선택하기(정렬) 소검사의 경우 평균 10, 표준편차 3의 환산점으로 제시됨.
 3) 전체IQ, 언어이해지표, 시공간지표, 유동추론지표, 작업기억지표, 처리속도지표, 비언어지표, 일반능력지표, 인지효율성지표의 경우 평균 100, 표준편차 15의 지표점으로 제시됨.
 자료: 최은영 외(2022).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연구(1), p.148. <표 IV-3-21>을 재구성함.

- 소검사별 분석결과에서는 상식 소검사에서 600만원 미만 가정 유아는 10.30 (sd=2.38), 600만원 이상 가정 유아는 11.77(sd=2.7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t=-2.478, p=.015).
 - ◆ 행렬추리 소검사에서 가정 수입 600만원 미만 가정 유아는 9.74(sd=4.39), 600만원 이상 가정 유아는 11.86(sd=2.9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t=-2.805, p=.006).
 - ◆ 만 5세반 유아의 인지능력 전체는 가구 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언어이해지표와 유동추론지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가계소득이 높은 가정의 유아 수행점수가 높게 나타남.
- 만 5세반 유아의 적응행동검사 결과, 가정의 수입이 600만원 미만인 가정 유아의 적응행동 조합 점수 평균은 107.78(sd=12.72), 600만원 이상 가정 유아는 107.67

(sd=13.04)로 가계소득에 따라 만 5세반 유아의 적응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 ◆ 모든 주영역에서도 가계소득에 따른 만 5세반 유아의 적응행동 주영역 표준점수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만 5세반 유아의 적응행동은 가계소득에 따라 차이가 없었음.

[그림 12] 가구소득(2집단)에 따른 만 5세반 유아의 적응행동 점수 비교



주: 1) 수용, 표현, 개인, 가정, 대인관계, 놀이 및 여가, 대처기술, 대근육, 소근육 하위영역의 경우 평균 15, 표준편차 3의 v-척도 점수로 제시됨.

2) 의사소통영역, 생활기술영역, 사회성영역, 운동기술영역, 적응행동 조합점수의 경우 평균 100, 표준편차15의 표준점수로 제시됨.

자료: 최은영 외(2022).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연구(1), p.149. <표 IV-3-22>를 재구성함.

4 제언

- 본 연구에서 만 2세반 영아, 만 5세반 유아를 대상으로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 만 2세반 영아와 만 5세반 유아의 인지능력과 적응행동 검사 결과를 종합하면, 인지 능력은 만 2세반 영아와 5세반 유아 모두 평균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화연구(박혜원·이경옥, 2016)의 서울 지역의 검사결과인 105.97(sd=14.45)에 비해 2~5점 정도 더 높은 경향을 보임. 적응행동 검사결과도 인지능력과 마찬가지로 평균 수준으로 나타남.
 - ◆ 영유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 불가능한 다양한 변인들 내에서 팬데믹의 영향을 논하는 것 자체에는 조금 더 신중하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함.
 - ◆ 회복 탄력성이 높은 영유아기의 인지발달, 적응행동 등의 격차를 단기간의 연구로 판단하기보다 영유아 발달의 점진적이고, 장기적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누적된 격차의 요인들을 중장기적으로 추적하는 연구가 요구됨.
- 가구 특성 변인에 따라 분석한 결과, 맞벌이 가정의 영유아는 그림명명 소검사를 중심으로 어휘습득지표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외벌이 가정의 영유아는 선택하기를 중심으로 처리속도 지표에서 높은 수행수준을 보임.
 - ◆ 만 2세반 영아는 어휘습득 추가지표와 표현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그림명명 소검사에 있어 맞벌이 가정의 영아의 인지능력이 외벌이 가정의 영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만 5세반 유아는 처리속도지표와 선택하기 소검사에서 외벌이 가정의 유아의 점수가 맞벌이 가정의 유아보다 높았음. 한편 만 2세반 영아의 적응행동은 의사소통 영역 중 표현에서만 외벌이 가정에 비해 맞벌이 가정의 영아의 적응행동이 더 높게 나타남.
-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행렬추리 소검사를 중심으로 유동추론지표가 소득이 높은 가정의 영유아가 높은 수행 수준을 보임.
 - ◆ 만 2세반 영아의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따른 인지능력의 차이는 없었으나 만 5세반 유아의 경우에는 언어이해지표와 유동추론지표에서 소득이 높은 가정의 유아가 높은

수행 수준을 보임. 특히 상식 소검사와 행렬추리 소검사에 이러한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소득수준에 따른 유동추론지표의 차이는 만 5세반 유아에게서만 나타남.

- ◆ 만 2세반 영아와 만 5세반 유아의 적응행동은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만 2세반 영아의 적응행동의 운동기술 영역 중 소근육에서는 가계소득이 낮은 가정의 영아의 점수가 높게 나타남.
- ◆ Davies et al(2021) 연구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에 집단 돌봄에 준하는 조치를 한 영유아는 언어발달과 집행기능이 상대적으로 더 뛰어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소외된 계층에서 더 두드러질 수 있는 차이를 사회적 돌봄 기능의 확대를 통해 개선할 수 있음(Davies et al., 2021)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영유아의 뇌는 가변적이고 대처능력이 뛰어나 발달이 늦어졌더라도 이후 극복한다는 연구결과(Zeanah et al., 2009)를 통해 2년 이상 지속된 범세계적 팬데믹 현상이 영유아의 신경 발달에 얼마나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지 아직 예단할 수 없는 상황임.
 - ◆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교육 격차, 양극화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외부 요인의 영향력으로 인해 경제적 충격이 크고,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의 조기 개입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영유아기에 경험하는 교육기회의 부재나 발달을 저해하는 결핍은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는 실정임.
 - ◆ 이러한 영향은 직접적이라기보다는 교육기회의 부재나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태도 등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체계에 의해 매개되고 있다는 이론이 지배적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심도 깊은 분석과 노력이 요구됨(손수민, 2013).
- 생애초기 발달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특히, 팬데믹을 경험한 영유아들의 경우, 발달의 영향에 대한 중장기적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이에 근거한 격차 요인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
 - ◆ 격차는 새로운 문제가 아닌 과거부터 지속되었던 현상이지만 최근에 두드러지고 있는 문제점은 경제적 양극화와 맞물려 진행된다(손수민, 2013)는 점임. 이에 영유아 건강검진(K-DST) 결과를 베이스라인으로 하여 누적적이고, 장기적인 발달 지연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영유아 특성(지원이 필요한 영역)별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Ⅰ 참고 문헌 Ⅰ

- 구인회(2021). 팬데믹과 양극화. 교육정책포럼(332호, 2021. 2.17).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 네트워크.
- 권혜진(2021). 유아교사가 영유아 문제행동지도에서 경험하는 감정노동의 맥락. 한국통합사례관리학, 93-118.
- 박영심·신지현·최희경·박영숙(2021) 코로나19 감염예방 조치에 따른 만2세 영아 발달특성 고찰,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5(3), 487-495.
- 박혜원·이경옥(2016). 한국아동의 지적 특성: 한국 Wechsler 유아지능검사 4판(K - WPPSI - IV)의 수행분석. 아동학회지, 37(6), 157-168.
- 손수민(2013). 사회양극화에 따른 유아교육 양극화 현상에 대한 고찰. 생태유아교육연구, 12(2), 69-90.
- 이시효(2020). 코로나19 이후 거주환경의 차이가 초등학생의 학습, 게임, 놀이 시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부천시 소사구 세 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공간환경학, 30(4), 172-207.
- 이정연(2021). 조사로 본 코로나19와 교육격차, 그 실태와 과제. 교육정책포럼(332호, 2021. 2.17).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 최은영·김은영·구자연·조혜주·정윤경·심영규(2022).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해소방안 연구(I). 육아정책연구소.
- 최혜영·유준호·권수정·장경은(2021). 코로나19 시대의 보육환경 내 영유아의 사회적 경험. 한국보육지원학, 17(2), 29-46.
- CDC. (2020).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ases in U.S. Atlanta, GA: US.
- Davies, C., Hendry, A., Gibson, S. P., Gliga, T., Mcgillion, M., & Gonzalez-Gomez, N. (2021).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during COVID-19 boosts growth in language and executive function.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30(4). doi:10.1002/icd.2241

The World Bank. (2020). World Bank – New Grants and Loans. *Africa Research Bulletin*, 57(8), 23119A-23119C.

Zeanah, C. H., Egger, H. L., Smyke, A. T., Nelson, C. A., Fox, N. A., Marshall, P. J., & Guthrie, D. (2009). Institutional Rearing and Psychiatric Disorders in Romanian Preschool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6(7), 777-785. doi: 10.1176/appi.ajp.2009.08091438.

2023년 이슈페이퍼 모음집

2023 KICCE 육아지원정책 현안과 과제

발행일 | 2023년 12월
발행인 | 박상희
발행처 |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전화 | (02) 398-7700
팩스 | (02) 398-7798
홈페이지 | <http://www.kicce.re.kr>
인쇄처 | 세일포커스 (02) 2275-6894

※ 이 책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2023 KICCE

육아지원정책 현안과 과제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 TEL 02)398-7700 | FAX 02)398-7798 | <http://www.kicce.re.kr>